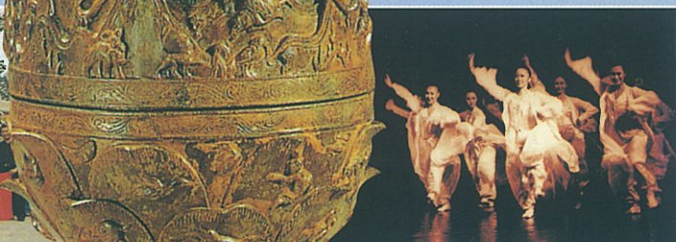


忠南文化

제2호
1998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틈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 표지사진
백제금동대항로
부여 능산리절터, 백제6세기,
국보 제287호, 높이 62.5cm
- 제자(題字) 민복기

4. 발간사 / 충청남도지회회장 김현구 5. 축간사 / 충청남도 지사 심대평

충남의 향토사연구/향토사연구 활성화 수상논문

- 6. 태안의 문화적 배경과 그 정신 / 박춘석
- 19. 매죽헌 성삼문 연구 / 박종관
- 43. 서천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연구 / 유승광

충남의 인물

- 62. 양렬공 정인경 선생 / 서산문화원
- 66. 김항 / 논산문화원
- 68. 독립운동가 이세영의 사립영명학교
/ 청양문화원장 안종일

충남의 민속

- 72. 금산농악 / 안용산
- 75. 은산별신제 / 부여문화원
- 78. 강다리기 / 조치원문화원

충남의 전설

- 80. 천리성의 애화 / 서천문화원
- 85. 닭우리고개 / 청양문화원
- 87. 장성리 은행나무 / 홍성문화원

忠南文化

통권 제2호 / 1998

충남의 문화재

- 90. 두술성 / 청양문화원장 안종일
- 92. 대흥면 임존성지 유적지를 찾아서 / 예산문화원
- 96. 안흥진성 / 태안문화원
- 99. 영탑사 금동삼존불 / 당진문화원
- 100. 수덕사 대웅전 / 예산문화원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 101. 단오절 민속축제 / 아우내문화원
- 103. 성환배축제 / 성환문화원

문화칼럼

- 106. 문화예술의 지향 / 천안문화원장 민병달
- 108. 문화에 대한 칼럼 / 대천문화원장 윤원석
- 110. 「문화의 집」운영은 문화원에 맡겨야 ... / 충남도지회회장 김현구
- 112. 백제의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는 부성산성,
백제의 주류성은 상왕산성이다. / 서산문화원

- 113. '98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 충청남도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명단
- 116. 영광의 얼굴들 / 문화훈장, 충청남도문화상 수상자명단
- 121. '98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 124. 각 문화원 활동상황

116. 충남문화 창간호 축서 / 작품해설문

21세기 문화의세기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창달에 앞장서는 문화원이 됩시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현구

지난해 산고(産苦)끝에 태어난 『忠南文化』가 두살이 됩니다. 건강(健康)하게 바르게 키워갈 것입니다.

새로운 1000년은 문화(文化)로 열어가게 되고 21세기(世紀)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는 국가(國家) 및 상품(商品)의 이미지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의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창출(創出)의 원동력(原動力)이며 또한 문화는 새로운 국부(國富)를 얻게 해주는 한편 국민(國民)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자긍심(自矜心)을 부여(附與)하므로써 침체(沈滯)된 사회분위기(社會雰圍氣)에 새로운 활력(活力)일 것이고, 21세기는 문화가 중심(中心)이 되는 사회로 문화예술(文化藝術)의 창조적(創造的) 상상력(想像力)이 국가발전(國家發展)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어 문화를 사회의 중심가치(中心價値)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時期)에 지역문화창달(地域文化暢達)의 구심체(求心體)이며 종합문화(綜合文化)의 중심으로 그 역할(役割)과 기능(技能)

이 증대(增大)되고 있는 문화원(文化院)의 활동(活動)이 절실(切實)히 요구(要求)되는 때에 종래(從來)의 운영(運營)의 틀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方向)으로 새로운 변화(變化)를 도모(圖謀)해온 각 문화원의 노고(勞苦)에 치하(致賀)를 드리면서 특히나 향토축제(鄉土祝祭) 개선사업(改善事業), 향토사(鄉土史) 활성화사업(活性化事業), 문화시민(文化市民) 운동사업(運動事業) 등을 타(他)에 없는 매우 돋보이는 일이었기에 보람을 갖게되며 한해동안의 일들을 여기에 담아 뒷날 사료적(史料的)가치(價値)로서 소중(所重)하게 보존(保存)되기를 기대(期待)합니다.

우리 도지회(道支會)의 활동과 회지간행(會誌刊行)을 위하여 적극적(積極的)인 지원(支援)을 하여주신 심대평(沈大平)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여주신 각 문화원장님들과 본지(本誌) 편집위원(編輯委員)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는 문화원의 역할입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우리도 향토문화 창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와 17개 문화원 가족들이 그동안 소중하게 이루어 왔던 지역문화활동의 기록들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충남문화』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가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문헌에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과거의 흔적이기에 앞서 우리모두의 문화유산이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발판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올해 발간되는 『충남문화』는 충남정신의 뿌리를 찾고 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은 물론 향토문화 연구의 열기를 한차원 높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도내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마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조사·연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우리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널리 애용되어 충남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됨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충남문화』발간에 수고해 주신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김현구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태안의 문화적 배경과 그 정신



朴 春 錫

早稻專門大學卒業
 明治大學大學院修了
 東京大學大學院修了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研究員歷任
 右石大學校, 崇田大學校, 仁荷大學校,
 慧田大學 講師歷任
 慶熙大學校 客員教授歷任
 泰安女子商業高等學校 校長歷任
 靑雲大學校 講師在職
 文學博士, 教育學博士

1. 태안의 지리적 여건

태안은 한반도의 중부지역인 서해안의 태안반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인 대전으로부터는 무려 250km 떨어진 충청남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수리적인 위치에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동경(東經) 126° 21'으로서 태안읍 인평리에 동쪽 끝이 되고, 서쪽으로는 동경 126° 25'으로서 근흥면 가의도의 서쪽 끝에 이른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위(北緯) 36° 02'으로서 고남면 고남리의 남쪽 끝이 되고, 다시 북쪽으로는 북위 36° 90'으로서 이원면 내리의 북단(北端)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주변과의 관계적 위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안은 동쪽만 서산시와 연륙(連陸)되어 있을뿐, 3면의 서남북쪽은 모두 바다에 접하고 있는 반도의 지형이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륙된 동

〈수리적 위치〉

군 소 재 지	동 경			북 위		
	방 위	지 명	경 도	방 위	지 명	경 도
태 안 읍	극 동	태안 인평리	126° 21'	극 남	고남 고남리	36° 2'
남 문 리	극 서	근흥 가의도	126° 25'	극 북	이원 내 리	36° 90'

쪽으로는 서산시,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보령군의 원산도를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덕적군도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같은 지형적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태안은 동쪽의 서산시를 내륙으로 통하는 유일한 육상 교통의 관문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서쪽은 광활한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400km 나가면 중국의 산둥(山東)반도에 이르게 되는데, 일찍 발달한 대륙문화가 이 서해를 통해 태안에 유입 되었다.

특히 불교문화가 최초로 백제에 들어올 때, 태안을 통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까닭이라 하겠다.

반도라는 지형의 특징은 발달한 대륙문화를 받아들이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잇점은 있으나, 그 문화의 꽃은 내륙에서 피는 것이다. 그실례의 하나가 태안에서 일찍 3세기 초엽에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이 불교 문화의 화려한 꽃은 내륙으로 전파되면서 서산에서 아름다운 예술의 극치를 자아내는 서산마애 3존불을 이룩하여 놓고, 다시 예산 등지를 거치면서 부여에 이르러 그곳에서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을 만개시켰던 것이다.

또한 태안은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특히 안흥항은 여송무역선(麗宋貿易船)이 내오아하던 기항지(寄港地)로 일찍 내외에 알려졌고, 또한 북쪽의 원북면 청산리는 인천을 내왕하는 정기 여객선이 60년대까지 운항되어 앞서가는 도시문화(京仁文化)를 받아들여 태안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한 몫을 다했던 것이다.

태안은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장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으나,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즉 내륙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안군조에 따르면 「태안군은 토지가 비옥하여 5곡을 재배하기에 알맞고 또 어물과 소금을 생산하는 이익이 있어 백성들이 모두 즐겨 이 땅에 살아왔다」라고 하였다.

흥년이 계속되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여 갈 때, 태안 주민들은 어염을 수확하여 이를 이용하고 판매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고, 또한 해상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생활을 영위하여 왔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지속되어 갈 것이다.

또한 이같이 여유있는 생활은 곧 외형으로

나타나, 영호남 지역에 비해 주거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충청도 지역의 주택은 영호남에 비해 그 규모가 큰 데,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형태는 태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서 얻어진 천혜의 해안선 530.8km가 대부분 해수욕장화되어 연중 관광객이 그치지 않는다.

이같이 반도의 지형에서 오는 특수성이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살맛나는 태안으로 부각시켜 갈 것이다.

또한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이 앞으로 태안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것이다. 육지에서 고갈된 자원을 바다에서 탐색하고, 끝없이 전개되는 해상활동을 통해 5대양 6대주와 교류하여 세계속의 태안으로 우뚝 서게 할 시간도 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반도라는 지형에서 오는 단점은 그것이 곧 취약점이 되어, 일찍 14세기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태안군이 폐군된 것이다.

이 폐군으로 인해 일부 군민은 왜구에 납치되어 가고 또 대부분은 사방으로 흩어져 피난살이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빈집은 허물어지고 잡초는 무성하여 마을이 황폐해지니 들짐승의 소굴이 된 채 방치되었다가, 조선조의 3대 임금 태종의 하명에 따라 복군하니 폐군된지 무려 66년만이었다.

530.8km의 광범위한 해안선을 방비할 수 없어, 왜구의 침입으로 폐군 당한 이 비참한 태안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라는 취약성 때문에 자연히 바다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의

관계로 같은 위도상에 있는 동해안 지역보다 오히려 추운 편이다.

그런데 4계절은 비교적 뚜렷한 편이지만, 봄철이 매우 짧은 것이 하나의 흠이라면 흠일 것이다.

또한 겨울철은 몹시 춥고 여름철은 열대지방을 방불할 정도로 고온이어서 대륙성 기후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지리적 영향을 받아 그렇게 한서(寒暑)의 차가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의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태안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만 연륙되고 나머지 3면은 모두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이므로 해안의 굴곡이 심하고, 따라서 크고 작은 섬들이 무려 11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1개의 섬은 유인도이다. 섬 전체의 면적이 10,985km로서 태안군 전체 면적(469.06km²)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태안읍에 우뚝 솟은 백화산은 해발 284m로서 본군내에서 제일 높은 태안의 진산인데, 이 지맥이 사방으로 뻗어내려 마치 낙지발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산 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54.5%나 차지하고 있어 평야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간척지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산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험준한 산악이 아니라 대부분이 야산에 불과하다.

그리고 태안의 지형은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일반적인 지형인 노년기 지형에 해당된다.

태안은 이 반도라고 하는 천혜적인 지형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17세기 중엽 세계 최초의 굴포운하를 개착하여 조운업을 발달시켰고, 또한 해상활동을 통해 대륙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선진 태안을 이룩한 역사적 배경등을 거울 삼아 개발하여 나간다면, 태안(泰安)이란 명칭에 상응하는 국내 제일의 복지센터가 될 것이다.

2. 태안의 역사적 배경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는 그 곳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가 우선 그 점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태안 지역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신석기인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기원전 3,000년 경으로 보고 있으니, 태안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경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태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사례는 없으나, 신석기 유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 되었다.

안면도의 고남면에서 발굴된 10여 개소의 패총군과 남면의 달산패총군은 모두 신석기 시대의 유적인데, 이곳에서 출토된 한 두점의 구석기 유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다. 돌도끼·돌칼·돌자귀·돌끌·가락바퀴·3각형석도 다수의 토기 파편등

이 출토되었다.

다음 청동기시대의 태안 지역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유물은 아직 발굴된 것이 없으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우선 고인돌(지석묘)을 들 수 있다. 이 고인돌은 태안읍의 「장산고인돌」 7기와, 고남면의 「고남고인돌」 1기인데, 이 유적을 발굴 조사했으나 한 점의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태안군과 인접한 서산시에서도 일찍 20여기의 고인돌은 발견되었으나, 역시 이 곳에서도 청동기 유물은 한점도 발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69년에 서산시 대산읍에서 동모(銅鉋) 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어 1987년에는 서산시 음암면에서 세형동검(細形銅劍) 한 점이 발견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다음은 3한(三韓)의 하나였던 마한(馬韓)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때의 태안은 마한에 딸려 있었으므로 마한을 고찰하는 것이 태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한은 크고 작은 54개국으로 형성된 부족연맹체였는데, 이를 통할하는 연맹장이 있었고 또 그 밑에 지방통치권과 저수지 관리권을 행사하는 대족장과 소족장을 두었다.

이들은 절대적인 권력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부족 위에서 군림한 것이 아니고 보통의 읍락(邑落)지역에서 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 때는 제정일치 체제에서 벗어나 제정 분리가 이루어져 제사 지역과 읍락이 따로 있었다.

이에 따라 막강했던 천군(天君)의 세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한편, 정치적 군장의 세력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그러나 천군

이 주관하는 소도(蘇塗)는 특별한 신성 지역이었으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마한 54개국 중에서 충청남도에 위치했던 나라는 모두 16개국이었는데, 이 중에서 태안에 자리한 나라는 신소도국(臣蘇塗國)과 고랍국(古臘國)이었다.

신소도국은 지금의 태안읍 동문리 백화산 밑의 샘골(일명 사양동)이고, 고랍국은 고남면의 고남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마한 54개국 중 유력한 중심국이 직산(稷山)에 자리한 목지국(目支國)이었고, 이 목지국의 진왕(辰王)이 정치적으로 최고의 연맹장이 되어 주변 여러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따라서 태안에 위치한 신소도국은 제천 의식의 중심국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 같다. 즉 신앙적인 소도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신소도국(臣蘇塗國)이란, 이 소도(蘇塗)의 명칭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또한 소도란 천군이 천신(天神)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지역으로서 법률의 힘도 미치지 못한 곳이다.

태안 구명(舊名)이 소태(蘇泰), 소주(蘇州), 소성(蘇城)이라 한 것도 이 소도(蘇塗)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태안은 일찍 4세기 경부터 마한의 제천의식의 중심국으로서 신앙적인 소도의 종주국이었음을 실감케 한다.

다음은 백제시대의 태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백제는 3국 중에서 제일 먼저 단기간에 고대 국가의 완성을 마친 나라였다. 백제가 기

원전 18년에 한강 유역인 위례성에서 온조왕에 의해 건국되어 660년 부여에서 멸망할 때까지 678년간 존속하였는데, 특히 4세기에 들어와 근초고왕이 마한의 전지역과 대방군 등을 병합하여 고대 정복국가로 등장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369년 근초고왕이 마한 54개 국을 완전 정복하여 백제국에 병합할 때 태안에 위치했던 「신소도국」과 「고랍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백제의 판도에 편입되었다.

이때 태안은 행정상 백제의 성대혜현(省大兮縣)으로 개편 되었다. 백제의 성대혜현이 된 태안은 5세기부터 대륙과 통교(通交)를 하였는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 중에 있는 백화산에 조성된 「태안마애3불」이다.

현재 태안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의 유물로는 우선 태안 마애3불을 비롯하여 사찰(寺刹)과 토기류(土器類)가 있으나, 특히 토기는 완전한 고분에서 출토된 것은 없다. 다음은 통일신라와 태안에 관해 살펴본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진한(辰韓) 12개국의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에서 발전한 나라인데, 6세기에 들어와 고대 국가의 완성을 보았다. 그후 신라는 가야연맹을 공략하여 병합하므로써 정치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더니, 드디어 7세기에 이르러 외교에 뛰어난 김춘추와 김유신으로 하여금 나당동맹(羅唐同盟)을 체결하는데 성공한다. 그후 신라는 660년 백제를 정복하고 이어 8년 뒤인 668년에는 고구려를 정복했다.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여 나당·연합군으로 백제와 구구려는 멸망시켰으나, 정치적 야

심을 품고 돌아가지 않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하기 위해 무려 8년간이나 대당전(對唐戰)의 악전 고투 끝에 676년에 당나라를 몰아내고 마침내 3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

드디어 3국을 통일한 신라는 광대한 국토의 관리와 더불어 전제 왕권의 강화를 위해, 관료 체제를 재정비하고 따라서 지방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에 9주5소경(九州五小京)을 두었다.

이때 태안은 응천주(公州)의 관할 지역으로 편입되어 내려오다 756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태안의 성대혜현이 소태현(蘇泰縣)으로 개칭 된다.

200여년간 백제의 영토였던 태안은 신라의 3국통일로 인하여 다시 통일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어 270여년 내려 왔으나, 오늘날 신라의 문화재로 남아 관리중에 있는 것은 극히 희소하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 중인 불상이 한 점 있는데, 이는 「석가여태좌상」으로서 남편 몽산리 청계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여 발달한 신라 불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의 태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0세기 초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모든 제도를 정비하여 귀족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므로써 종래의 신라 골품 제도가 폐지되는 커다란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세운지 무려 65년이 지난 성종(成宗) 2년(983)에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여 전국을 12주로 나누어 중앙에서 목

사(牧使)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이때의 태안은 공주목(公州牧)의 관할하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성종 14년(995)에 다시 관제 개편을 실시하여 전국을 10도(道) 4도호부(都護府)로 나누고 또 12목의 목사를 절도사로 개칭하였다. 이때 설치된 10도 중 하남도(河南道)가 지금의 충청남도에 해당되는데 이 하남도는 공주와 운주로 이루어 졌었다.

다시 20여년이 지난 현종 9년(1018)에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전국을 5도양계(五道兩界)로 나누고 그 안에 3경(京)·4도호부(都護府)·8목(牧)·15부(府)·129군(郡)·335현(縣)·29진(鎭)을 설치하고 다시 그 밑에 촌(村)·향(鄉)·소(所) 0104부곡(部曲) 등을 두었는데, 이때의 태안은 지금의 홍성인 운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충렬왕 24년(1298)에 소태현(蘇泰縣)이 태안(泰安)으로 개칭되는 동시에 군으로 승격되었다.

이같이 태안으로 개칭되어 오늘까지 무려 700년간 불리워지고 있는 태안이란 명칭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준말로써 「국가가 태평하고 국민이 평안하다」는 뜻이다.

왕조(王朝)가 바뀌면 모든 제도는 물론 지명까지도 개칭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그대로 700년간 호칭되고 있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명칭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태안군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홍주사·남문리 5층석탑·홍주사 3층석탑·백화산성 성벽 그리고 유물로는 청동 숟가락(태안여상 소장) 몇 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려조 때 명명된 태안이란 지명이 700년간 변함없이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문화재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고려는 대송외교정책(對宋外交政策)을 펴나가면서 앞서가는 송나라의 문물을 수입하여 고려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반하여, 송나라는 북방민족(요·금·원)과 대항하기 위해 고려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두나라는 동상이몽격으로 그 속셈이 달랐지만 결국은 양국이 외교적으로 친선을 이루어 끝까지 마찰 없이 여송(麗宋) 무역선이 내왕하였는데, 이때의 안흥항은 무역선의 기항지(寄港地)로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시대의 태안은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대 사건이 있었으니, 이는 왜구(倭寇)의 침입으로 인해 태안군이 폐군되는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왜구란 13세기 경부터 16세기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 침입하여 재물의 약탈은 물론 인명의 살상까지도 사양치 않은 일본(日本)의 해적 집단을 일컫는 것이다.

왜구의 약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고려 말엽에서부터 조선조의 초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는데, 이때 태안 연안에도 여러차례 왜구가 침입하였다.

특히 고려말엽인 공민왕 22년(1373)에 왜구가 침입하여 태안군이 폐군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이때 군수는 한두명의 직원을 데리고 서산군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10년 뒤인 1383년에 서산에 왜구가 침입하자 태안군수는 다시 예산현으로 옮겼다. 이같이 왜구의 침입으

로 인해 하나의 군이 폐군되었다고 하는 것은 왜구의 비인간적인 잔인성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이 폐군된지 무려 40여년 뒤인 조선조 태종16년(1416)에 태종께서 사냥(春獵)차 이곳에 임행하였다가 마을이 황폐한 것을 애석히 여기고 수행원에게 복군 하라는 하명을 내렸다. 이 하명을 받은지 20여년 뒤인 세종21년(1439)에 비로소 김흔지군수가 새로 부임하므로서 태안군이 왜구의 침입으로 폐군된지 무려 66년 만에 복군(復郡)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근세 조선시대의 태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392년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태조(이성계)는 통치이념으로 3대 정책을 수립하고 첫째 외교 정책으로 사대주의, 둘째 문화정책으로 송유억불주의, 셋째 경제정책으로 농본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태종13년(1413)에는 군현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경상도에 딸려있던 황간·옥천·영동·청산·보은 등지를 충청도의 관할하에 편입시켜, 동쪽으로는 단양과 죽령, 서쪽으로는 태안의 소근포, 남쪽으로는 은진, 그리고 북쪽으로는 직산과 아산에 도달하니 동서로는 477리, 남북으로는 244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었다. 이 구역내에는 4목(牧)·14군(郡)·34현(縣)을 두었는데, 이 때의 태안은 14군 중의 하나였다. 이 태안이란 명칭은 고려 충렬왕때 개칭된 명칭인데 조선조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다음은 조선조의 후기에 일어났던 동학혁명(東學革命)과 태안 지역의 활동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동학혁명은 1894년 당시의 봉건 지배층의 횡포와 탐관오리의 수탈, 그리고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등으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농민들의 감정이 급기야 폭발하여 혁명으로 승화된 것이다.

동학혁명하면 의례 녹두장군 전봉준을 연상하게 되고 또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종래의 고정관념 때문인지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남접(南接)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북접(北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하였다. 소홀했던 이유의 하나는 사료(史料)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으나, 최근에 창산후인 조석헌 역사록(昌山后人曹錫憲歷史錄)이 발견되어 북접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역사록은 혁명 당시의 북접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데 혁명에 직접 참가했던 태안군 출신 조석헌의 일기책인 것이다.

이제부터 조석헌의 역사록과 촌로들의 생생한 구전을 중심으로 혁명 당시 북접의 기포지(起包地)였던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를 중심으로 군내 각 읍면의 실상에 대해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태안군내에 동학이 유입된 것은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4년전인 1890년 4월 말경에 농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도되어 갔다. 이는 서산시 지곡면에 거주하는 최형순(崔亨淳)이 1890년 3월에 제2교조 최시형을 방문하고 즉석에서 입도 의식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전교하므로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동학은 서산의 지곡면에서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로, 여기서 다시 원북면 방갈리로, 방갈리서 다시 군내 각 읍면으로 4년간에

걸쳐 전도되어 가니 그 세력이 전군에 미치게 되었다.

이 무렵 1894년 1월 녹두장군 전봉준의 지도 아래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혁명군은 관군과 싸워 승리하므로서 그 여세를 몰아 충청기하자는 창의문을 뿌리고 호소하자 이에 호응하여 원군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여드니 그 무리 수 천에 달하였다. 동학군은 이에 사기충천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점점한 뒤 「보국안민」의 깃발을 높이들고 북상하니 그 위용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북상한 동학혁명군은 1894년 4월 27일 전주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같이 동학혁명군의 승승장구의 소식이 전국 각지에 쏜살같이 알려지자 이 때 태안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한 시간이라도 먼저 동학에 들어가면 그 만큼 먼저 양반이 된다는 자부심에서, 길가던 사람은 냇물 앞에서, 산에서 나무베던 사람은 숫돌물 앞에서 서로 앞 다투어 입교하니 하루에도 수 백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렇게 동학세력이 전군에 확산되어 동학천지가 되니, 관청에서는 동학교도를 탄압하는가 하면 동학 우두머리들을 체포하여 투옥하였다.

바로 이 무렵 1894년 9월 30일 태안방어사의 집에서 군수와 별유사 등이 밀회를 열고 이미 투옥된 동학 우두머리 30여명에 대한 처형과 일반 교도를 체포하여 투옥하자는 회의 내용을 몰래 엿들은 이방 김엽춘이 이 사실을 즉시 예포(禮包)에 알렸다.

이 급보를 들은 수접주 장성국은 주저할 틈도 없이 단숨에 달려가 방갈리 문장으로 접주에

게 알렸다. 마침 문접주 집에 모여 있던 동학의 간부급들은 즉시 회의를 열어 결의한 끝에 밤이 새기전에 태안으로 집결하기로 하고 동학군을 소집했다.

바로 이 때 예산 본포에서 기포(起包)하라는 선타철성(先打鐵聲)이 전타(傳打)되어 고요하던 갈머리 마을을 진동하고 있었다. 이철성을 들은 동학군은 더욱 사기 충천하여 드디어 태안을 향한 진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행군을 시작한 동학군은 새벽 3시경에 집결지인 태안의 삭선리 진벌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임시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한 뒤 아침 일찍 태안관아를 점령하기로 하고 각지에 연락을 취하였다. 드디어 10월1일 태안관아를 에워싸니 각지에서 모여든 동학군의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이 때 투옥중인 동학 우두머리 30여명을 형장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려는 직전에 천우신조로 이들을 구출하고, 아울러 현장에 있던 태안군수 신백희와 별유사 김경제는 살해되었다.

이렇게 1894년 10월 1일 북접에서 기포한 태안지역의 동학혁명군은 태안관아를 점령하여 동학교도의 우두머리 30여명을 구출하고, 관군과 싸워 승리한 동학군은 더욱 단결하여 10월 23일에는 해미승전곡에서 관군·유회군·일본군의 연합군과 싸워 다시 승리하고 26일은 예산의 신례원에서 관군과 유회군의 5,000여명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으나 또 동학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또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한 채 28일에 홍주(홍성)에 진군하여 홍주성을 함락시키려고 격렬한 전투를 전개했으나, 성내에서 양군이 대치하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

는 동안 수십명의 동학군이 살상되고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전략상 후퇴하고 말았다.

그 동안 승승장구하던 역전의 동학정신이 이렇게 힘없이 일순에 무너지니 허탈하고 한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4년 10월 1일 북접에서 기포한 태안지역의 동학혁명군이 한 달 동안 싸우다 마침내 10월 29일 홍주전투에서 그 종막을 내리고 말았으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사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조의 봉건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태안동학혁명군의 역사적 의의가 부각될 것이다.

이같은 동학혁명이 있던 지 80여년만에 지난 제3공화국 정부에서 비로소 동학혁명의 거룩한 순국정신을 재평가 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우고 진혼제를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때를 같이 하여 태안에서도 20년전인 지난 1978년 10월에 태안초등학교 뒤 백화산 기슭에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우고 가신님의 넋을 진혼하는 위령제를 매년 문화의 달 10월에 거행하고 있다.

다음은 태안과 3·1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3·1운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强占)한지 9년 뒤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우리 한민족의 일대 독립시위 운동이었다.

일제의 가혹한 무단정치와 농민의 경제적 착취 그리고 고종황제의 서거가 일본인에 의한 독살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나가자, 우리 민족의 감정이 극도로 자극되어 마침내 구국의 항일 독립시위운동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러면 태안지역에서는 어느 때 누구의 지도 아래 3·1운동이 전개되어 갔을까 이 점이 매우 궁금하다.

그런데 3·1운동 당시는 태안군이 서산군에 병합되어 태안군은 행정상 하나의 면(面)으로 격하되어 있었으므로 서산군의 입장에서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산 지역에서 독립 운동의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난 곳은 해미였다. 해미에 거주하는 한병선이 고종 황제 인산에 서울에 가서, 독립 운동 시위 대열에 끼어 들어 「데모」를 하다 독립선언서를 얻어가지고 해미로 돌아왔다.

집에 온 한병선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마을 전계성을 찾아가 숙의한 끝에 3월 23일 해미초등학교 졸업식을 이용하여 독립시위운동을 펴기로 다짐하고 졸업하는 김연택, 김관용, 류세근등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졸업식을 마친 후 졸업생 전원과 재학생들을 모두 인솔하여 당산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갈 무렵 일본 경찰에 붙들려 갔다. 이같은 독립 운동 사건이 군내 일원에 은밀히 전파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산·태안·운산·정미 등지에서도 잇따라 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때 태안에서는 누구의 지도 아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당시의 서산군내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규모가 제일 컸던 것은 정미시장에서 일어났던 독립시위운동이었는데 주모자는 모두 체포되어 공주형무소에서 1년 6월에서 2년의 옥고를 치루었다.

또한 조선독립단서산지부 조직을 위해 동지 규합에 동분서주하던 해미 출신 서병철은 서산읍에 거주하는 김병년의 도움으로 안면도로 들어가 조선독립단 서산지부 초대지부장으로 전종린을 추대하고 이어 오몽근·이종헌·가재창·박종석 등의 동지를 영입하여 안면도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조직 강화하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활동을 떠나갔다.

지금도 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안면읍에 건립되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은 태안군 원북면 출신인 민족 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옥파 이종일 선생이다.

3·1 운동의 거사 계획 및 독립선언서의 인쇄 책임,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직접 낭독했던 장본인이 옥파 이종일 선생이었다.

3·1 운동 당시 이종일 선생이 고향인 태안에서 독립운동 시위 대열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에서 3·1 운동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도한 민족대표로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고결한 애국지사 독립운동가가 태안 출신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긍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태안의 문화적 배경

태안은 일찍 대륙의 영향을 받아 종교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다.

그리고 12년뒤인 384년(침류왕1년)에 백제에 불교가 전래 되었다. 이 384년이란 백제국이 정식으로 불교를 공인한 연대이다.

신라가 불교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것이 527년(법흥왕14)인데, 이보다 앞서 100여년 전인 눌지왕(417~458)때, 이미 목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선산(善山)의 모례(毛禮)집에 와서 전교한 것과, 또 소지왕(479~500)때 고구려로부터 중 아도가 3인의 부하를 데리고 모례 집에 와서 전도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신라는 국가가 불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100여년 앞서 민간에서 불교가 전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홍주산에 있는 홍주사(興主寺)의 창건이다.

홍주사가 백제 구수왕(仇首王) 9년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때는 서기 222년이다. 그러나 불교 공인 이전에 이미 절을 세웠다고 보다는 민간에 유입되어 이를 신앙하였다는 사실(史實)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가 아니고 백제가 그 최초임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닌 태안이 우리나라 불교문화 수입의 최초의 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 전래 경로를 대략 이기(二期)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기는 3세기 초엽 태안에 최초로 불교가 유입되는 시기, 그리고 제2기는 4세기말엽 한산(漢山)에 전래된 시기이다.

이렇게 최초로 태안에 유입된 불교는 민간에서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국가가 이를 합법적으로 공인하자 이에 발 맞추어 태안의 불교문화는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백화산록에 조성된 마애3불을 비롯하여 몽산리석가여래좌상·사찰·석탑등이 잇따라 조영되므로서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끽 할 수 있었다.

특히 태안마애3불은 우리나라 마애불의 호시일뿐만 아니라 불교 조상미술의 시초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같은 화려한 불적이 남아 있어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내외 인사들이 그치지 않고 찾아 온다.

이와 더불어 태안은 반도라는 지형 탓인지 외적을 막기 위해 일찍 고려조때부터 군내 각 요새지에 석성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윤곽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태안의 석조문화가 화려하였음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유교문화를 들 수 있는데, 14세기말 이성계가 조선조를 창업하면서 3대 정책의 하나인 문화정책으로 숭유억불주의(崇儒抑佛主義)를 표방하였다.

이로 인해 불교문화는 쇠퇴하여 가고 대신 유교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우리 고장 태안에서도 유교문화의 산실인 향교가 태종7년(1407)에 이미 창건되어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8·15광복이후 전국의 향교를 정비하여 봉안위패수를 축소시켰는데, 태안 향교는 유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래의 위패 39위를 그대로 안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태안의 유교문화는 현실을 직시하는 남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지금도 1년에 두번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충효 교실을 열어 앞서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교문화는 날로 거칠어져 가는 인성을 순화시키고 문란한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며 따라서 쓰러진 윤리 도덕을 재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로 유교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태안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황도와 가의도의 당제(堂祭)이다. 황도 당제는 음력 정초에 지내는데, 당집에 안치된 제신(祭神)이 진대(簞)신이였다. 그래서 황도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 습속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임경업 장군이 어로신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지금은 뱀신대신 임경업 장군신을 모시고 있으나 이밖에 12신장과 성주신 3불등을 봉안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가의도 당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형식인데, 우선 당집에 모신 제신(祭神)부터가 특수하다. 제신 대신 제청의 3면 벽에 9개의 나무판을 붙여 놓고, 그 위에 백지(韓紙)를 접어서 걸어 놓았는데, 나무판의 크기는 길이 8cm·폭 3cm·두께 5mm이고, 백지의 크기는 길이 70cm·폭 20·의 것을 5cm 넓이로 4번 접어서 걸쳐 놓았다. 그리고 나무판에는 한자(漢字)로 一에서 九까지 붓으로 글씨를 써놓은 것이 매우 특이하다.

지금도 태안군내의 여러곳에서 당제가 거행되고 있는데, 국민의 습속인 민속문화가 가변성을 지닌 채 이렇게 주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오늘의 태안 문화는 국제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관광문화, 즉 레저문화와 화훼문화와 고도로 발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기후 풍토가 꽃재배에 가장 적절하여 이미 수년전부터 꽃을 재배하여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2002년에는 태안에서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다니 화훼문화가 활짝 만개하여 세계속의 태안으로 부각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천연적인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되는 레저문화, 즉 안면도를 레저타운으로 건설한다니, 이 또한 태안이 세계적인 레저문화의 센터가 될 것이다. 이같이 태안문화는 활기차게 발돋움하고 있다.

태안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구문화(新舊文化)가 합류 공존하는 활기찬 문화이다.

4. 태안의 정신에 대하여

어느 민족이던 국가를 형성하고 생활을 영위하여감에 따라, 그 나라의 주어진 자연의 지리적 여건과 또 정치적 문화적 작용 등에 따라 민족성이 형성되고 그 민족성은 곧 민족정신으로 이어져 하나의 전통을 생성시켜 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하나의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18세기 초엽 이종환이 쓴 「택리지」에 따르면 조선 8도에 걸맞는 각 특성을 지적했는데, 이 지역적 특성은 곧 그 지방의 정신과도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충청도인이 「청풍명월」이요 전라도 사람이 「풍전세류」의 특성을 지닌 것만은 아닐 것이다. 웬지 모르지만 이같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발표되자 모두 은연중에 이에 유혹되어 끌려 갔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드시 100%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내가 하루 생활권에 속해 있고 또 개방된 사회에선 한 지역만이 두려운 문화·정신등이 서서히 그 틀을 깨고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정신이 바로 태안 정신이요, 태안 정신이 곧 한국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태안 정신이 한국 정신의 정점을 향해 전이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오늘을 이어 온 태안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안을 형성해 온 태안 역사의 상류에서 더듬어 내려와야 한다.

태안은 일찍 대륙과 통교(通交)하여 불교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며 고통을 나누어 갖는 이른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의 자비정신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고대에서 형성되어 중세 말기까지 내려 온 태안인의 자비정신은 일대 각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려 말엽부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곡물이 약탈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갑자기 평화로운 마을에 공포감이 조성되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무예를 익히는 등 주민들이 일치단합하여 해안선 방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마침내 1373년 왜구의 침

입으로 태안군이 폐군되자 평소 싸트기 시작했던 상무(尙武)정신이 이때부터 강도 높게 작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태안군민의 자비정신 위에 다시 상무정신이 강도 높게 가미되어 조선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고 또 16세기 말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므로 다시 태안군민에게 폐쇄적인 배타정신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배타정신은 오래 지속되어 광복 이전까지 내려 왔었다.

또한 조선조 시대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충효정신도 함양 했었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는 향약(鄕約)을 권장했는데, 그 내용은 1. 덕업상권, 2. 과실상규, 3. 예속상교, 4. 환란상휴 등으로 이는 본래의 태안정신인 자비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태안정신은 정치적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자비정신·상무정신·배타정신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으나, 8·15광복후 상무정신과 배타정신은 거의 사라지고 이젠 본래의 태안정신인 자비정신에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융화정신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梅竹軒 成三問 研究

조치원문화원 / 박 종 관

목 차

- | | |
|----------------------|----------------------|
| 1. 序言 | 8. 莊陵忠臣壇과 東鶴寺 肅慕殿位次 |
| 2. 貫鄕의 由來와 創氏緣由 | 1) 장릉충신단 |
| 3. 家門의 인맥 | 2) 숙모전의 由來 |
| 4. 성삼문의 傍系 | 9. 매죽헌神主에 대하여 |
| 5. 매죽헌 성삼문의 生涯 | 1) 매죽헌신주는 燕岐文節祠에 奉安 |
| 1) 出生地와 한양의 집터 | 2) 서원철폐후의 노은동 |
| 2) 癸酉靖難 | 10. 達田里와 成燾의 관계에 대하여 |
| 3) 端宗復位運動 | 1) 둘째아들 聯年의 효성 |
| 4) 昌德宮宴會 | 2) 流配는 풀렸으나 |
| 5) 金礪의 告變과 성삼문의 訊問내용 | 3) 달전에 새 뿌리내려 |
| 6) 成三問등의 處刑 | 4) 성희의 遺言 |
| 7. 殉節後의 처리전말 | 11. 結語 |
| 1) 성삼문 가족 | 참고문헌 |
| 2) 功臣田地의 處分 | |
| 8. 成三問의 伸冤 | |
| (성삼문家系를 중심으로) | |

1. 序言

儒敎(성리학)를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왕조에 있어서 충절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윤리이다.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하여 大義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忠義志士들이야말로 예찬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儒學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교육을 받음으로서 忠君愛國의 義理를 정신적 토양으로 삼으면서 성장하였다.

그의 성품은 강직하였고 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는 正義 正道를 실천한 인물이었으며 청렴 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아 생애를 忠節정신으로 일관하였다.¹⁾

1456년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한 많은 舊臣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여겨지는 매죽헌 성삼문 선생에 대하여 살펴 본다는 것은 이 사건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 小論은 계유 병자 정축년의 순절한 충신들을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라 성삼문의 생애를 단종복위 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의 伸冤과 神主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2. 관향의 유래(貫鄉由來)와 창씨연유(創氏緣由)

경상남도 북부에 위치한 지명 창녕(昌寧)은 원래 신라의 비자화군(比自火郡) 또는 비사벌

(比斯伐)인데 신라 진흥왕 16년(555)에 하주(下州)라 하였다가 26년에 폐지하고 경덕왕 때에 화왕군(火王郡)으로 고쳤다.¹⁻¹⁾ 고려 태조때 창녕으로 고치고 현종 9년(1018) 郡이 되었고²⁾ 1914년 영산군의 일부를 병합하였다.

창녕성씨는 고려조에서 향직의 우두머리인 호장(戶長) 중윤(中尹) 태봉의 관제를 모방하여 정한 문·무의관호(文·武의官號)을 역임한 성인보(成仁輔)를 始祖로 받들고 있다.³⁾

문헌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신라 大官 저(貯)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고⁴⁾ 성인보는 고려 明宗때 사람으로 고종때 成氏의 姓을 창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후 창녕성씨는 시조의 손자 공필(公弼) 한필(漢弼) 代에서 크게 두 계통으로 갈라졌다가 6世로 내려와 기(紀) : 관윤희추의 아들 판서를 역임)를 派祖로 하는 판서공파를 포함하여 13派로 분파되어 世系를 이어오면서 조선조에 이르러 상당한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과 도덕의 가문으로서 영남지방의 名門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3. 가문의 인맥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시조의 玄孫 여완(汝完 : 총랑 군미의 둘째아들)이 유명했다. 그는 총랑공(摠郎公) 군미의 아들로 고려 충선왕 원년에 출생하여 1357년(공민왕6) 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 및 춘추관의 검열(檢閱)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가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민부상서(民部尙書)를 거쳐 창녕부원군에 책봉되었다.

1392년(공양왕4) 충신 정몽주가 죽음을 당하자⁵⁾ 고려의 국운이 기울었음을 알고 抱川 王方山에 은거하였으며 스스로 王方居士라 자처하였다.

조선의 개국후 李太祖는 前朝의 원로라하여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 문하성의 종1품 최고임시벼슬) 창성부원군의 벼슬과 품계를 내렸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그리고는 맏아들 석린(石璘)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임금을 잘 섬겨라 나는 王氏 옛 신하이니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끝내 충절을 지켰다.

여완은 성삼문의 고조부이다. 그가 국운을 다한 고려왕조를 그리며 비분한 심정을 토로하여 높은 절개를 나타낸 菊花의 시조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⁶⁾

- 일찍 심어 늦게피니 君子의 德이로다.
- 風霜에 아니 떨어지니 烈士의 節義로다.
- 至今에 도연명(陶淵明) 없으니 알사람이 적노라

그의 아들 4형제중 독곡(獨谷), 석린(石璘), 회곡(檜谷), 석용(石琿), 상곡(桑谷), 석연(石琬)이 고려말과 조선초에 名臣으로 이름이 높아 세칭 「三谷」이라고 하였다.⁷⁾

맏아들 석린은 고려 공민왕때 大提學을 지냈고 李成桂와 옛 친구로서 조선창업에 功을

세웠다. 정종때 평양부윤(府尹)을 거쳐 門下 右政丞이 되고 창녕백(伯)에 封해졌다가 太宗때 佐命三等功臣으로 창녕부원군에 진봉되었다. 영의정에 오르고 특히 詩文과 글씨로 이름을 떨쳤다.⁸⁾

둘째아들 석용(성삼문증조부)은 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어 大司憲 등을 지낸후 대제학을 역임했고 석연도 예조판서를 거쳐 예문관대제학을 지냈다. 3형제가 모두 문장과 명필로서 명성을 날렸으며 조선초기에 명문의 기틀을 마련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석용의 인맥으로는 그의 아들 달생(達生 : 성삼문의 조부)이 조선 태종때 武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에 세종때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거쳐 판중추원사를 지냈다.⁹⁾

그의 아들 승(勝 : 성삼문의 아버지)은 세종때 무과에 급제 중추원부사(副使)를 거쳐 端宗때 義州牧使에 이르렀다. 단종의 復位를 계획하다가 김질(金漬)의 밀고로 복위계획이 발각되어 아들 삼문, 삼빙(三聘), 삼고(三顧), 삼성(三省), 손자 원(元), 맹첨(孟瞻), 맹평(孟平), 맹종(孟終)과 더불어 죽음을 당했다.

성삼문은 서른 여덟의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그의 행적은 참으로 큰 것이었다.¹⁰⁾

4. 성삼문의 방계(傍系)

성삼문은 아버지와 함께 단종의 복위를 계

1) 단종원년 11월 14日條 죽음을 무릅쓰고 성삼문의 상소로 수양일파에 눌러있던 조정의 무거운 공기를 깨트린다.

1-1) 삼국사기 권제34(유지제3) P183

2) 고려사 권제57 지제11 P457

3) 창녕성씨 세보

4) 조선씨족통보

5) 고려사 권제46 세가 공양왕 4년 4월 을묘條

6) 中京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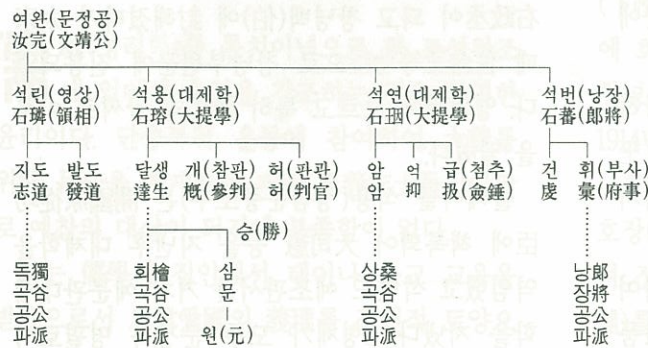
7) 고려사 권제117 열전 제30, 고려사 권제46 세가 공양왕 3년 4년條 P525

8) 조선왕조실록정종, 태종, 조선태조건원능신도비 → 양주, 고려사, 인물지, 조선금석고

9)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물지, 창녕성씨대동보

10)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월條, 장능지 성삼문條

석용의 계보(系譜)



획하다 발각되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고 절손(絶孫)되었다. 성삼문과直系에서 갈라졌거나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인물도 조선末까지 수없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주로 연가지방과 관계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記述)코져 한다.

문신으로 후세에 추앙받는 희(熺: 성삼문의 당숙)와 그의 아들 담수, 담년(聘壽, 聘年: 성삼문과 재종간)도 성씨가문이 자랑하는 인물이다.

성희는 학식과 소행이 출중하여 문종 1년(1450)에 식년문과에 급제 승문원교리가 되었고 府尹에 이르렀다. 병자사화때 성삼문의 친척이라 하여 10여차의 극심한 국문을 받았으나 끝내 함구하여 김해에 안치 되었다가 3년 만에 풀려나와 공주(公州: 현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에서 죽었다.¹¹⁾

담수는 승문원 교리등을 역임했다. 단종 복위 사건에 성삼문등이 처형되자 이에 연좌하여 심한 고문끝에 김해로 유배 되었다가 3년

후 풀려나와 벼슬을 단념하고 선영이 있는 파주 문두리에 은거했으며 「生六臣」으로 유명했다.¹²⁾ 그러나 절손되어 墓가 실전 되었다.¹³⁾

담수의 아우 담년은 성종1년(1470)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 성종8년 경연검토폰 수찬 정언을 거쳐 성종10년 공조정랑이 되었고 교리에 이르렀다. 性理學을 연구했고 문집으로 靜제渫을 남겼다.¹⁴⁾ 韓末에 와서는 高宗때 장례

원경(掌禮院卿)을 지낸 岐運이 뛰어났다. 이와 같이 고려말에서 조선조까지 술한 明賢 節臣 학자 문인을 배출한 창녕성씨는 근대에 와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先祖들의 빛나는 위업을 받들고 名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5. 매죽헌 성삼문의生涯 1418(태종18)~1456(세조2)

1) 출생지와 한양의 집터

매죽헌의 본고향은 그의 조부 양혜공(襄惠公) 達生의 別業之地였던 충남 논산시 연산(현: 논산시 부곡면)의 한양촌이었는데 외가宅은 죽산박씨이며 洪州(현: 홍성 노은동 석동리赤洞)에서 살았다. 外祖는 안협현감(安峽縣監) 박첨(朴瞻)이었다. 그는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에 공중에서 「났느냐」고 문기를 세번 되풀이 되었으므로 이름을 三問이라 지었다.¹⁵⁾

公이 출행한 집터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의 魯恩壇 관리인 황맹수씨가 살고있는 집터라 전한다. 公의 생가 앞마당에는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과거에 급제한 후 이 나무에 북을 달고 축하연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해방 9년전인 1936년에도 이 오동나무를 수호하기 위하여 담장을 축조했다는 사실이 碑文에도 실려있으나 지금은 흔적도 없다.

公의 자는 근보(謹甫), 눌옹(訥翁), 호는 매죽헌(梅竹軒), 시호는 忠文 도충관 勝의 장남이다. 朴仲林의 門人이며 1435년(乙卯)에 생員試에 급제, 1438년(세종20) 생원으로 武年文科에 河緯地와 함께 급제하고 1447년(丁卯)에 重試에 장원 하였다.

집현전 학사에서 修撰을 거쳐 왕명으로 신숙주와 함께 「禮記大文諺讀」을 편찬하였다. 1442년 박팽년, 하위지, 이석정 등과 더불어 삼각산 진관사에서 「賜暇讀書」를 했고 正音廳에서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수주, 강희안, 이개 등과 함께 한글창제를 앞두고 諺文 28자를 제정할때 대궐안에서 관성을 설치하고 성삼문등에게 명령하여 이를 撰定하게 하였다. 그때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짓고 요동에 귀양와서 있으므로 성삼문에게 명하여 入朝하여 사신으로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音韻에 관한 것을 질문하게 하였는데 요동을 왕래한 것이 13차례나 되었다.¹⁶⁾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포 하였다. 항상 經筵의 자리에서 임금을 모시면서 계옥(啓

沃: 충성된 마음으로 임금에게 아뢰)한 것이 매우 많았다. 세종이 만년에 宿疾이 있어서 여러차례 온천에 거동하였는데 항상 성삼문과 박팽년, 신숙주, 최항, 이개 등으로 하여금 便服차림으로 御駕의 앞에 수종하면서 고문에 응하게 하였으므로 한때의 영광으로 여겼다.¹⁷⁾

매죽헌이 한양에서 살던 집터는 장원서(掌苑署)가 있던 곳이다. 경복궁 동쪽에서 계동으로 넘어가는 나지막한 둔덕 일대가 花洞이다. 마을 이름이 꽃이 들어가 있게 된 데는 두가지 說이 있다. 「漢京識略」과 「동국문헌비고」에 보면 이곳이 원래 사람이 적게살고 외진 곳이어서 옛날에 火器都監을 두었기로 火器洞으로 불렸던 것이 後에 화개동으로 달라졌다고 적고있다.

화기도감이란 軍器와 화약을 관장하는 관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마을에 꽃과 나무와 왕궁의 정원을 관장하는 장원서라는 관청이 있었던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설이다. 꽃을 관장하는 장원서의 위치는 병자사화때 단종의 복위를 노리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성삼문의 집터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집 뜰에 매죽헌이 심었다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고도 했다.¹⁷⁻¹⁾

純祖末年에 지은 「한경지략」이라는 문헌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원서의 터는 매죽헌 성삼문이 살던 옛 집터로 매죽헌이 손수 심은 소나무가 있어 李雅亭이 읊기를

11) 세조실록, 국조인물고 저서: 인제집

12) 성종 영조실록, 誌狀輯略

13) 창녕성씨 대동보

14) 증보문헌비고 성종실록

15) 東閣記

16) 世宗卽制 諺文 二十八字 說局禁中 使三問 撰定之時 翰林學士 黃瓚 以罪適遼東 命三問入朝 使臣往遼東 見瓚質問音韻 往返遼東十三度<동각잡기, 근보유고>

17) 장능구지 제2권 성삼문條

17-1) 은진 송시열이 謹撰한 매죽헌 성선생 홍주 유허비문

「님이 심은 節을 생각하고 소나무 그늘에 쉬니 적연하구나」했다.

「한경지략」의 필자가 어릴 적에 가 보았더니 매죽헌이 심었다는 소나무는 썩어서 밀동만 남고 누군가가 수식松임을 알리는 비석을 세워두고 있음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위치는 지금 화동 23번지 옛 경기중고등학교의 뒤쪽에 해당된다.

2) 계유정난(癸酉靖難)

문종은 세종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父王의 뒤를 이어 병중에 즉위하였으나 身弱하여 재위 2년 3개월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어린 세자 단종이 12세로 즉위하였다. 왕은 유약하고 여러 숙부들은 강용하였으며 모두가 야심도 만만치 않았다. 그중에서도 둘째 숙부 수양대군과 셋째 숙부安平大君이 가장 강용하고 비범하여 야망과 박력이 있었다. 두 大君은 정권야욕에 불타는 경쟁자였다.

수양대군 아래에는 주로 武士가 많이 모였고, 안평대군 아래에는 文士가 많이 모여들었다. 수양대군은 우선 단종 원년(1453: 癸酉) 10월에 幼主의 보필을 당부받은 文武兼全한 老宰相 金宗瑞 등을 일격에 숙청 제거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政敵인 안평대군의 謀反사건을 꾸며서 「함길도 鏡城에서 안평대군의 무리가 무기를 수송 조달하였다」고 허위 보고케 한후 그 일파인 황보인, 이양, 민신, 조국관, 조대량

등 대신들을 위시하여 윤처공, 이영민, 원구, 조번 등을 공모자로 몰아서 처형함과 동시에 안평대군과 정분, 허후 등을 강화로 유배 하다가 살해하고 말았다.¹⁸⁾

이리하여 변란의 주동자 수양대군은 정적들을 몰살한 뒤 宰相이 되어 집권하니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한다.

수양대군은 정난공신 이라고 하여 43명을 채록하고 論功行賞하였다.¹⁹⁾

성삼문은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여러 공신들이 번갈아 가며 연회를 베풀었으나 성삼문은 홀로 연회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이때 首陽派는 군신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반수양파라고 지목되는 인물에게는 비인간적인 욕(辱)을 날조하여 뒤집어 씌워서 埋葬하는 악랄한 술수를 구사 하였으니 그 하나의 예로 안평대군은 문종때부터 반심을 품었고 심지어는 養母와 간통 하였다고 억지 허물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였다.²⁰⁾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 당시 朝野 명사들도 감쪽같이 속아서 계유정난을 적극 지지 찬성한 일도 있었고²¹⁾ 한때는 史官들도 이에 현혹되어 반수양파로 지목된 인사들에 관한 기록에 날조된 악평을 서슴없이 첨기(添記)한 정도였다.²²⁾ 수양대군은 단종 3년 윤6월에 세종의 여섯째 아들 錦城大君이 모반 책동하였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讓位 받을 때에 성삼문은 예방승지로서 국새(國璽)를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세조가 한참 俯伏하고 겸손히 사양하다가 성삼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어 이를 노려 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단종을 퇴위시키고 자신이 새로이 王이 되니 이가 곧 조선왕조의 7대왕인 世祖다.

3) 단종복위운동

야심과 박력이 넘쳐 흘렀던 세조는 사실상 人倫에 어긋나는 「찬탈王」이라는 낙인을 지워 버릴 수 없었으나 왕권의 확립과 국방안보의 재정비 강화라는 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로만 돌아부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즉위한 뒤 의정부를 개편하고 영의정에 鄭麟趾, 우의정에 李思哲, 우찬성에 鄭昌孫을 임명 하였으며, 그외 安止를 찬성, 李季甸을 호조판서, 신숙주를 병조판서, 辛碩祖를 대사헌, 하위지를 예조판서, 盧叔同을 형조참판, 魚孝瞻을 이조참판, 성삼문을 좌부승지, 尹子雲을 동부승지로 의정부와 六曹 등 요직에 있던 집현전 官人 출신의 인물이었다. 「특히 死六臣인 하위지, 성삼문이 들어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세조는 원년(1455) 9월에 자신의 찬위(篡位)에 기여한 한명회, 신숙주, 권람 등 44명의 신하를 좌익공신에 책봉하고 80~150結의 功臣田을 주고 위로하였다. 세조는 세종 18년에 부활되었던 議政府署事制度를 폐지하고 즉위년 8월에 六曹直啓制를 실시 하였으니 이는 王權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저의임에 틀림 없었다.

이에 이계전, 하위지 등은 반대하였으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세조는 반수양파로 지목되었던 金文起를 공조판서겸 三軍都鎮撫로 임명하였으며²³⁾ 박팽년은 提學으로 영입 하였다.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등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지지 찬성하였던 인사들도 세조에게 기만당한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단종복위 謀議가 진행 되었다.

세조 원년 10월에 國家承認의 冊命을 원하는 사신이 떠난후 이들은 그 겨울부터 모의하기를 중국使臣 환영 宴會場에서 거사하기로 하되²⁴⁾ 연회장내의 계획은 성삼문과 박팽년이 담당하고 성승, 유응부, 朴鼎의 세 무신을 시켜 윤검으로 장내에 들어가 세조를 殺害하고 刑曹正郎 尹鈴孫이 신숙주를 맡았다. 이 충의적 거사를 성공리에 수행키 위해서는 김문기가 병력투입 업무를 담당케 되었던 것이다.

4) 창덕궁 연회

세조 2년 6월 1일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창덕궁 연회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조가 魯山君과 더불어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서 연회를 하고 두 사신에게 白魚皮 칼집, 刀子 각각 한자루, 부채 각기 5자루, 馬裝 각각 1벌씩을 주고 두목에게는 부채 두자루씩 더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이 명나라 사신은 앞서 3월 28일 義州에 도착한 誥命사신으로 온 尹鳳, 金興이 이끄는 25

18) 단종실록 단종원년 10월 신축 11월 계해조

19) 한영우: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세조 - 성종)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73

20) 단종실록: 단종원년 10월 신축, 무신條: 김종서, 許후, 김문기, 박하, 김윤부 등에 대하여는 동년 동월 계사條 병신條 기해條에서 매도하였다.

21) 단종실록 단종원년 10월 기해條, 경자條, 신축條, 병진條 참조

22) 세종실록 세종 32년 윤 정월 임술條도 계유정난후 편집때 가필한 것이다.

단종실록 단종원년 10월 기미조의 기사도 계유정난후 편집된 것은 물론이다.

23) 세종실록 세조원년 8월 임자條 참조. 이때 세조측근 인사들은 맹렬히 반대하였다.

24) 세종실록 세조2년 6월 을사條, 경자條, 갑진條, 병자條, 정미條 참조

김문기가 성삼문, 박팽년과 더불어 거사를 모의

25)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6월 1일條

上與魯山 宴明使于昌德宮 各贈兩使 白魚皮 소兒 刀子一部 扇子各五把 織毛馬裝名一部 賜頭目各二把

명이었다. 윤봉 일행은 4월 18일 벽제역에 도착하고 4월 20일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당일로 경복궁에서 고명받는 의식을 거행하고 下馬宴을 열었다. 윤봉 일행은 그 동안 한양에 계속 머물고 있었으며 이날 창덕궁에서 연회가 있었다. 고명사신으로 온 윤봉은 조선 사람으로 명나라에 바쳐오던 鼓子(내시)중의 한사람 이다. 황해도 瑞興사람 이었는데 세종 6년(1424)에 중국에 간 것이다. 이들 일행은 한양에서 6개월을 머물다 8월 16일에 되돌아갔다.²⁶⁾ 이 연회장소는 고명사신을 대접하기 위한 곳으로 단종복위를 위한 거사장으로 정한 곳 이어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 곳이다. 「實錄」에는 창덕궁내 어느 전각에서 연회를 베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宮闕志에 의하면 樂善齋 옆의 廣延殿으로 되어 있다.

대개 御前에서는 2品 이상의 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날 임금이 노산군과 같이 大殿에 나아가게 되었고 성승, 유응부, 박쟁 등이 별운검이 되었는데 임금께서 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게 되었다. 「성삼문이 政院에 건의하여 별운검을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아뢰자」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윤영손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신숙주가 便房에 나아가서 머리를 감으니 윤영손이

劍을 잡고서 앞으로 나아 갔는데 성삼문이 눈짓으로 이를 말렸다.²⁷⁾

5) 김질의 고변과 성삼문 신문내용

6월 2일 성균사예 김질이 그 장인 의정부 우찬성 정창손과 더불어 밀계가 있다고 청하므로 세조가 사정전에 나가 인견하였다.

「좌부승지 성삼문이 사람을 시켜서 臣을 보자고 청하므로 臣이 그집에 갔습니다. 성삼문이 환담을 하면서 말하기를

“근자에 혜성이 나타나고 사옹방의 시루가 저절로 올었다 하는데 장차 무슨 일 있을는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이 창덕궁 북쪽 담장의 문을 열고 瑜(금성대군)의 舊家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 등의 헌책에 의한 것이니라.”²⁸⁾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 하였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상왕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쾌한 것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좌의정(韓確)은 북경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우의정(이사철)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므로 윤사로, 신숙주, 권람, 한명회와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다고 하므로 이러한 때에 창의하여 상왕을 세운다면 그 뒤해서 따르지 않겠는가?”²⁹⁾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이야기를 나눌때는 성삼문은 본래 연사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러한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도 의심스러워서 다그쳐서 묻기를

“역시 당신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라고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개, 하위지, 俞應孚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조는 명(命)하여 숙위하는 군사들을 모이게 하고 급히 승지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 우부승지 조석문, 동부승지 윤자운과 성삼문이 입시 하였다. 내금위 조방림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끌어내어 꿇여 앉힌 다음 묻기를³⁰⁾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는가?”하니,

성삼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하옵건데 김질과 面質하고 나서 아뢰겠습니다.”고 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을 하게 하니 말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성삼문이 말하기를

“더 말하지 말라.”고 한 다음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바와 대체로 같으나 그 꼭 짚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금이 삼문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그와 같은 말을 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성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소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염려 하였습니다.”

세조가 명하여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 보기를 肺肝 보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하고 그에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세조가 같이 공모한 사람을 물었는데 삼문은 말하지 않았다.

세조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나

26)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8월條

27) 장능구지 성삼문條

28)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월 2일條

成均司藝金瑱 與其妻父議政府右贊成鄭昌孫 請有密啓 上御思政殿引 見瑱曰 左副承旨成三問 使人請見臣 臣生其家 三問因閑話言曰 近日彗星見 司囊房飯自鳴 將有何事 臣曰果將何以 三問又曰 近日 上王開昌德宮北牆門 往來瑜舊家 比必因韓明澮等獻策也

29) 同上 6월 2일條

臣曰何也 三問曰 未知其詳 然不過置上王陰地 今一二力士 踰牆而入 圖爲不軌耳 俄而又曰 上王及世子 皆幼少之君 萬一爭立 則輔上王者正也 須論 翁 臣曰 萬無比理 假使有之 吾妻父獨能爲 三問曰 左議政 赴京未還 右議政本無 決斷 如尹師路申叔舟權擘韓明澮輩 當先去之 汝妻翁 人皆以爲正直 當此之時 唱義 復位上王則其誰不從

30) 同上 6월 2일條

叔舟吾所相善者 然死當矣 臣初與語 以爲三問本言辭太高 此 亦偶然而發耳 及聞祝言 驚疑因問曰 亦有如君意者乎 三問曰 李瑄河緯地俞應爭知 之 命集衛衛軍士 急召承旨等 都承旨朴元亨 右副承旨曹錫文 同副承旨尹子雲 及三問入侍 命內禁衛趙邦霖 三問退詭問曰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³¹⁾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므로 네가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너의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자 대답하기를

“진실로 上敎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大罪를 범하였사오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 이개, 하위지, 柳誠源과 같이 공모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그들 뿐만이 아닐 것이며, 네가 모조리 말하는게 옳을 것이다.”하자

삼문이 대답하기를
“유옹부와 박쟁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³²⁾ 성삼문이 1차로 체포되어 공모자를 붙였다.

박팽년, 이개, 하위지, 류성원, 박쟁 등 6명을 거명했다. 이러한 고변과 성삼문의 체포로 모의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공모자들 가운데 명백히 드러난 것은 주모자급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실록」의 기록순서를 보면 성삼문, 박팽년, 김문기, 류성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모자 6명이 「실록」기사에는 누구라고 明記되어 있지 않다.

31)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월 2일條

汝與璵論何事 三問仰天久之曰 請與璵面

質而啓 命璵語之 語未訖 三問曰勿盡言 乃曰璵所言大同而其曲節阿曲 上謂三問曰

汝以何意而言之乎 對曰 今彗星見 臣恐讒人出矣 上命縛之曰 汝必有深意 自見汝心

汝見肺肝然 其詳言之 命杖之 三問曰 臣更無他意 上問同謀者 三問諱之 上曰 汝知我最久

子之待汝亦極厚

32) 同上 6월 2일條

今汝雖爲如此事 子既親問 汝不可有所隱 汝罪輕重 亦在於子 對曰 誠如上敎 臣既犯大罪

安敢有隱 臣實與朴彭年李瑄河緯地柳誠源同謀 上曰 非特此也 汝宜盡言 對曰 兪應孚朴靖亦知之

33)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6월 4일條

6) 成三問등의 處刑

6월 4일에는 모반에 관련되어 체포된 관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후임자 보충의 인사가 있었다.

좌부승지였던 성삼문의 자리는 趙錫文이 채웠다.³⁴⁾ 그리고 6월 5일에는 義禁府에서 반역자들의 처단을 위한 「大明律」에 이거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謀反大逆條와 모반조를 살펴보면

「무릇 모반과 대역은 다만 공모한 자라도 首犯과 從犯을 가리지 않고 陵遲處死하고 아비와 아들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絞刑에 처하며 15세 이하의 딸 妻妾, 祖孫, 姊妹와 아들의 처첩은 功臣의 집에 주워서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과에 몰수하며 남자로서 나이가 80세 된자와 篤疾者, 부인으로서 나이 60세 된자와 廢疾者는 모두 연좌죄를 면제하고 伯叔 형제의 아들은 호적의 이동과 관계없이 모두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어 안치하고 연좌된자 일지라도 동거하지 않는자의 재산은 관가에서 몰수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약 딸이 시집갈 것을 허락하고 이미 그 지아비에게 돌아갈 것이 확정된 사람과 자손 가운데 過房으로 남에게 준 자와 아내로 결정을 보았지만 아직 성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두 연좌하지 않는다.」

또 세조가 명령하기를

“지금 모반한 사람들의 親子로서 10세 이상과 그밖에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인 자는 囚禁하고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그밖에 연좌된 남자 15세 이하는 保授하되 이미 자백한 사람의 연좌인 가운데 婦女들은 먼저 區處하라.”³⁴⁾

6월 6일에는 이번의 역모사건을 대외에 공식 발표하면서 8도의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성삼문 등이 몰래 반역을 꾀하였던바 다행히도 천지신명과 종묘사직의 신령에 힘입어 흉포스러운 역모가 들어나 그 죄상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少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 되므로 경등이 이와 같은 뜻을 宣論하여 경동하게 말게하라.」³⁵⁾

세조는 이날 「집현전」을 폐지하고 소장도서는 예문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6월 7일에는 역모자들의 訊問을 다시 속개하였다. 먼저 성삼문, 권자신 등을 신문하여 상황(단종)이 이 역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좌승지 具致寬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성삼문 등에 묻기를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가?”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권자신이 그 어미에게 고하여 상왕에게 알렸고 뒤에 권자신, 윤영손 등이 여러번 약속을 올리고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도 권자신이 먼저 창덕궁에 이르러 상왕께서 긴 칼을 내려 주었다.”

구치관은 다시 권자신에게 물었던 바 권자신의 대답도 삼문과 같았다.³⁵⁻¹⁾

8일에도 신문이 계속 되었다. 세조가 사정전에 나아가 의금부제조 윤사로, 강맹경, 이인손, 신숙주, 성봉조, 박중손, 어효첨 등 승지 대간 등을 불러 입시하게 한 다음 성삼문, 이개, 하위지, 박중립, 김문기, 성승 등 10인을 끌어내어 枕을 때리며 黨興(공모자)를 신문하였다.³⁶⁾

이날 의금부에서는 모반자들의 처형을 「능지처사」로 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百官들을 軍器監 앞길에 모아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차례로 環列하여 두

34) 同上 세조 2년 6월 4일條

義禁府啓 按大明律謀反大逆謀叛條 凡謀反及大逆但共謀者 不分首從 皆陵遲處死

父子年十六以上皆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產並入官 男婦年八十及疾病 婦人年六十及廢疾 並免緣坐之罪 伯叔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緣坐之人 非同居者財產 不在入官之限 若女許嫁 已定歸其夫

子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俱不追坐 命今謀反 人等親子十歲以上及他緣坐

男夫十六歲以上囚今 親子九歲以下及他緣坐男夫十五歲以下保授 已服招者緣坐人內婦女 其先區處

35) 同上 6월 6일條

甲辰 諭八道觀察使節制使處置使曰 近日李瑄成三問朴彭年河緯地柳誠源朴仲林

權自愼金文起城勝兪應孚朴靖宋石同崔得池尹令孫朴耆年朴大年等 潛謀反逆

辛 天地神明 宗社之靈 兇謀敗露 已得其狀 尙虜小民 凶懼 卿宜論此意 毋使驚動

35-1) 同上 6월 7일條

乙巳 命左承旨具致寬 往義禁府問三問等曰 上王亦與汝謀乎 三問曰知之

權自愼告其母 通干上王 後自愼尹命孫等 累進約告期 其日朝 自愼先詣昌德宮 上王賜長刀子

致寬又問自愼 答如成三問

36) 同上 세조 2년 6월 8일條

御思政殷 命召義禁府提調尹師路姜孟卿李仁孫申叔府疾奉祖朴仲孫魚孝瞻及承旨

臺諫入侍 尊致成三問李瑄河緯地朴仲林金文起城勝兪應孚尹令孫權自愼朴靖宋石同

李徽魯山內妻保夫人婢阿加之自愼母家婢佛德別監石乙中等 杖訊黨與

루 보게하고 3일동안 저자(市)에 효수하였다. 사건발생 7일만에 「능지처사」 「교형」 「영속 변방노비」 「보수」 「안치」등의 다양한 刑의 집행을 단행하였다. 이날 개별 효수된 역모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이개, (2) 하위지, (3) 성삼문, (4)성승, (5) 박중립, (6) 김문기, (7) 유옹부, (8) 박쟁, (9) 송석동, (10) 권자신, (11) 윤영손이다.(실록에 전한순서)

성삼문의 墓는 노량진 육신묘역에 있고 또 恩津縣(현 : 논산시)에도 묘가 있다. 시신은 거열되어 팔도에 전하여 보였다는 「실록」의 기사로 보아 은진에 있는 성삼문의 묘는 시신의 일부분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는 餘黨의 추궁을 계속 하였고 성삼문의 아우들에 관한 기사는 세조 2년 6월 21일條에 나타난다.

신문을 당한 사람은 모두 17명이나 되었다. 의금부에서는 이들에게 능지처사 적몰 연좌의 刑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들도 군기감 앞에서 車裂刑을 당하였다. 거열형을 당한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실록순서)

(1) 崔致池, (2) 崔得池, (3) 權著, (4) 崔斯友, (5) 朴引年, (6) 李義英, (7) 金堪, (8) 奉汝諧, (9) 金善之, (10) 李昊, (11) 李裕基, (12) 朴代年, (13) 成三顧, (14) 成三省, (15) 鄭冠, (16) 張貴南, (17) 李末生 등이다.³⁷⁾

1456년세조 2년 6월조 기사 83건 가운데 사실상단종복위와 관련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거사 직전에 실행계획의 차질과 누설

로 인하여 모의자 전원이 일망타진되고 처형됨으로서 끝난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었다. 세조가 왕위 찬탈을 위하여 癸酉(계유정난), 丙子(병자사화), 丁丑(정축獄) 즉 3년간 236명의 충신들을 죽였다고 政院日記는 死事者 명단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³⁸⁾

6. 殉節後의 처리전말

1) 성삼문의 가족

6월 27일 역모에 연좌된 사람중에서 公私賤口 이외의 여자들은 功臣의 집에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역모로 몰려 사형당한 분들의 가족인 부녀들을 이른바 首陽측 공신들에게 下賜하였다.

사육신의 부인 및 딸의 定屬이 열거되었는데 六臣중 성삼문 가족만 발취하였다.

성삼문의 아내 金次山, 딸 孝玉은 운성부원군 朴從愚에게, 성삼문의 어머니 죽산박씨는 이흥상에게, 성승의 소실은 신숙주에게, 성삼문의 아우 府使 成三聘의 부인은 권개에게, 성삼문의 아우 正郎 成三省의 부인은 홍달손에게, 성삼문의 아우 將臣 成三顧의 부인과 딸(1년생)은 김질의 장인 정창손에게 각각 종이 되어 갔다.³⁹⁾

그런데 장릉지 舊誌에는 「성삼문의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맏아들이 成元이고 며느리는 官婢가 되어 평생동안 수절하였다」 하였고 「숙모지」와 「연려실기술」에는 선생의 아들이

맹담(孟澹, 孟平, 孟終, 憲, 澤, 無名으로 나와 있다.³⁹⁻²⁾

2) 功臣田地의 處分

1457년(세조3 丁丑) 순절후 1년뒤에 역모로 사형당한 사육신과 그 부친의 토지를 몰수하여 수양측 공신들에게 하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육신의 土地沒收 配定

성삼문의 당진田地 - 임영대군 구(球)에게
楊州田地 - 임영대군 구(球)에게
咸悅田地 - 우의정 姜孟卿에게
禮山田地 - 판원사, 이계전에게
平山田地 - 우참찬 朴仲孫에게
성 승의 高陽田地 - 桂陽君 璿에게
洪州田地 - 義昌君 珪에게
양주田地 - 이조판서 권람에게
天安田地 - 尹子雲에게
樂安田地 - 한계미에게

각각 하사했다.⁴⁰⁾

위의 토지 몰수는 3월 23일 단행한 것이다. 단종복위운동이 실패로 끝나 상왕(단종)은 세조 3년 6월 2일 魯山君으로 降封되고 영월로 비출하기로 하였다.

22일에는 노산군이 영월로 떠나고 10월 24일에는 노산군이 영월에서 시해당하였다.

육신이 순절한 후 15년 즉 1471년(성종2)에 세조실록이 완성 되었으니 참고로 밝혀둔다.

39-2) 숙모지 13쪽, 14쪽. 연려실기술 1권 723쪽, 724쪽

40)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3월 丙戌條

41) 숙모지 13쪽, 14쪽. 연려실기술 1권 723쪽, 724쪽

42) 숙모지 P91

43) 조선왕조실록 중종 6월 갑자條

7. 殉節忠臣의 伸冤 〈매죽헌 성삼문 家系를 중심으로〉

○ 수양(세조)이 참회하여 매월당 김시습(생육신)을 시켜 위령제를 지내고 단종의 충신으로 순절한 忠臣名을 세조 3년 4월에 금단팔폭(錦緞八幅)에 친서하니 이른바 「丙子冤籍」이다. 이분들을 동학사에 招徠케 하였다.⁴¹⁾

○ 세조 4년에 수양이 또 동학사에 追付記라 하여 단종과 안평대군, 금성대군 등 모든 宗室과 계유정변시에 三相 및 이때 연좌되어 죽은 분과 丁丑獄에 죽은 분들 및 병자원적중 누락된 분의 성명 100여위를 적어 내리고 초혼각을 짓게하고 주위 20리를 賜牌하고 印信一顆를 내리고 또 位土 25結을 더 하사하였다.

○ 성종조에 김종직이 啓하되 「성삼문은 충신운운」하자 성종의 안색이 변함으로 金宗直이 천천히 말하기를 “역시 변고가 있으면 臣은 성삼문을 위하여 當하겠다.”하니 성종의 안색이 가라앉았다.⁴²⁾

○ 성종 11년(1480 庚子) 연좌한 4, 5촌을 석방하였다.

○ 성종 20년(1489 己酉) 宋珪壽의 侄子 宋瑛, 유성원의 姪 柳芬, 성삼문의 孫婿 柳輯, 皇甫仁의 외손 등을 錄用例에 따라 李宗準(김종직 문인)이 署經 하였다.

○ 중종 6년(1511 辛未) 3월 14일 南孝溫의 추강집(秋江集 : 六臣傳) 간행을 命하다.⁴³⁾

37) 세조 2년 6월 21일條

38) 정원일기

39)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9월 7일條

39-1) 장능구지 2권 101쪽 성삼문條

○ 중종 12년(1511 丁丑) 8월 5일 戊申에 왕이 崇尚節義하여 尙書本을 길음이 옳다고 하여 성삼문, 박팽년 자손 錄用문제를 대신들이 논의하라고 하였다. 박팽년, 성삼문 뿐만이 아니라 李塏 그밖에도 尙書할 사람들이 있다고 李清이 아뢰고 이들에게 亂臣의 이름을 씌울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 자리에서 기준(奇遵: 정광필의 문인)이 이들의 절개를 尙書함은 국맥을 연장하는 길이며 그 자손의 祿用을 일찍부터 아뢰려 하였다고 進達 하였다. 金克福은 박팽년의 외손 이귀(李龜)와 성삼문의 외손 박호(朴濠)등을 등용함이 옳다고 주장하고 金鎰은 전일 삼강행실에 성삼문, 박팽년등을 넣으려 주장하였다가 실패하였다고 아뢰었다.

金淨도 성삼문 등 절의를 표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대신 鄭光弼(정창손의 문인)이 반대하고 중종도 「이들은 반역은 아니나 다만 세조가 하신일을 지금 고치기가 미안하다」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다시 崔淑生, 趙光祖등이 성삼문, 박팽년등의 절의를 鄭夢周의 예에 따라 포상할 것을 아뢰었으나 정광필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 중종 12년 11월 侍從臣間에 박팽년등은 叛徒가 아니라 절의라는 논의가 지배적 이어서 성삼문의 외손 朴濠를 執義職(사헌부소속의 중3품) 在職함을 許하였다.

※ 왕조실록에는 死六臣이라는 단어가 없고 중종의 명에 따라 남효온의 추장집(육신전) 간행후 사육신의 이름이 나온것으로 추정된다.)

○ 인종 원년(1545 乙巳) 4월 講時에 侍講官

44) 조선왕조실록 선조 9년 6월 乙酉條

韓澍가 啓하되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에 의하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이개, 류성원, 육신은 당시 큰 죄를 입었으나 그 본심은 충의라고 아뢰니 鄭順明도 이에 동조 하였다.

○ 선조 9년(1576 丙子) 6월 判書 朴啓賢이 經筵殿에서 성삼문 忠을 論하며 가로되 「성삼문은 眞忠臣이오며 육신전은 남효온이 지은 것이오니 읽어보시면 자세한 것을 아실 것이 옵니다」하고 아뢰었다.

이에 王은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을 즉시 갖다 본 후 三政丞을 불러 下敎하되 남효온이란 자는 어어떤 자이길래 감히 文墨을 사사로이 놓하여 나라일을 그릇 썼느냐. 이자는 우리 조정의 죄인이다.

옛날 崔浩가 국사를 그릇써서 참수를 당하였나니 만일 이자가 살았다면 엄히 다스리리라 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 (1) 노산군이 신유년에 나서 계유년까지 살았다 하였다. 그렇다면 열세살을 살았는데 열여섯이라고 썼다.
- (2) 세조께서 임신년에 謝恩使로 明에 가셨는데 持計使로 갔다고 썼다.
- (3) 하위지가 계유년(단종원년)에 朝服(관복)을 모두팔고 善山으로 물러갔는데 세조가 즉위하여 글을 보내어 부르셨다고 썼다.

갑술년(단종 2년)에 집현전에 있으면서 글을 올린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說에는 이때 영의정 홍섬(洪暹: 조광조 문인)이 육신의 忠을 간절히 아뢰니 듣는 자 측은히 여기고 임금도 노함을 풀었다고 한다.⁴⁴⁾ 이리하여 남효온의 師友를 淵源으로 한 士林사이에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이 널리 퍼지고 경연에 자주 오른 것이다.

○ 현종때 宋浚吉이 경연에서 성삼문 등의 충의를 아뢰니 왕도 성삼문 등은 方孝孺⁴⁵⁾의 무리라 하였다.

「왕은 六臣일은 모른 바 아니나 列聖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墓나 갖추고 士林이 尊崇하는 것은 禁하지 않겠으나 그 이상의 은전은 불가하다」고 하였다.⁴⁶⁾

○ 숙종 17년(1691) 9월 초2일 왕이 노량진을 지나다가 六臣墓와 사당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사당은 강변에 있어 묘와는 산 하나 사이에 있었다.

왕은 「오직 충절을 嘉獎코져 하노니 육신은 특히 復官하고 그 祠宇도 賜額致祭하라」 하였다. 그러나 睦昌明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⁴⁷⁾

○ 12월 6일 민암(閔黯)의 의견을 듣고 「무릇 국가의 所先事務는 진실로 崇獎절의 보다 큰 것이 없고 人臣之最難者는 仗節殉義보다 중요함이 없다. 이는 옛날 帝王이 節義士를 중히 여겨 포록(褒錄)에 加하는 까닭이다. 저 육신을 생각컨대 天命人心이 不可逆임을 모르고 乃心所事하여 사이무회(死而無悔) 하였으리오 이는 진실로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바로 충절이 수백년 후에까지 늌늌함이 明朝의 방효유와 경청배(景淸輩)와 더불어 같음이라. 황차(況此) 마침 先陵 참배차연과묘방(參拜次輦過墓傍)하여 予心에 더욱 느끼는 바 있음에라. 희(噫)라. 爲親者諱로 어찌 斯義에 어

두우리오. 내가 포상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바로 그 절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세조의 當世亂臣이 후세 충신이라는 敎의 聖意는 금일에 있으니 此舉는 실로 세조의 遺意를 承함이며 세조의 盛德을 빛나게 하는 까닭이다. 어찌 未安事가 있으리오. 성삼문등 六臣은 該曹로 하여금 특히 復官致祭케 하여 백대의 風聲을 세우라」는 備忘記를 내렸다.⁴⁸⁾

순절후 235년만에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류성원, 유응부가 復官贈職贈諡 되었다.

○ 生員 金振南의 疏略에 「성삼문의 父 성승이 섬긴바 捨生致義는 육신과 다를바 없으므로 같이 육신전에 실려있어 이미 御覽 하시었고 曠世之恩으로 이미 육신을 복관하였는데 홀로 成勝만 끼지 못하였으니 어찌 누락이 아니리오. 더욱이 성승의 묘가 本州(연산) 노은동에 있고 성삼문의 妻도 그 곁에 葬하였는데 구룡(丘壟)이 퇴이(頹夷: 무너져)하여 초목의 길이 되었으니 士林의 탄상(歎傷)은 어떠리오. 당시 成勝之家產은 모두 적몰되어 충청도 연산현에 있고 지금 勳府에 속해 있는 城家田民이 장획(藏獲)됨을 成勝父子를 위하여 초혼설전(招魂設奠)하여 每歲一次씩 거르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만일 그 炳炳忠節이 皎如日月이 아니었다면 無知한 복예(僕隸)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感結 시켰으리오. 六臣之官이 既復즉 성승의 벼슬도 可復이요, 그 田民도 籍沒之科는 더욱 부당하다.

성승을 복관하고 田民을 出給하여 遺墓에 초목을 禁케 하고 書院香火를 供케하면 聖德

46) 조선왕조실록 숙종 6년 12월 丁未條

47) 조선왕조실록 숙종 17년 9월 癸丑條

48) 조선왕조실록 숙종 17년 12월 丙戌條

을 빛나게 하리라.»하니

王이「疏辭는 該曹로 하여금 稟旨舉行케 하라.»고 答하다.

○ 숙종 18년 3월 생원 김진남의 상소로 成勝이 복관되었다.⁴⁹⁾

○ 正祖 8년(甲辰) 윤3월 초10일 六臣 備局堂上의 引見入侍時에 예조판서 엄숙(嚴璣)이 啓하되

「故忠臣 朴彭年之父 이조판서 박중립과 成三問之父 도총관 성승은 六臣과 同日 就死하니 그 危忠大節이 與六臣과 少無異同하다. 박중립은 先朝己未年에 子孫上言으로 始得復官하였는데 성승은 親孫이 없고 朝廷도 역시 詳細치 못하여 아직 복관치 못함은 實로 缺典이므로 敢達 하나이다. 王이 傳曰「復官이 可也라.»

○ 엄숙이 말하여 가로되 摠管은 본시 겸함(兼卿)임으로 당시 本職及 官階는 지금 빙문지도(憑問之道)가 없다. 六臣은 이미 모두 贈職 되었음으로 지금 박중립, 성승도 모두 進一階贈職을 許하여 관함(官卿)을 칭하게 함이 좋다 하였다.

王이 傳曰

「大臣之意 如何」오하다.

○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말하여 가로되

「성승의 尙未復官은 결전이며 그 충절이 朴仲林과 無異하니 宗伯所奏에 의하여 進一階하여 一體贈職함이 좋다 하였다.»⁵⁰⁾

王이 傳曰「允」이라 하다.

정조 8년 박중립, 성승 贈職 同年 11월 成三聘 伸冤되었다. 15년 2월 成勝에게 諡號를 내

렸다.

선생은 노량진에 세워진 민절서원, 영월의 창절사, 의성 학산의 충렬사, 창녕의 물계세덕사, 연산의 충곡서원, 동학사 숙모전 등에 제향한다.

英祖 34년 이조판서에 추증, 시호는 忠文이다.

8. 莊陵忠臣壇과 東鶴寺肅慕殿 位次

1) 장릉 충신단

단종 복위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인물들을 총체적으로 사면 복권하고 正壇, 別壇으로 나누어 현창하는 최초의 국가적 결정을 내린 것은 복위 모의가 드러난지 334년이 지난 1791년(정조15) 2월이었다.

장릉에 충신단을 세우고 정단에 32명을 配食하였다. 그때의 위치는 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 숙모전의 由來

숙모전은 怨死한 幼主 단종의 靈魂과 僭主 세조에게 죽음과 不仕로 항거한 충신열사의 혼을 모시는 곳으로 殿(숙모전)은 東무, 西무로 구성되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바로 東便에 위치하고 있다.

세조 2년(병자 1456) 6월에 단종복위를 모의하다 事覺하여 죽자 노량진에 暴屍되어 아무도 거두지 못하는데 金時習(생육신)이 晩中에 몰래 노량진 上에 六臣을 暗葬하고 동학사에

正壇 32名 配食位次

1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瑬)
2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
3	화의군(和義君)	영(璥)
4	한남군(漢南君)	어(瑢)
5	영풍군(永豐君)	전(璠)
6	관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 양(李 穰)
7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玪壽)
8	예조판서(禮曹判書)	권자신(權自愼)
9	영양위(寧陽尉)	정 종(鄭 宗)
10	돈녕부판관(敦寧府判官)	권 완(權 完)
11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
12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
13	우의정(右議政)	정 분(鄭 芬)
14	이판(吏判)	민 신(閔 伸)
15	병판(兵判)	조극관(趙克寬)
16	이판(吏判)	김문기(金文起)
17	도총관(都摠管)	성 승(成 勝)
18	별운검(別雲劍)	박 쟁(朴 靖)
19	형판(刑判)	박중립(朴仲林)
20	우승지(右承旨)	성삼문(成三問)
21	형조참판(刑曹參判)	박팽년(朴彭年)
22	직제학(直提學)	이 개(李 垕)
23	예조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
24	사예(司藝)	류성원(柳誠源)
25	부총관(副摠管)	유응부(兪應孚)
26	지평(持平)	하 백(河 珪)
27	좌참찬(左參贊)	허 후(許 詡)
28	수찬(修撰)	허 조(許 造)
29	이조참판(吏曹參判)	박계우(朴季愚)
30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
31	도진무(都鎭撫)	정효전(鄭孝全)
32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

돌아와 삼은각 옆에 壇을 만들어 사육신을 招魂祭之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숙모전」의 호시(嚆矢)이다.

○ 세조 3년(정축 1457) 9월 세조가 오대산 속리산으로 부터 동학사에 들렀는데 여기에서 삼은각(三隱閣)과 사육신 초혼단 자리를 보고 興感하여 錦緞八幅에 「丙子冤籍」이라 題하여 병자 사육신과 父子兄弟가 연좌되어 죽은 者 성명 백여인을 적고 또 고려제왕 성명을 적어서 동학사에 나리어 招徠케 하였다.

○ 세조 3년 10월 24일 노산군(단종)의 配所인 강원도 영월군 西江 청령포에서 賜死되어 17세를 일기로 怨殺 당한후 아무도 시체를 거두는 자 없는데 地方 戶長 嚴興道가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체를 其母를 위하여 마련했던 棺槨에 거두어 郡北五里쯤의 珠邱 冬乙 旨谷에 암장한 뒤 御袍를 모시고 망명길에 나서 김시습과 만나 공주 동학사에 이르러 曹尙治, 趙旅, 成燾, 李畜, 鄭之產과 더불어 만나 六臣壇上에 다시 「品」字形一壇을 만들어 어포를 올려놓고 痛哭祭之 하였다. 이때 祝文은 김시습이 撰하였다.

○ 세조 13년(정해 1467)에 김시습과 조상치 등 前述七臣 및 山僧, 月禪, 月峇, 雲波 등이 회 의하여 매년 3월 15일을 定式祭日호 하여 이로 부터 10월 24일과 더불어 春冬에 享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春享, 冬享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숙모전 西무에 忠肅公 成勝은 여덟번째, 忠文公 成三問은 열한번째 각각 配享 되었다.

49) 숙모지 99쪽, 100쪽

50) 숙모지 P103쪽

9. 梅竹軒 神主에 대하여

1) 매죽헌 신주는 燕岐 文節祠에 奉安

현종 13년(1672 임자) 戶曹의 書使 嚴義龍은 우연히 인왕산 기슭 허무러진 벼랑에서 옹기(甕器)를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밤나무로 만든 神主가 세개 있었다. 그 하나는 곧 故 承旨 成先生의 것이고 나머지 두개는 곧 선생의 外孫 參贊(의정부에 소속된 정2품) 朴濠 부처의 신주였다. 성 선생의 신주 앞면에는 「成三 間戊戌生」이라 써어져 있었는데 신주함 가운데에도 또한 그와 같이 써워져 있었다.

엄의룡은 놀랍고도 신기해서 여러 士大夫에게 告했다. 이에 公卿大夫와 일반 선비들이 다 투어 와서 展拜 하였다.

그리고 즉시 신주를 모셔서 선생의 外後孫 嚴繼의 집에 奉安 했다가 洪州(홍성)에 사는 외후손에게 통고하여 신주를 모시고 홍주로 가게 하였다.

순절후 이백여년만에 일이다. 노은동에는 아직도 선생의 舊宅이 있고 그의 부친 충숙공 성승 兩位 묘소가 있고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선생의 配位 延安金氏의 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경기관찰사 金字亨이 잘 호송하게하니 각 고을의 守令들도 정성을 다해 迎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한 祭需를 갖추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⁵¹⁾ 京外의 선비들

은 興感하여 公의 생가 옆에 祠堂을 세우고 숙종 2년(1676)에 錄雲書院 이라고 命했다. 사육신 전원을 봉향하는 동시에 別廟를 세워 公의 부친 충숙공도 奉祀 했다.

史料를 살펴보면 병자사화(1456)때 선생이 殉節하자 부인 연안김씨가 손수 神主를 써서 종(奴婢)에게 부탁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다.

세조 2년 9월 7일 首陽측 功臣들에게 사육신의 부인 및 딸의 定屬이 열거 되었는데 이때 선생의 아내 金次山, 딸 孝玉이 운성 부원군 朴從愚에게 노비로 갔기 때문에 자기 종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을 것이다.

마침내 선생의 부인이 죽자 신주는 외손 朴濠⁵²⁾에게 돌아갔는데 박호 또한 자손이 없었으므로 선생의 신주와 박호 夫妻의 신주를 仁旺山 기슭 아래에다 묻었다고 한다. 신주를 묻은 사람은 박호도 절손이 되어 선생의 외 방손(傍孫)이 묻었는지 박호의 外孫이 묻었는지 기록이 없어 알수없다. 그런데 이백여년이 지나 엄의룡에 의해 신주가 발견된 것은 옛말에 「사람이 죽어도 그 혼령은 신주에 의지하여 자기 本家로 돌아간다」는 神返室堂⁵³⁾ 예(例)가 실행된 것이다.

中宗이 선생의 外孫 박호를 執義職에 재직함을 허락 하였다.⁵⁴⁾ 그러면 박호는 언제 連坐罪에서 풀린 것인가?

莊陵舊誌에는 같은 六臣인 박팽년의 손자

朴婢(珣의 아들)가 이모부 이극균의 권유로 대구에서 상경하여 成宗에게 자수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이를 용서하고 이름을 고치어 朴晝珊 이라고 지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⁵⁵⁾ 성종 11년(1480 庚子)에 연좌한 4, 5촌을 석방하였다는 실록의 기사로 보아 박호 역시 성종 11년 복권된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30년(1704) 甲申에 우승지 姜銑이 啓하되,

「육신자손이 능참하여 오직 박팽년만 혈속이 있어 朝家에서 이미 收用하였는데 성삼문은 친손이 없고 외손만 있어 서울에서 埋安됐던 신주를 얻어온 후 충청도에 流落한 외손이 奉祀하고 있는데 가난으로 祭祀不能이라 하니 道臣(감사)에게 성명을 아리게 하고 수용하면 聖德이 더욱 빛나리」라고 하였다.

숙종이 答하기를, 「六臣子孫收用之教意는 우연한 것이 아니니 성삼문 奉祀의 외손을 찾아 錄用케 하는 것이 可하다」고 말하였다.⁵⁶⁾

여기서 충청도에 流落한 외손은 박호의 방손(방계혈족의 자손)일 것이다. 녹운서원은 숙종 18년(1692 임신)에 賜額되고 그후 노은서원으로 改稱했다가 고종 5년(1868)에 철폐 되었다.

韓末風雲이 험악하여 외국세력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고종께서는 심히 근심 하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어 各部大臣들을 매일 저녁

에 한 사람씩 입궐하여 말동무를 삼으셨다. 그때 궁내부협판신(宮內府協辦臣) 成岐運의 차례가 되어 입궐 하였는데 성기운이 성삼문 奉祀에 관한 일을 고종께 올렸다고 한다.

고종은 朱夫子所稱에 非族之祀는 如不祭로 同하다 선대의 잘못이 있어 내 代에 와서 나라의 비운에 이르니 사육신의 방손으로 봉사손을 정하여 제사를 받들도록 윤음(綸音) 하 시었다.

성기운은 成燾 생육신 聘壽 父子분 杜門轉居地인 연기군 금남면 달전에 居住하는 族後孫이며 성삼문 堂叔의 자손인 成周英(현 성하진 조부)을 奉祀孫으로 定했다.

광무 5년(1901) 12월에 上疏와 掌禮院卿臣南廷哲께서 근주(謹奏) 하였다.

광무 6년 12월에 立案되어 어명으로 광무 7년에 祀字를 건립하고 신주를 홍성에서 移安하여 매년 諱辰일인 6월 7일에 향사한다. 그리고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우를 重修하여 文節祠라 명(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⁷⁾

달전리에 살고 있는 성하경씨 증언에 의하면 성기운⁵⁸⁾과 성주영은 10촌간이다. 그러면 선생의 신주 이동경로를 알기쉽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순절 후 부인연안김씨가 손수 신주를 써서 노비에게 부탁하여 제사를 지냈다.

세조 2년(1459) 9월

51) 녹운서원 事略

52) 왕조실록에는 濠로 장능지 원문에는 壕로 되어 있다.

53) 신반실당 : 사람이 죽어도 그 혼령은 神主에 의지하여 자기 本家로 돌아 간다는 것. 즉, 사람이 죽으면 밤나무 신주를 만들어 告由하고 그 신주를 모셔다가 家廟에 奉安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54)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 11월條

55) 장릉구지 제2권 박팽년條

56) 숙모지 숙종 30년(1704) 甲申條 99쪽

57) 성삼문 선생 약사

58) 成岐運 : 1847(현종 13~?) 조선末 문신. 자는 鳳瑞, 본관은 창녕 고종 17년(1880)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900년(광무4) 참찬을 지내고 이듬해 주일공사 1902년 찬정. 1904년 경상도 관찰사. 1906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농상공부 대신. 이듬해 중추원 부의장 장려원경을 지냈다. 1910(융희4) 한일합방때 일본정부에 의해 男爵 되었다.

(2) 부인 연안김씨가 죽자 선생의 외손 박호가 봉사했다. 박호 역시 孫이 없어 절손되었다.

(3) 누구인가 밤나무로 된 선생의 신주와 외손 박호 부처의 신주를 옹기에 넣어 인왕산 기슭에 묻었다.

(4) 현종 13년(1672) 이조의 서리 엄의룡에 의해 200여년만에 인왕산에서 신주 발견, 외후손 엄찬의 집에 봉안했다가 홍성 노은동으로 移安(엄찬은 박호의 외후손일 것이다.)하고 숙종 2년(1676)에 녹운서원을 창건하고 향사하다.

(5) 고종 5년(1868)에 서원철폐령에 따라 그 후 성기운의 상소로 선생의 신주는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로 移安 선생의 傍孫이 휘신일에 봉제사하고 있다. 선생의 신주는 현재 달전리 문절사에 봉안하고 있다.

(6) 삼대봉사손 성하진씨가 87년 사망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成寅模가 4대 봉사손이 되었다.

2) 서원철폐후의 노은동

녹운서원은 고종 5년(1868)에 철폐되었다. 이 서원을 철폐할 때 함께 배향 하였던 六臣의 祀版을 공의 생가 집터 뒷산에 埋安 하였다. 그 무덤을 「魯恩壇」이라 한다. 이 곳에는 충숙공(三問父)의 사판도 같이 매안 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 단(壇)은 일반 사람들의 무덤과 비슷하고 앞에는 三門구조로 된 출입문이 있으며 앞에는 11척(尺)에 가까운 床石이 있다.

이 상석은 전 국회의원 故 成得煥씨가 1954년 봄에 봉헌한 것인데 이 상석에는 그보다 60

년 前 봉헌한 것처럼 잘못 기록되어 있다. 서원의 옛터 입구에는 「성선생유허비」와 비각이 있고 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지었으며 병계 윤봉구(屏溪 尹鳳九)가 陰記를 追記 하였다. 그리고 비각 안에는 우암이 지은 「成先生神主遷奉記」를 刻字한 현판이 있는데 이는 前記한 바와 같이 인왕산에서 신주를 발견하고 이곳에 봉안 하기까지의 경위를 적었다.

비각 옆에는 또 「魯雲書院遺墟碑」가 있는데 이 碑는 일제말기 충남지사 李範益이 지었다. 이 비문에 의하면 公이 禍를 입은 8周甲年(480년)이 되던(비문에는 7주갑년이라 오기됨) 해방 9년전에 홍성 유적 보존회를 조직하여 朴敦圭가 비각을 중건하고 부지 1,353평을 매입 기증했다.

일반 모금으로 六忠祀版 매안처에 노은단을 설치한후 분향하였으며 과거에 급제한 후 이 나무에 복을 달고 축하연을 베풀었다는 이 오동나무를 수호하기 위하여 담장을 쌓고 유허비도 세웠다 한다. 또 비각 건너에 전기한 「박돈규 出義碑」도 나란히 서있다.

공의 양친 묘와 배위 묘소에는 상석과 조그마한 表石이 각각 서 있으나 길도 없고 초라하기 이를데 없다. 노은단과 세 묘소에는 홍성군 교육위원회 주최로 매년 음력 10월 15일 봉사한다고 하는데 후손은 별로 봉사하는 이가 없다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10. 달전리와 成燾의 관계에 대하여

성삼문 등 死六臣이 상왕인 端宗의 復位를 꾀하다가 死刑당할때 성삼문의 당숙이라 하여 世祖에게 끌려가 10여차의 鞫問을 받고도 끝

내 함구 하였다고 하는 그가 바로 成燾이다.

단종복위 사건에 連累되어 성희는 金海로 流配길을 떠나는 몸이 되었는데 이때가 1456(세조2)이었으니 지금부터 54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김해는 알고보면 그렇게 심한 귀양처는 아니었다. 진도, 제주도 섬 지방도 있고 북쪽의 변방 등 얼마든지 험악한 곳이 많았으나 세조가 성희를 이 정도로 보내게 한 것은 상당히 봐주었다는 결론이 된다. 그 이유는 성희의 인물이 아까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때 성희를 호송하게 된 禁府都事 尹教英은 평소 성희를 존경 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배경이 忠正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비록 중죄인의 유배지 호송이란 임무를 맡았으나 성희에 대한 대접은 깎듯했다고 한다.

1) 둘째아들 答年(聘年)의 孝誠

都城을 벗어나자 어느틈에 성희의 차남인 성담년이 당시 열다섯살의 어린 나이로 울부짖으며 호송 행렬에 도보로 따라 붙었는데 국법으로는 父子 상면조차 엄금 되었으나 答年은 나이 어리고 게다가 금부도사가 모른체 했으므로 김해까지 같이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答年은 김해에 도착후에도 아버지와 잠자리는 같이 못했으나 근처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효성은 지금 생각해봐도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며 오늘날 청소년들은 모름지기 이런 이야기를 故事로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라하여 큰 어려움없이 적소(謫所)인 김해에 도착한 성희는 김해 관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외딴곳에 圍籬安置)되어 기약

없는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해府使 박영빈은 벌써 사건의 흐름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성희에 대한 名聲을 일찌기 들어온 터라 몸소 찾아 대좌하여 인사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표한다음 衣食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후 동태보고나 가끔 받아두는 정도였다고 한다.

귀양살이는 생각했던것 보다는 편하였는데 성희를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였다. 상왕에 대한 충성심과 조카 성삼문 부자의 屍體수습 등 쑥대밭이 되버린 집안문제, 그리고 아버지 개(概: 경기관찰사 역임), 조부 檜谷이 묻힌 先塋은 누가 착실히 돌보고 있는지 등등 이런것들이 유배생활을 하는 성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정의 거물급 성희가 김해에 유배를 왔다는 소식이 인근에 전해지자 官의 눈치를 보던 주변의 儒林에선 선비들이 술, 떡, 음식을 몰래 가져와 그에게 권했고, 학문 강론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성희는 소일을 삼는 경우가 생겼는데 마음의 상처를 다소나마 잊는 길은 이런것 뿐이었을 것이다.

2) 流配는 풀렸으나

성희가 유배생활을 한지도 두해가 지나고 삼년째로 접어들 무렵 조정에도 정치적인 기반이 안정되어 갔다.

세조는 愼氏 등이 꿈에 나타나 죄없는 내자식을 왜 죽였느냐고 꾸짖는가 하면 많은 충신들의 영혼이 아우성치는 등 무서운 꿈에 시달리어 심기를 괴롭혔다. 좌우간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확실치 않으나 세조는 성희의 유배살이를 풀라는 명령을 내렸다.

御命을 받은 宣傳官이 김해에 당도하여 읽 어주는 어명을 듣는 순간 성희는 크게 실망하 게 되는데,

「성희는 자유의 몸이 되어도 都城 삼백리 밖 에 주거를 정하라.」는 내용이다.

성희의 염원은 유배생활이 풀리는 즉시 세 조와 한명회 등이 판치는 세상을 피해 조부 檜谷과 아버지 수현공(概)이 묻혀있는 파주 先塋으로 돌아가 단종을 추모하고 선영을 돌 보며 독서와 명상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는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세조의 어명으로 파주行 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희는 유배생활을 청산하고 자식들과 재회 의 기쁨을 나누고 北行길에 올랐다. 결국 어명 을 따르면 大田 이상의 복상이 불가능 했다.

파주 역시 都城 삼백리 內에 포함 되므로 도 성을 우회 하거나 좌회해서 가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전에 도착한 성희 일행은 더이상 복상을 중지한채 객지 생활에 직면하 게 되었다. 그러나 마냥 이라고만 있을수도 없 는 일이어서 혹시나 또 다른 어명 즉, 도성 백 여리 밖에 정도로 수정만 되어도 파주행이 가 능했으므로 일단은 희망을 갖고 당분간 이곳 에서 기다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자면 몇해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 었으 므로 임시로나마 자리를 잡아야 하겠기에 인 근을 살피던중 동산에 올랐을때 멀리 계룡산 줄기가 바라보이며 太古의 적막이 가득한 達 田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달전은 대전서 조

금 더 북상하여 금남면 대평리에 이른후 한참 을 산속으로 꼬부라져 들어가야 하는 그야말로 깊숙한 산골이며 천혜의 피난처로서 세상꼴이 보기 싫어진 성희에게는 알맞은 곳이었다.

「달전에서 도성까지의 거리는 삼백 삼십리 로서 조정에서도 이를 트집잡을 이유는 하나 도 없었다.」

3) 달전에 새 뿌리 내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은 사건은 당시는 물론 두고두고 세상에서 아주 큰 이야기 꺼리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항한 단종 복위 사건은 더욱 큰 화제가 되 었고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중의 하나인 성희 의 존재는 그당시 달전 인근 몇십리 내에서는 단연코 우뚝한 존재가 되기에 충분했다.

세조의 그 지독한 고문에도 끄덕치 않던 성 삼문, 성희의 투쟁경력은 세인의 존경을 받기 에 충분하였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儒敎의 정치 윤리관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근 士豪들이나 권력있는 이곳 세력들은 물 론 서민층까지도 성희의 달전 정착을 환영하 였고 앞다투어 집짓는 일을 도왔으며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淸州牧使 이치우 마저 사람을 보내 성 희의 달전 정착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터를 잡고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한 곳이 지금 삼대 봉사촌 成河璫씨가 살고 있는 집이 成燾 古家이다.」 이것이 성희⁶⁰⁾가 달전에

뿌리를 내리게 된 始發이 된것이며 이때가 1458(세조 4년)이니 벌써 539년이 되었고 성희 의 古家도 옛 모습을 찾아 볼수가 없다.

4) 成燾의 遺言

파주로 돌아가려는 성희의 염원은 이루어 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成聘壽(성 희의 장남⁶¹⁾)는 아버지와 괴로움을 함께 하면 서 단종을 추모하는 생활을 계속 훗날 生六臣 의 이름을 남기게 되나 어쩌다 전국을 방랑하 다 이곳을 들려주는 金時習과 만나 안부를 묻 고 心中을 이야기 할때가 가장 즐거운 때였다. 그로부터 6년후 1464년(세조10 甲申) 3월 22일 성희는 뼈를 파주 드포리 흐르내(流川)에 아 버지 成概 묘소 근처에 葬事지내 줄것을 최후 의 유언으로 하고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 한채 파란만장의 生涯를 마치게 된다.

아들 칠형제는 합심하여 아버지 유언에 따 라 그의 屍身을 모셨는데 현재까지 이 묘소는 잘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墓碑는 조선조 말 에 태어나 항일 투쟁을 벌였던 학자 덕천 성 기운(成機運 : 成岐運과 구별됨)이 썼다.

그리하여 이곳 달전리에는 仁齋公 成燾의 묘소가 없는 대신 창성학원의 이사장 성주련

씨가 세워놓은 인재 遺蹟碑가 마을 로변에 세 워져 있어 이곳이 「인재 옛터」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달전리와 창녕성씨 成燾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聘壽와 聘年⁶²⁾도 달전에서 우거하 였고 그후 담년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현재 살 고 있는 씨족이 그 후손이고 본동 원당부락에 담년의 묘가 있다.⁶³⁾

연기군의 산맥은 燕尾形으로 분파되어 있어 북쪽은 천안시 남쪽은 대전직할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北은 전의면 관정리 朴洞으로 선 생의 스승인 朴仲林과 아들 彭年의 세거지가 있고, 南은 금남면 달전리로 선생의 神主를 奉 安하고 있는 文節祠가 있으니 유서깊은 忠孝 의 고장이다.

丙子士禍 즉, 六臣사건은 儒臣이 武臣을 차 별하던 시대에 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을 本業으로 하지 않은 유신들이 중심이 되어 不義의 強者인 非正統王을 제거하고 정통의 옛 어린임금을 복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절이어서 儒林 사이에 李朝의 忠의 대표로

59) 成燾 : 조선문신. 자는 용晦(用晦), 호는 인재(仁齋), 본관은 창녕 경기관찰사 概의 아들. 학식과 소행이 출중하여 천거를 받아 漢城參軍이 되었다. 문종 1년(1450) 식년문과에 급제 승문원 교리가 되었고 府尹에 이르렀다. 병자사화(1456)때 성삼문의 친척이라 하여 김해에 안치 되었다가 3년만에 풀려나와 공주(현, 금남면 달전리)에서 죽었다. 창녕의 勿溪書院에 제향. 저서는 人齋集이 있다.

60) 成聘壽 : 조선 생육신. 자는 미수(眉手), 호는 文斗 1450년(세종32) 진사가 되고 승문원 교리등을 역임 파주 문두리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후 문두라 호 하고 그곳에 살았다. 조카 몽정(夢井)이 경기도 안찰사가 되어 담수를 겨우 찾아올 때는 어쩌나 가난한지 방안에 자리도 없었다. 출사를 중용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음에 몽정이 돌아가서 깔 자리를 보내니 가난하고 천한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시호는 (靖肅) 절손되어 묘가 실전되었다고 한다. 함안의 서산서원 창녕의 물계서원에 제향. 61) 성담년 : 조선문신. 자는 仁수, 호는 靖齋, 담수의 동생. 1470년(성종1) 별시문과 갑과로 급제 1477년(성종8) 경연검토관, 수찬 정언을 거쳐 1479(성종10) 공조정랑이 되었고 교리에 이르렀다. 성리학을 연구했고 詩酒를 즐겼다. 저서는 「정제집」을 남겼다. 62) 달전리와 成燾와의 관계에 대하여 창녕성씨 세감록, 정재공 파보. 인재선생 燾 유적비문, 인재선생 묘표 정제집, 조선왕조실록, 국조인물고, 달전리에 거주하는 성하경 선생의 증언을 참고하였다.

일컬어지고 그 정신이 이조 500년 士林의 지도 이념이 되었었다.

그러므로 병자사화에 殉節한 분, 특히 육신은 이조 500년 동안 至高한 崇仰의 대상이었다. 단종복위를 꾀한 모반사건이 발생한 6월 2일에서 6월 28일에 冥今이 반모를 들었으면서도 不告한 죄로 변방 고을에 奴婢로 붙여지기까지의 만 27일 동안에 성삼문 선생의 行蹟과 그리고 순절後의 伸冤, 神主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 검토 하였다.

아쉬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현지 답사에 협조하여 주신 홍성군 흥북면 노은리 신사부락 주민 여러분과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에 거주하는 성하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 을유문화사
고려사 : 여강출판사
신증동국여지승람 : 제3집
장릉지 : 상·하
조선왕조실록 : 여강출판사
경국대전 : 아세아문화사
숙모지 : 사단법인, 숙모회
연려실기술 : 국역
조선씨족통보
동국병감 : 한국자유교육협회
해동명신록 : 한국자유교육협회
한국의 인물 : 여문사
조선신사보감 : (성하경씨 소유)

조선일현표

성씨약사(成氏略史)

한국인의성보 : 한국실록사

창녕성씨세보

한국인명대사전 : 신구문화사

국사대사전 : 정유사

서천 지역의 동학 농민 전쟁 연구



유 승 광
서천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동학 농민 전쟁은 1894년 탐관오리의 학정에 반발한 전봉준의 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주성 함락과 집강소 시기와 일본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항일전쟁시기로 정리되고 있다. 동학 농민 전쟁은 안으로 조선의 부패와 모순을 시정하여 새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반봉건적 성격을,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경계하고 나선 반침략적 성격을 가진 농민운동이었다.

이러한 동학 농민 전쟁에 관한 연구는 제 학자에 의하여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각 지방별 연구가 적은 편이어서 당시 동학 농민전쟁이 일부지역에서 발발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는 동학 농민전쟁의 연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치중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동학농민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남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금강을 경계로 전라도와 인접한 서천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천지역 역시 자료의 빈곤으로 연구의 한계는 있으나 구전, 일기, 금석문, 족보, 유고 등을 추적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역의 도박이와 면접을 통하여 역추적 함으로 사실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천 지역은 충청도의 서남지역으로 전라도와 인접하여 있다는 것과 지역적으로 충청도에 속한 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천지역은 북접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전쟁의 양상은 전라도의 도움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사상적으로는 북접에 속하여 있고 전쟁의 진행은 인접한 전라도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전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군은 주로 2차 봉기로 분류되는 시기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

임으로 추후 자료가 발견되면 그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는 자료부족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두며 본고에서는 당시 동학 농민전쟁의 전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천지역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1) 역사 지리적 배경

서천지역은 충남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있다. 동쪽으로는 부여군, 서쪽으로는 서해바다, 남쪽으로는 금강을 사이로 전라북도 군산시, 북쪽으로는 보령시와 부여군에 접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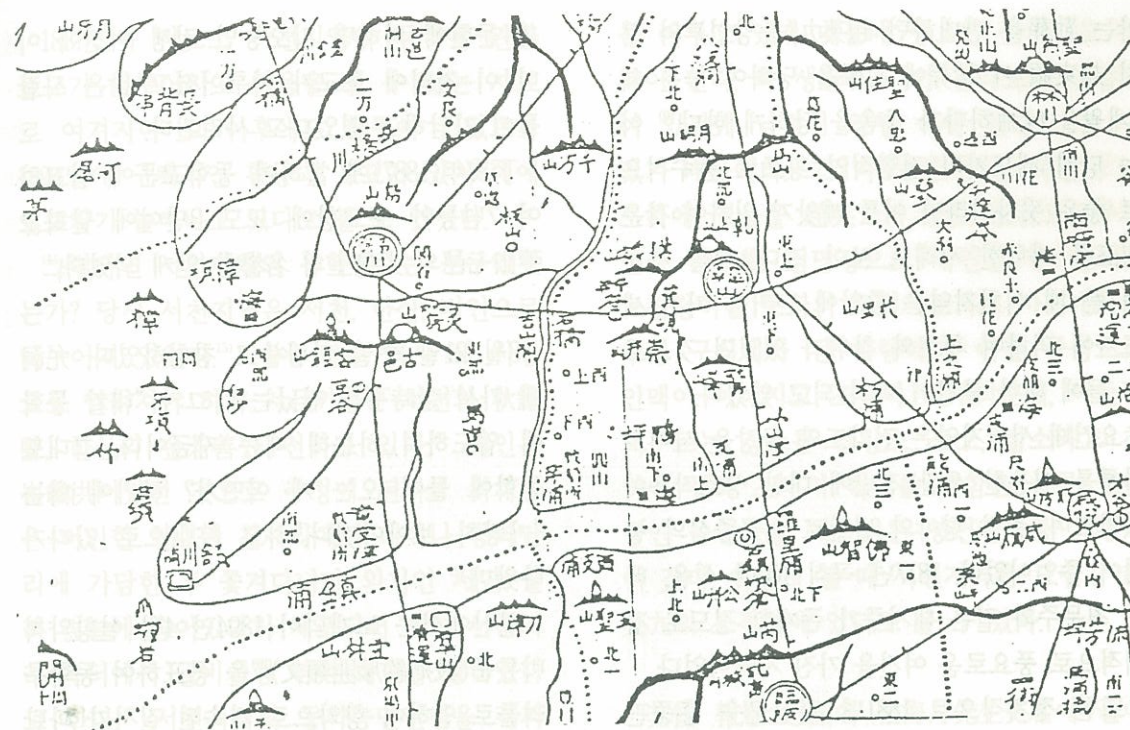
지형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중심부를 동북에서 서남으로 비스듬히 지나는 차령산맥의 말단여맥이 군의 북부까지 미치고 있어 그 일부 지역만 조금 높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준평원화된 평야로 되어 있다. 보령시와 부여군의 경계에 將胎山(367m), 遠進山(271m), 老姑山(229m), 石泉山(209m) 등이 있고 군내에 千房山(324m), 希夷山(329m), 月明山(298m)

등 300m내외의 산이 있다. 원진산에서 발원한 都馬川이 鳳仙池에서 韓山川과 합류하여 吉山川을 이루어 금강에 유입되며 판교면 북동부에서 발원한 판교천이 興林貯水池를 거쳐 남류하다가 남산들에서 서쪽으로 흘러 長久灣으로 유입하여 황해로 흐른다. 이들 하천 유역에는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지질을 화강암질 편마암이 대부분이나 금강과 길산천 주변에 충적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 서천지역은 쌀 생산이 풍부하였으며, 한산모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풍수지리적으로 명당¹⁾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금강의 하구로 서해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류가 풍부하여, 이를 유통시키기 위한 나루가 금강변과 대안에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천지역은 1877년에 최무주가 1876년 흉년으로 곡식 100여석을 풀어 백성을 구제²⁾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81년에는 박규문이 한산군수 홍종관의 불법 곡물징수를 정지³⁾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 이미 이 지역에도 탐관 오리의 가렴주구가 횡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 서천지역에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다음과 같이 사람의 묘가 있다.
 - 남이흥장군의 제 : 판교면 저산리 소재 • 이순신의 숙부 : 화양면 추동리 능밑 소재
 - 이완용의姉 : 종천면 화산리 소재 • 김옥균의姉 : 판교면 판교리 소재
 - 조대채 : 서천읍 구암리 소재
- 2) 舒川郡誌, 1929, 515쪽.
 “崔武柱字武卿號月樵慶州人鷄林君漢洪后天性純厚愛人喜施丙子大饑人呼庚癸丁丑春散百餘石穀以濟窮(차양부)貧人賴生一境稱德不已高宗甲申除繕工監假監役乙未陞敦寧都正”
- 3) 舒川郡誌, 1929.
 “朴圭文字問道號○菴世光后爲人正直剛毅不畏強禦辛巳春郡守洪鍾觀縱欲不法加捧耨米公聚率民人駁其貪官不敢차以是停止一境賴之尙今稱頌”
- 4) 전운사단 충청 전라 경상 각도의 세미를 서울로 실어오는 일을 맡아보던 담당관이다. 1883년(고종20)에 설치 1894년에 폐지됨.



〈그림 1〉 대동여지도 서천군부분도

또한 비인지역에 전운사⁴⁾로 세곡을 징수할 때 불법항목을 만들어 호남농민을 괴롭히고, 이에 불응하면 악형도 서슴치 않았던 조필영⁵⁾의 불망비⁶⁾가 1893년에 세워지고 있어 세미에 대한 불법징수가 이지역에 자행 됨으로 이에 미봉책으로 세미를 줄여 보자는 속셈에서 불망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는 비인

지역의 세미 수탈에 대한 차선택으로 전문사의 횡포를 극복하려는 일부 지주층의 아부로 여겨진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인지역 역시 세미의 수탈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서천지역은 당시 중앙에서 정치권력을 소유한 趙英熙(양주인)⁷⁾의 횡포를 들 수 있는데, 조영희는 山訟問題를 야기하여 급기

- 5) 이이화, 『발굴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57쪽.
 6) 전운사 조필영 불망비
 • 비문내용 : 轉運御史趙公弼永不忘碑
 庚辛兩稅 民方息 肩伊誰之德 咸曰轉運(癸巳 八月 日)
 • 위치 : 비인 중학교앞 비석군
 • 높이 : 93cm, 두께 : 14cm, 폭 : 40cm
 7) 趙英熙는 趙泰泰(1660~1722)의 후손이며, 趙斗淳(1976~1870)의 조카 趙秉燮의 아들로, 금산군수를 지낸 趙秉立의 양자이다. 조영희는 李浩俊(1821~1926)의 딸, 李完用(1858~1926)의 누이 牛峯李氏와 결혼하였는데, 이가 죽자 현지명 서천군 주천면 도마리 공작동에 능장을 한다. 현재 묘는 중천면 화산리에 있다.

야는 勒葬을 반대하던 趙英九(풍양인)⁸⁾의 부친 趙東碩⁹⁾이 禁葬에 打擊을 당하여 누운 제 8개월을 吐血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한다.¹⁰⁾ 이는 당시 세도가의 전형적인 횡포로 풍수적으로 좋은 밋자리라면 이를 빼앗기 위하여 갖은 횡포를 자행한 사례로 보아 진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서천지역은 중앙에 근거를 가진 세도가에 의하여 횡포와 착취가 있었던 것으로 그들에 대한 불만이 야기 되고 있었다.

요컨대 서천지역은 전라도와 금강을 사이로 나루를 이용한 생활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충적 평야의 발달로 미국중심의 농업이 주업이었다. 1877년 곡식 100여 석을, 벼뿐 최무주와 같은 대지주가 존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건을 가진 지역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1881년 한산군수 홍종관의 가렴주구와 전운사 조필영의 횡포, 중앙에 지지기반을 가진 조영희의 늑장 등은 민란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동학교세의 성장

서천지역에 언제 누구에 의하여 포교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천지역의 구전

과 문헌에 의하면 갑오농민 전쟁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 포교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었다고 사려된다.

丁亥年(1887)에 當하여 동학교문에 입교하여 7년동안 포교함에 교도 3만여에 달하고 芎山七邑의 大接主의 名譽를 얻게 되었다.¹¹⁾

3월 21일 종일 바람불고 침침하였다. 允洞에 가서 金時亨을 만났는데 그가 “내가 동학에 입도하려 하는데 때는 지금이다. 그대도 동학에 들어 오는 게 어떤가? 하기에 나는 “마땅히 보아야겠다.”하고 院山으로 갔다가 나왔다.¹²⁾

한산에서는 노재덕이 1894년 4월 설향약척비류문(設鄉約斥匪類文)¹³⁾을 공표하여 동학무리들로 인하여 향약으로 결속된 질서가 파탄에 이르고 있으니 서로 화합하여 못 된 무리들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학자료 1 참고)

6월 25일 날씨가 맑았다. 원두막에서 일찍 집으로 왔다. 그때 윤인상, 윤동접에게 입도하여 며칠 사이에 집을 설치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 때 道人들이 김운화와 박운화 부자등 3명을 잡아갔다.¹⁴⁾

8) 趙英九는 아버지 趙東碩이 勒葬을 막다 마저죽자 이에 父怨之讐 趙英熙에 보복하고자 동학에 入道하여 都執綱이 되어 서천군수 金?洙를 찾아가 담관을 저 趙英熙 처 묘를 移葬하는데 성공한 인물이다.

9) 趙英九의 父 趙東碩은 효자이다. 환여승람에 “奇顯號孝烈堂節義守倫后允夏子父病危欲割股煎粥以進將至殞絕亦齧(깨물설)指注血以延二日有褒”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0) 「趙英九의 實蹟」
趙英九가 죽기전 아들 趙南駿에게 받아쓰라고 하여 남긴 본인의 일대기와 같은 개인의 약사이다.

11) 趙英九의 實蹟(동학관련 자료 4 참고)
조영구는 북접법현으로부터 갑오 7월일에 도집강 임명장을 받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都執綱 明是非可執紀綱員趙英九前接主兼都執綱 甲午七月日 北接法軒

12) 최덕기저, 송창준역, 「東學亂日記」, 1894년, 『향토연구』, 제7집, 충남향토연구회, 190. 이하 「東學亂日記」로 약함

13) 서천군지, 노재덕, 「設鄉約斥匪類文(1894)」, 1929

14) 「東學亂日記」

1887년에 비로소 서천지역에 동학에 관한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지며 그 이후에도 활동이 있었으나 1894년에 구체적인 활동과 포교가 있어 이에 입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서천지역의 동학접주는 누구였겠는가? 당시 서천지역은 서천, 한산, 비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¹⁵⁾ 이에 접주 역시 세 사람으로 알려져야 하나 지금까지는 서천의 秋鏞聲, 한산의 金若善만 전하고 있다.¹⁶⁾ 비인은 崔載洪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최재홍은 비인현 현내면 칠지리에서 태어나 동학난리에 가담한 후 쫓겨다니다 외가인 서면 월리 짚눌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어 비인 서문거리 옥터에서 굴비처럼 엮여 화형을 당하였다고 한다.¹⁸⁾ 서천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을 각지역에서 이끈 접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자료부족으로 알 수가 없다.

서천지역의 각 접주들은 남접과 북접 중 어느 지역에 속해 활동을 전개하였을까? 이는 서천지역이 전라도와 금강을 사이로 도계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생활 공간이 전라도와 인접하여 있기에 남접의 영향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천지역은 북접의 지도하에 있음을 趙英九가 北接 法軒으로부터 받은 都執綱 임명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⁹⁾ 도집강이란 동학의 고위지도자로 사회개혁의 추진 구심체가 된 사람이다. 이를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지고 조직이 확대되는데, 이들이 머무르는 장소를 집강소, 도소, 접소라고 칭하여 동학 조직의 확대를 꾀함은 물론 오랫동안 농민들을 억눌러온 봉건질서를 재편하여 갔다. 이렇게 볼 때 서천지역은 도집강 趙英九의 조직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其後 報恩 ○團에 崔海月先生丈席에 들어가 先生侍奉할 제 月○에 東學의 暴動은 漸漸 ○하여 勒堀人塚하고 勒俸私債하고 ○辱官長하고 ○辱土大夫하며 世上이 紛擾하니 先生이 憂慮하사 公을 命하여 芎產七郡의 禁亂都執綱으로 任을 定커늘 各郡의 巡團하야 禁亂

15) 『舒川郡誌』, 1929.

“大正二年十二月二十九日總督府令第一——號舒川韓山庇仁合爲舒川郡”

16) 國史編纂委員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1986~1991년 刊行.

17) 최재홍의 비문

• 위치 : 증천 도만리

• 비문내용 전면 : 憂國志士慶州崔公載洪 配烈女婦人江陵劉氏 之墓. 좌측면 : 己甲午年 西紀一八九四年十一月. 후면 :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住有는 萬姓膏라 燭淚落時는 民淚落이요 歌聲高處에 怒聲高라. 淳朴한 農民들을 不正腐敗한 貪官汚吏의 虐政에서 保護하려는 西紀一九八四(1894년인데 비문의 오기임)年 東學教主全琫準의 蜂起에 接主로써 呼應하시다 官軍淸軍倭軍의 聯合軍에 물리시어 衆寡不敵으로 聖스런 目的을 達하시지 못하시고 마침내 그 해 忠南 庇仁에서 최후를 마치시다. 子 榮植(字. 一甫) 孫 聖默(字. 昌德) 長女 榮植 外孫 白南鍾 次女 昌金 外孫 金生곤 金滿坤 金원곤 金현곤. 우측면 : 西紀一九七八年 三月 日 外孫 滿坤 獻立

• 원묘지는 서면 월호리 수굴에 있었는데 외손 김만곤이 방직업으로 성공하자 외조부 묘를 수굴에서 증천 도만리 후록에 모심.

• 높이 : 150cm, 두께 : 23cm, 폭 54cm.

18) 제보 : 최창식(76) 서면 월호리 호동 407(T 952-3318) 최재홍의 재종

19) 조영구의 임명장 내용 참고.

中 舒川宗中の 大患亂을 鎮撫하였으며(중략)²⁰⁾

都執綱 趙英九가 최시형의 명에 의하여 각 군을 순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천지역 즉 저산칠군²¹⁾은 북접에 속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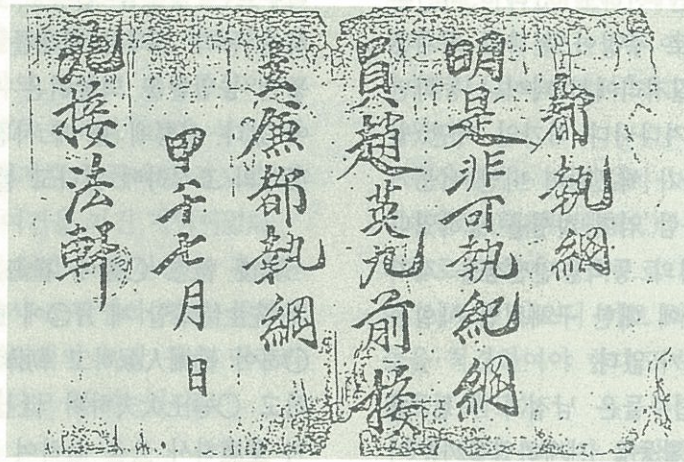
요컨대 서천지역은 1894년 전후로 이미 각 고을에 동학의 전파는 전통질서를 붕괴시켜 양반들의 수습

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특히 1887년 조영구의 동학 입교로 동학교세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영구는 당시 세도가 조영희에게 선산을 빼앗기고 봉건질서에 대한 울분

을 해결하고자 입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학의 평등사상이 농민층에게 뿌리 박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를 이끈 접주로는 서천의 추용성, 한산의 김약

선, 비인의 최재홍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살펴볼지 못하였지만, 도집강 조영구가 북접 법현으로 부터 도집강에 임명되어 각군을 순회하는 것으로 보아 북접에 속하여 동학 교세가 대단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Ⅲ. 서천지역 동학농민 전쟁의 전개



〈그림 2〉 조영구가 받은 도집강 임명장

서천 지역은 제1차 농민전쟁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제2차 농민 전쟁기에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홍주 관할지역²²⁾으로 홍주관군의 움직임과 일

본군의 진로를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학 농민군의 활동상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전라도와 도계를 이룬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호남인들이 금강을 건너와 활동하였음을 참작

하여야 한다.²³⁾ 먼저 홍주목 관군의 움직임과 일본군의 진로를 살펴보면 홍주목관군은 홍주목사 이승우²⁴⁾의 지시에 의하여 홍주목 지역에 대한 동학당 방비의 계획을 상의하고 있다.²⁵⁾ 이후 서천지역에 대한 자세한 움직임은 없지만 서천군지 경선 개요에 의하면 1894년 11월 18일 홍주 남포유병이 서천성에서 유숙한 것으로 보아 서천지역의 동학농민군의 동요가 홍주목에 보고되어 관군의 일부가 서천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舒川郡守 俞冀南²⁶⁾의 요청으로 경병이 1894년 11월 19일 홍산에서 유숙하고 익일 20일 한산읍에 도착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견된 죽산부사 장위영 영관 이두환의 관군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의 움직임은 서천지역에서 볼 수 없으나 1894년 11월 13일 홍주목사 이승우가 홍주 전투직후에 인천에서 증파되어 온 산촌대위에게 동학도 수천명이 한산 남포방면에 집합해 홍주로 내습하려 한다²⁷⁾는 내용을 알리고 있어 산촌 대위 휘하 일본군 1개 소대

가 재등소위 지휘하에 홍주목에 남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군의 움직임 하에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전쟁은 한산읍성, 화양산, 서천읍성 등을 점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산읍성 전투

한산 지역의 동학 농민군의 움직임은 금강을 건너온 호남 동학 농민군과 협조하여 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1894년 7월 17일에 한산과 연기 등지에서 농민군이 작약하였다.²⁸⁾라는 기록을 보아 동학 농민군의 활동이 이미 전개되고 있으나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1894년 11월 5일 한산 상지포에 동학농민군이 주둔하였다. 이때 성을 지키는 군인과 몇사람이 진세를 관찰하고자 총을 쏘고 들어가니 도인들이 분산도주하여 읍민에게 이십여 인이 결박되고 화포 오십여 대와 말 두 필을 얻었다. 이에 동학 농민군은 호남 동학농민군을 끌

24) 홍주목사 이승우는 갑오년 10월 7일부터 을미년 3월 29일까지 호연 초토사를 겸임했다. 동학도를 진압하는데 공이 있어 전라감사로 승진 되었으나 홍주인이 유임을 원해 유임된다. 충청서북부의 동학도 진압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승우의 영세불망비가 비인에 남아 있다.

비문내용 : 招討使李公勝宇永世不忘碑 討匪以威 化俗以義 湖西日月 公憲再造(乙未(1885) 六月 日)

• 위치 : 비인중학교 앞 비석군

• 높이 : 103cm 두께 : 15cm 폭 : 40cm

25) 『洪城郡誌』, 1925, 950쪽.

26) 俞冀南은 光緒 갑오(1894) 시월 政除拜 동년 십일월 일 到任 정유(1897) 사월 일 依願免遞된 서천 군수로 동학 농민 전쟁시 유회군을 조직하여 서천읍성을 지키다 경군을 청하여 동학군을 길산천에서 일전하여 격퇴하나 경군이 도착하기전 이미 읍성을 탈취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주력한 군수이다.

유군수의 불망비가 남아 있다.

郡守 俞侯冀南永世不忘碑

維正與公 既廉且? 四載善績 仁后難記

剛嚴仁慈 文武弛張 浹傾輿情 去亡益思(庚子 十月)

趙英九의 實蹟을 통하여 홍주, 서울 방향으로 진격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林韓山扶餘鴻山敎人 全部를 動員하여 藍浦 東室서 藍保宇敎人과 會勢하여 서울로 올라가자는 것이다. 各接主들은 敎徒를 動員시키는데 趙英九氏도 部下 數萬으로 各郡接率과 合同하여 六萬餘名을 引率하고 氏가 先鋒將이 되어 行軍하니 勢가 板橋에서 良時까지 延하고도 오히려 板橋에서는 出發이 未盡하였더라

28) 『錦 集略』

20) 趙英九의 實蹟

21) 苧産七邑은 苧産八郡의 誤記로 보인다. 저산팔군은 舒川, 韓山, 庇仁, 藍浦, 林川, 鴻山, 定山, 扶餘 등으로 모시의 주산지이다.

22) 갑오년 당시 행정구역은 홍주목 결성현, 온양군, 신창군, 덕산군, 대흥군, 당진군, 면천군, 서산군, 해미군, 태안군, 서천군, 비인현, 남포현 등이다.

23) 『舒川郡誌』, 二公해沿革條, 1929, 16쪽.

“高宗三十一年甲午春東匪猖獗揭竿爲旗斬木爲兵跳梁鄉里同年十一月聚屯于韓山上之韓山儒會守城軍乘夜襲擊使之驚散東匪舍憾招引湖南東匪徒(중략)”

여 들었다.²⁹⁾

11월 19일 한산 읍성이 점령되었다.³⁰⁾

11월 11일 도인 천여 명이 탑리에 진을 치고 명일로 한산성을 함락 시킨다고 했다.³¹⁾

11월 12일 도인들이 성을 함락하고 포를 쏘아 화광이 충천하고 가옥이 소실 되었다.

성을 지키던 군인들과 읍인들이 분주히 사방으로 흩어졌다. 도인들이 성을 함락하고 종동 앞에서 행진하고 인하여 진을 치고 점심식을 한다고 한다. 본 읍이 다 타고 호남도인들이 재산을 탈취한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저물게 신성포로 건너 갔다.³²⁾

이와 같은 사사실을 통하여 볼 때 한산읍성은 1894년 11월 중순에 동학 농민군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다. 당시 최덕기는 한산읍성이 점령된 후의 모습을 문루에 올라가 보니 집이 즐비하게 연소되어 있고 내외문헌이 다 파괴되어 공연히 슬픈 회포를 견딜 수 없었다고 기록³³⁾하고 있어 그 참상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때 박용희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통을 받게 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관과 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⁴⁾

그렇다면 서천 지역에서 한산 읍성이 먼저 점령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1881년 한산 군수 홍종관이 불법으로 곡물을 징수하였던 횡포가 그 이후에도 자행되어 농민의 원성이 높았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리적으로 도계인 전라도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나루가 많았던 요인을 꼽을 수 있겠다. 신성포, 후포, 죽포 등은 대안에 웅포, 나포나루를 통하여 왕래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가까운 장시로는 우시장과 안장(모시장)으로 유명한 유명한 신장(새장)과 대안의 웅포장이 다. 웅포장은 도계를 뛰어 넘어 서로 왕래가 잦은 곳으로 여겨지며, 서해에서 잡히는 어물이 이들 나루를 통하여 유통되었던 곳으로, 객주들이 곳곳에 모여 있어 어시장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산지역은 금강 건너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의식전환이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셋째, 관군의 지연 도착을 들 수 있다. 서천 군수 유기남이 경군을 요청함에도 경군은 한산에서 1일을 유숙하고 늦게 도착함으로 이미 한산 읍성은 점령되고 말았다.³⁵⁾ 또한 유희군이 조직되어 읍성을 보위하였지만 방어력 부족으로 쉽게 성을 함락당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그만큼 동학 농민군의 수적 우세와 조직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겠다.

요컨대 한산읍성은 1894년 11월 12일에 함락되었는데 여기에는 호남 동학 농민군의 협조가 있었으며 한산읍성이 먼저 점령되는 이유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의식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유희군의 군사력 부족, 경군의 지연도착은 한산읍성이 쉽게 점령되었던 이유로 여겨진다. 이렇게 한산읍성이 동학 농민군에게 점령되자 당시 한산 군수 정대부³⁶⁾는 교체되고 말았다.

2) 화양산 전투

한산읍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은 현재 화양면 금당리 후산인 화양산에 진지를 구축하게 된다. 화양산은 한산면과 화양면의 면계에

위치한 산으로 한산읍성과 서남으로 4km가 이격되어 있다. 산의 높이는 100m로 계곡과 계곡으로 감싸여 있어 어느 부분이 주통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산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에 불리한 지형조건을 갖춘 요새이다. 화양산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은 동으로는 한산지역의 움직임은 경계할 수 있고, 서로는 속칭 서천평야인 곡창지대가 조망되며, 남으로는 금강의 움직임을 한 눈에 경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북으로는 서에서 동으로 602번 도로가 있어 한산으로 접근하는 관군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산이다.

화양산에 진지를 구축한 동학 농민군은 화양면 금당리 일대를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보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당시 밥인심이 좋았던 최권식의 증조부이야기, 영달이 아버지가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과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이들은 동학농민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농민군이 물러간 후 관군에 의해서 처형되어 제삿날이 같은 날이라고 한다.³⁷⁾ 이 지역에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에 협조자가 있었던 이유는 본래 화양들을 중심으로 기산 두문이와 화양 금당이를 면계로 하여

29) 「舒川郡誌」經綏(들불선)概要, 1929.

30) 註 28) 앞의책.

31) 「동학난 일기」

32) 「東學亂 日記」

33) 「東學亂 日記」 11.17

34) 한산 구동리 감투봉下 朴龍熙墓碑

• 제보 : 한산면 구동리 朴龍熙의 자 朴景培(T951-3706) 孫朴鐘求(T951-1504)

• 전면 : 菊史公高靈朴公龍熙之墓 孺人交河盧氏 부左

• 碑文 : 府君諱龍熙字景麟號菊史系出高陽以麗朝開國功臣諱東臣爲鼻祖入我朝有諱秀萊評卽公十三世祖也考諱圭鉉妣咸安趙氏潘女繼妣交河盧氏時亨女哲廟九月三日生公以偉偉個當之資有耿介絕俗之表受業于鄭?塘講磨于李雪松深明易學以格致誠正爲法門以崇闢尊攘爲意教子弟以義方孝友遠近來學者多勸獎後進冠于青襟適甲午東亂民罹死網者數千人公乃跋涉京鄉片言折獄一鄉晏然八耄平生憂人憂而樂人樂修吾身而養吾眞朝飲木蘭之露夕食秋菊之落英以樂其志人莫窺其厓浹乙亥十月二十五日卒享年七十五墓曰光山辛坐配交河盧氏載道女生一男一女曰同培女坡平尹泓繼配順興安氏教仁女生一男二女曰 培女交河盧承福豐壤趙?九繼配豐壤趙氏璨九女生四男一女曰仁培不肖宏培女平山申俊提內外雲仍蕃不盡錄嗚呼府君之盛德至仁足以裕後昆而湮沒無聞則不肖不仁之罪甚矣略述概要不敢溢稱而止 檀紀四二八四(1951)年辛卯九月下澣不肖子斗培泣血謹識

35) 「舒川郡誌」經綏概要, 1929

36) 「舒川郡誌」先生案 1929

“丁大稚戀甲午來同年因東擾去”

37) 화양 금당리 406 조성국(T 951-0598)

용당이로 들어온 동학도들이 장상 원촌마을 지나 화양금당 뒷산 화양산에 진을치고 있었다. 이때 접주는 밥인심이 좋은 최씨로 권식이 증조부이다. 권식이 증조부는 동학도들에게 밥을 해 주었으며, 영달이 아버지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과 총을 가지고 있었다.(일명 땡할아버지) 본인의 증조부가 이는 귀먹고 죽어도 소용없다고 하여 살려준 최석병의 증조부(최장영)가 이 마을 동학에 가담한 사람인데 제삿날도 권식이 증조부와 영달이 아버지는 한날이다. 이들은 관군에게 총살을 당하였다. 후에 동학군들은 공덕산에 머물기도 하였는데 주로 유기를 사용하여 밥을 먹었다고 한다. 도주시에 유기를 놓고 금당리 어느집에 유기가 많은 것은 당시 그 근처에 살다 이사는 연유로 유기가 많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장항 토산(성주동 왕갯산)에 머물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두문이는 동학난때 불탄마을이다.

두문리 사람들에 의하여 화양 금당 사람들을 물 아랫것들 이라고 하여 지역적인 차별과 업신여김을 받아 왔다고 한다.³⁸⁾ 이로 미루어 볼 때 두문이의 횡포에 대한 금당리 지역의 차별이 평등을 지향하는 동학농민전쟁의 이상과 어느 정도 부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화양산에 진지를 편성한 동학 농민군과 1894년 11월 19일 홍주와 남포의 유병들이 서천에 와서 하루를 유숙하고 11월 20일 두문이 동록에 진지를 구축하여 종일 포전을 하다가 남포 병사가 탄환에 맞아 기절하지 서천성으로 철수를 한다. 그러자 동학 농민군은 하산하여 두문 5동에 방화를 하여 노씨 일문이 흑독한 화를 당하게 한다.³⁹⁾ 이때 두문 5동은 90% 정도가 전소되어 난을 피하여 마서 옥산에서 돌아 왔을 때는 쑥도 없을 정도로 타버렸다.⁴⁰⁾ 평소 물 아랫것들이라고 차별을 당하던 금당 동학 농민군의 감정과 관군이 진지를 구축한 곳으로 잔적 소탕을 위하여 초토화 시킨 것으로 사려 된다. 이렇게 화양산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 농민군은 서천읍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된다.

오컨데 한산읍성을 점령한 후 금강을 한눈에 주시 할 수 있고 목전이 평야지대인 화양

산에 진지를 편성한 동학 농민군은 평소 지역적 차별을 당하던 금당리 농민을 규합하여 치중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서천 관군과 홍주남포 관군의 공동 진압작전에 대처하여 관군을 후퇴시키고 만다. 이에 동학 농민군은 두문 5개 마을에 방화를 하여 초토화 시키고 서천 읍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승리를 거둔다.

3) 서천읍성 전투

서천은 서천·한산·비인 3고을 중 가장 규모가 큰 고을이다. 서천 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으나 주업이 농업으로 곡창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서천지역에 동학에 관한 구전으로 현재 장항읍 장암리 일대와 원수동 용대이에 동학 진압군으로 참석한 관군이 탈영하여 키를 쓰고 숨어서 살아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다.⁴¹⁾

또한 중천면 장구만으로 동학 농민군이 상륙할 때에 장구리 임모씨가 화승총으로 사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전은 신빙성이 적은 자료이지만 이 지방의 동학 농민군의 진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고 당시 진압군의 군기 문란 상태를 추정

38) 기산 내남리 6번지 노승업(67)

평소 화양사람들은 물아랫것들이라고 해 동학난때 이들이 두문이에 불을 쳐 질러 두문이 5개마을 불타버렸다.

39) 『舒川郡誌』 경신개요, 1929

“十九日陷落韓城因出屯于華陽山舒川柳侯冀南素有牧民禦衆之材組織儒會防守自固賊不敢肆矣前一日洪藍儒兵來到一夜經宿于舒城翌日陣于韓山斗文東竟與賊對陳終日砲戰藍兵一人受丸絕到因爲撤陳歸城賊遂下山放火 斗文五洞盧氏一門獨被酷禍翌二十日洪藍兵曳兵撤歸賊遂果敢入城...”

40) 기산 두남리 176번지 노옥래씨(63세)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두문이에 권씨가 살았는데 만석꾼이어서 동학난에 두문이 오개마을이 90%정도가 방화되어 불타버렸다. 아버지 형제들은 장항 옥산으로 피신했다 왔는데 두문이에 쑥도 없다고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 두문이 5개마을은 계촌(दै되), 두북(영정말, 구수피), 외남(소로지), 내남(쇠대, 고란말, 오피), 내동(여피)이다.

41) 舒川郡, 『유서 깊은 옛 浦口 長岩里』, 1992, 282~284쪽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구만으로 진입한 동학 동민군은 어디서 기포한 농민군인지 알 수 없으나 배를 타고 들어 온 것으로 볼 때 호남 농민군의 일부로 사려 된다. 이들은 서천 읍성을 탈환하는데 가담하기 위해서 서쪽 장구만을 이용하여 판교천으로 진입을 시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가 1894년 11월 20일로 화양산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하는 관군을 추격하여 일거에 서천 읍성을 점령한 시기이다. 서천 읍성에 입성한 농민군은 방화를 하고 포탄을 폭발하여 공해를 전소 시킨다.

이때 서천군수 유기남은 11월 19일 순영에 장계를 올려 경병을 요청하는데 19일 경병은 홍산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20일 하오 4시경에 한산읍에 도착하여 서천방향으로 향하는데 길산포 1리에서 성을 함락한 농민군과 대치를 하게 된다. 경병은 일시에 발포하여 농민군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⁴²⁾

오컨데, 서천읍성 전투에 관한 내용은 정부의 기록이지만 1894년 11월 20일 화양산 전투에서 승리 한 동학 농민군에 의하여 서천 읍성이 점령 당하고 있다. 구전이지만 용대이의 진압군 탈영이나 장구만 동학 농민군의 진입은 이 지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서천군수 유기남의 요청에 의한 경군이 동학 농민군을 격퇴하는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

4) 비인읍성 전투

비인지역은 동학농민군에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사실을 확인 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먼저 주목 되는 인물로 복점 법현으로부터 도집강으로 임명받은 조영구를 들 수 있다. 저산 팔읍을 관할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 휘하에 남포의 백접주, 종천의 임접주, 산천리의 한접주 등이 있었다고 한다.⁴³⁾ 또한 비인에 최재홍의 활약도 있었다고 하나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

비인읍성은 언제 어떻게 점령 당하였는가? 구전에 의하면 한산읍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은 전세를 가다듬어 문산 도마다리를 경유하여 노루재고개를 넘어 검단에서 노무자를 모아 무기 및 탄환을 판교 심동 월봉까지 운반후 둔덕재부터는 농민군만이 비인 읍성을 공격하였다고 한다.⁴⁴⁾ 이를 통하여 볼 때 비인 읍성 역시 동학 농민군에게 점령되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요컨대 비인지역의 동학 농민군 활동은 활발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영구의 활약 최재홍 접주, 한접주, 백접주, 임접주의 인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42) 『舒川郡誌』, 1929.

“翌二十日洪藍兵曳兵撤歸賊遂果敢入城放火間舍匪徒砲手先登官舍爭取火藥砲繩落化延爆發人與官廨?俱爲灰?盡比時柳侯爲報狀巡營請京兵十九日京兵來宿鴻山邑翌二十日下午四時頃着韓山邑即西向而進未及吉山浦一里許而適比東燼匪陷城後欲歸木屯到吉山未及過京兵一時發砲匪徒死傷相繼遂四散逃遁一時騷擾因以安頓...”

43) 중천면 도만리 조해구(조영구의 손) 제보

44) 중천면 장구리 650-2 송영복(66세, T953-9181)의 제보

송영복의 부친이 검단에서 노무자로 심동까지 무기를 운반하고 돌아와 작고 함.

비인습성 역시 점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IV. 서천지역 동학농민 전쟁의 의의

서천지역은 충남의 서남지역으로 호남지방과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차령산맥의 여맥으로 지형적으로 나지막한 산들이 뻗어 내리고 있어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다. 주업은 금강변을 따라 발달한 평야를 이용한 농업이며, 서해를 끼고 있는 관계로 어업을 하는 반농반어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천 지역의 동학 농민 전쟁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천 지역의 동학 농민 전쟁의 배경으로 중앙에 권력을 가진 양반들의 횡포가 성행하자 이에 대한 불만에서 동학 농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먼저 梅泉 黃玪(1855~1910)은 충청도 지방의 동학난의 원인에 대하여,

“호서는 본래 사대부가 모여 사는 곳이요, 훈척과 향재들이 원림이 서로 바라보면서 봉당을 이루고 있다. 또 무단이 풍속을 이루어서 억지로 장사를 사고 남의 산지를 억지로 빼앗아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집이나 서민의 집에서는 원통한 호소가 뼈에 사무치고 있었다. 이런 때에 동학이 일어나자 어깨를 치켜올리고 한번 소리치면 여기에 호응하는 자가 백만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김씨, 송씨, 윤씨의 세 대족과 그 밖의 재상의 이름난 집이나 부

자로 살던 집이 줄지에 피폐함을 당한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⁴⁵⁾

라고 기록함으로써 충청도 동학난 발발 원인을 양반의 횡포로 들고 있다. 서천지역 역시 동학난의 발발 원인이 권력을 가진 양반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집강 조영구는 조영희의 처, 이완용의 누이가 죽자 남편 조영희가 선산에 능장을 당하자 이를 찾고 마져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동학에 입도 하여 양반의 횡포에 대항하고 있다.

乙酉(1885)正月十五日에 趙英熙에게(趙同熙直閣의 兄) 勒葬을 當하고 曾祖以下の 先塋局內 全部를 强奪하여 前後左右 何山 은 勿論하고 强奪후 漢城府 入案을 내어 所有를 삼았다.

埋葬한 趙塚은 趙英熙의 妻요 당시 待從大監 趙重國의 母요 李鎬俊(判書)의 女 李完用의 妹(N0. 1쪽)

三十餘年前에 先葬한 趙英九氏의 祖父墓가 不過 二三十步에 右하거늘 士大夫 女塚之下에 士庶人之男塚이 不可라하여 勢力을 對抗치 못하고 抑鬱히 移葬까지 當하였다.”⁴⁶⁾

황현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서천지역에도 억지로 장사를 사고 남의 산지를 빼앗아서 원통한 호소가 뼈에 사무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趙英九의 선산을 빼앗은 趙英熙는 趙斗淳의 손자로 양자간 趙同熙의 친형으로 금산군수를 지낸 趙秉立의 양자이다. 趙英熙(1855~1930)는 資憲大夫 前行吏趙參判後

陞判書를 지낸 자로 字는 順先이다.⁴⁷⁾ 따라서 당시 권세가 대단하였던 가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전되는 말로 원을 제쳐두고 원행세를 했든지 조씨네집에서 불을 때면 남산에서 김을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⁴⁸⁾ 이로 미루어 당시 양주 조씨의 권세는 이루 형언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동학 평등사상의 영향을 받아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동학 농민전쟁에 참여 하였다.

서천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지역으로는 화양면 금당리 마을을 들 수 있다. 이 마을은 윗마을 두민이의 지역적인 권세의 차별에 저항하여 동학 농민군에 가담하여 화양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두민이 마을을 전소시키고 만다. 이는 조그만 지역내에서도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건으로 봉건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천지역내 동학 농민군에 가담한 사람들이 주로 해변에 거주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구전⁴⁹⁾은 신분적으로 하층민이었고 어업에 종사 했던 사람으로 보아서 이들은 쉽게 동학 사상을 받아들이고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표출이 바로 군현의 중심지인 읍성을 점령하여 수탈의 핵심부를 붕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전쟁은 북점의 영향으로 도인들이 동학의 포섭을 통하여 활동하고 동시에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통유문⁵⁰⁾에 따라 교단의 지시를 적극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천지역의 도집강 조영구의 활동으로 드러나는데 도인들이 집결하여 양반세력을 제거하려고 할 때 조영구 자신이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禁亂中 舒川宗中の 大患亂을 鎮撫하였으며(趙參判집, 趙英岩집大小家, 支石里 趙都事집, 其他에도 鍾川 趙宗에난 特別히 患亂을 鎮撫하여 無事避難하였으며 郡內 三山里 曹監察, 斗旺里 金監察, 韓山 楸洞 閔郡玉, 堂仙里 李群昌, 솔리 秋의관집, ○○의 大患亂과 生命財産을 安保시켰으며 山川里 韓氏宗中の 患亂을 避하였더라(韓氏는 가위 父讐之嫌에 있어 父親이 韓塚을 自堀하고 三年懲配간 嫌提도 不拘하고 生命求濟의 正義로써 나아감에 그후 韓氏의 作嫌은 韓氏들이 解嫌을 하고 말 것이다.⁵¹⁾

조영구는 도집강으로서 서천지역의 양반세력들을 비호하여 줌으로 훗날 재산을 헌납 받는다는 만인의 은인으로 칭송을 받게 된다. 이는 조영구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기 보다는 통유문의 영향으로 남점과는 달리 북점의

47) 楊州趙氏宗親會, 『楊州趙氏族譜』 下卷 282쪽

48) 서천 구암리 방옥춘 (90세)씨 제보

49) 중천면 도만리 조남제씨(78세)의 제보

50) 申榮祐, 「忠清道の 東學敎壇과 農民戰爭」, 『百濟研究』 제23집, 1994, 49쪽

이 통유문의 골자는 ①각 포의 사무는 임원이 장악할 것. ②人塚 ③堀과 金財 强奪者는 官에 알려 罪를 줄 것 ④오래된 빚 紛爭에 간여 말것. ⑤마음대로 무리를 모으지 말 것. ⑥官令에 복종하고 公稅를 納付하며 官衙에 罪를 짓지 말 것 ⑦모든 일은 法所와 布德所의 指示를 따를 것 등

51) 『趙英九實蹟』

45) 황현저, 이민수역, 『東學亂(東匪紀略草)』, 을유문화사, 1985, 122~123쪽

46) 『趙英九實蹟』

행동 지침을 바탕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전쟁은 적극적인 공세적 활동보다는 관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개혁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 전쟁은 북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상적으로 평등사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도계인 호남인 불려 들어 관아를 습격하고 있다. 이는 서천지역이 북접으로 관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호남인과 합세하여 양반의 횡포에 저항하고, 행정적, 군사적 중심지인 읍성을 탈환하고 있다.

요컨대 서천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의 의의는 양반의 횡포에 대한 불만으로 동학교도의 확산과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학 본래의 평등사상에 기저를 두고 기포하여 화양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한산읍성, 서천읍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는 북접의 지도하에 있었지만 남접인 호남 동학농민군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Ⅵ. 맺음말

서천지역은 전라도와 금강을 사이로 나루를 이용한 생활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충적 평야의 발달로 미곡중심의 농업이 주업이었다. 1877년 곡식 100여 석을 베푼 최무주와 같은 대지주가 존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건을 가진 지역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1881년 한산군수 홍종관의 가림주구와 전운사 조필영의 횡포, 중앙에 지지기반을 가진 조영희의 늑장 등이 민란의 씨를 잉태했다고 볼 수 있다.

서천지역은 1894년을 전후로 동학 교세의 확장은 양반들로 하여금 그 대책을 마련하게 하기도 하였다. 1887년 조영구의 동학 입교로 동학교세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영구는 당시 세도가 조영희에게 선산을 빼앗기고 봉건질서에 대한 울분을 해결하고자 입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학의 평등사상이 농민층에게 뿌리 박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를 이끈 접주로는 서천의 추용성, 한산의 김약선, 비인의 최재홍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살펴볼 수 못하였지만, 도집강 조영구가 북접 법현으로부터 도집강에 임명되어 각군을 순회하는 것으로 보아 북접에 속하여 동학 교세가 대단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산읍성은 1894년 11월 12일로 함락되었는데 여기에는 호남 동학 농민군의 협조가 있었다. 한산읍성이 먼저 점령된 이유는 탐관오리의 가림주구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의식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유희군의 군사력 부족, 경군의 지연도착 등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한산읍성이 동학 농민군에게 점령되자 당시 한산 군수 정대무는 교체되고 말았다.

한산읍성을 점령한 후, 금강을 한눈에 주시할 수 있고 목전이 평야지대인 화양산에 진지를 편성한, 동학 농민군은 평소 지역적 차별을 당하던 금당리 농민을 규합하여 치중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서천 관군과 홍주남포 관군의 공동 진압작전에 대처하여 관군을 후퇴시키고 만다. 이에 동학 농민군은 두문 5개 마을에 방화를 하여 초토화 시키고 서천읍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승리를 거둔다.

서천읍성 전투에 관한 내용은 관의 기록으로, 1894년 11월 20일 화양산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 농민군에 의하여 서천 읍성이 점령 당하고 있다. 구전이지만 용댕이의 진압군 탈영이나 장구만 동학 농민군의 진입은 이지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서천군수 유기남의 요청에 의한 경군이 동학 농민군을 격퇴하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비인지역의 동학 농민군 활동은 활발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관한 자료가 확인 되지 않아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못했지만 조영구의 활약 최재홍 접주, 한접주, 백접주, 임접주의 인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컨대 비인읍성 역시 점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천지역의 동학 농민 전쟁의 의의는 양반의 횡포에 대한 불만으로 동학교도의 확산과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학 본래의 평등사상에 기저를 두고 기포하여 화양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한산읍성, 서천읍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는 북접의 지도하에 있었지만 남접인 호남 동학농민군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서천지역 동학농민전쟁 관련 자료

자료 1. 設鄉約斥匪類文

設鄉約斥匪類文(高宗三十一年甲午)

聖遠言世強俗末復何五百年文明文邦近忽東西兩教闢發其間曰學曰道騷擾民間如水趨下各聚徒黨遂成稱兵揭竿之勢寧不汲汲憂歎乎嗟嗟民庶聽我至言凡厥初生天地是以西言之起爲

世界靜爲空虛天宮地府孰見孰傳冥冥悠悠互相假眞磨頂放踵如赴樂地謂察無益豺獮不如虞聚讀綱犬豕與遊是所謂教乎吾不知其可也以東言之叫囂揭榜忠義自居嘯聚爲黨掘人塚墓 有冤骨債加勒捧計在分利究其情節俱是林輩崔徒此所謂道乎吾不知其信也宜噫知之矣我國規模以班爲貴侵漁平民不商不農以資衣食或斷以武或施其暴民不聊生一呼百諾至於此境寧或無怪苟有可免內有 朝廷外有營邑何訴不伸而不此之爲百十爲群辱之打之私自蔑法此其可乎噫又知之滔之染俗誰軟廉泉賂賄公行是非不分惟利是趨無處呼訴非無慨嘆然輕重言之紀綱一類有條必案作君作師上自 朝廷下至與臺隸階級或絕渾淪同歸強食弱肉將至何境臺保幾日盡或舊班彼皆新新亦無幾惟舊是襲其將奈何見方九重憂勤萬姓側立 王赫斯怒任法任人震炮輕弩壓卵在即玉石當焚 廟堂以飭營邑關令雪片相續不勝悚惻設此鄉約修齊治平當以身先從茲以往若有班民侵虐之弊五家面洞一邊毀逐鄉約之前設有渠輩之悖辱此則一并付之元平龍蛇志子亂流回棹日月薄蝕其在轉移有校有塾不過爲閒雜嘸之屋樵牧之場豈不有今日之事耶各其面擇師教導請明吾道 回小華欲絕之學豈非末光之大明乎凡民俊秀棄暗投明有才德歷代賢達輩出胥靡受命于天安有班常之分一一曉喻不竣舊習罔念向化正邪禁非不但載在易經 國有當律這這摘發姓名縛入官府梟首警衆 遵 朝令

甲午四月 日 盧載德

一面洞中若有武斷侵漁之習即報官家且通都所嚴繩犯約次

一東西教所犯之類知此定約後敢爲大談不事向化歸正一之提送官家依朝令 警次

一隣里之患難相救出於敦風厚俗況當此時各

自爲謀視若楚越於獨當處是可曰立鄉約之意乎
難九面中一人若有意外之事各其面洞懸鼓置鉦
置此面彼洞一齊相應如赴湯蹈火若已當之看作
尋常不違此約之正洞任卽爲告官報營以法嚴懲
次 一三綱五倫昭載經傳鄉黨條約盡布朱夫子南
康之訓呂氏藍田之教各就觀之何必復加於愚拙

자료2. 經筵概要

經筵概要

高宗三十一年甲午春東匪猖獗揭竿爲旗斬木
爲兵跳梁鄉里同年十一月聚屯于韓山上之浦韓
山儒會守城軍乘夜襲擊使之警散東匪含憾招引
湖南匪徒十九日陷落韓城因出屯于華陽山舒川
柳候冀南素有牧民禦衆之材組織儒會防守自固
賊不敢肆矣前一日洪藍儒兵來到一夜經宿于舒
城翌日出陳于韓山斗文東麓與賊對陳終日砲戰
藍兵一人受丸絕倒因爲撤陣歸城賊遂下山放火
斗文五洞盧氏一門獨被酷禍翌二十日洪藍兵曳
兵撤歸賊遂果敢入城放火閭舍匪徒砲手先登官
舍爭取火藥砲繩落火火延暴發人與官廨俱爲灰
燼此時柳候豫爲報狀巡營請京兵十九日京兵來
宿鴻山邑翌二十日下午四時頃到着韓山邑卽西
向而進未及吉山浦一里許而適此東匪陷城後欲
歸木屯到吉山浦未及過橋京兵一時發砲匪徒死
傷相繼遂四散逃遁一時騷擾因以安頓柳候備陳
巡營得四千餘金營造閭市百十餘戶費以百五十
餘日邑民始得爰居市場稍成其樣政堂未及經始
乙未夏適有查災錢七千餘金自京師來留本郡乃
詢謀僉同故報於本曹而纔得許題先以三千金蠲
除民布次以四千餘金經營政堂丙申二月起工五
月告成

자료3. 靑晏堂序

靑晏堂序

堂之靑晏名識懲毖也河靑海晏之作多出於宴
安頌禱之辭前人之述備矣余其懲識以毖者抑有
深義於人之頌禱歟奧以甲午十月初三日猥蒙茲
土之 命方其時也匪擾猖獗無以待機具徒步自
日下至錦營見巡使朴公公曰今此營邑事務莫急
於勦匪且全魁犯境衆皆荷擔協力討平然後第議
赴任無乃急先之道乎仍授將令使之往迎巡撫先
鋒李公同赴孝浦之戰始挫匪銳乃以至月初七日
到郡郡介於西湖之陬西匪招引南匪先陷韓邑若
將席捲而向舒鴻庇藍吏民方設守城之策而待之
故遂與設備據守諸援京陳意圖屯韓之匪守到十
餘日京援未至隣兵忽到頭領隨從全味紀律聲言
誘賊不戰逃去單軍解體孤城陷燹公廨民戶盡作
灰燼京軍際到雖爲討滅滿城陶瓦餘存惟刑吏廳
四五間而已故姑居焉而閭市焦土了無莫棲之望
嗚呼是誰之咎文不能服遠武不能敵衆辜負 朝
家委寄之望面見見吏民顛連之濱撫躬惶惻悔將
奚及晝不下食夜不成眠是歲之冬甚寒冽雪夕風
晨忽處被中每率一二官僮逼行城內則席門陶穴
在桐在呼寒嗇矣少壯哀此衰幼慘然若頃刻殊絕
凜乎其郡不郡矣備陳巡營得錢四千鳩財董工半
年之內結構閭市一百餘戶財殫役疲宜其少息邑
樣查稍成則經始政堂所不可緩而際此 國家經
用匱竭安敢望晝財況此亂餘殍殍之局民斂又豈
舉論哉正爾惱神至乙未夏災災錢七千餘兩自京
師執留于本郡乃詢吏鄉報於度支纔得許題先取
三千 以民布以餘四千經營是堂乃於丙申三月
晦日始役以五月二十九日竣事而落之與遠近文
士行講會而讌飲焉有一士捐余而言曰愿聞斯堂
命靑晏之義余良久曰言不盡意義豈易言哉無已
則有說焉茲土之幸有今日尙可謂清且晏矣因是
而仰替 國家治平之道以期于河靑海晏之體則

不其近於善頌之義乎若夫懲毖之識以示後之來
斯者深得其義處宴安危亂之頃而不祇咎悔惻茲
土之幸亦豈今日同日語乎噫微斯人吾誰爲識諸
士咸曰是哉太守所以名堂

丙申榴月下澣晉陽柳冀南序

察眉軒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西州衛門

자료4. 「趙英九의 實蹟」

「趙英九(1867~1950)의 實蹟」은 조영구의
손자 조해연씨가 소장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는 조영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에 아들에게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 따
라서 당시 조영구의 실제 기록이 아니고 세
월이 지난 다음에 회상에 의하여 기록된 것
이다. 또한 판독이 안되는 글자는 ○○처리하
였다.

舒川郡 鍾川面 都萬里(曲律洞)에서 出生하
니 姓은 趙요 名은 英九요 職은 參奉이니(丁
卯二月十七日生)自幼時로 美和之?라 天稟之
性이 順和하야 孝行과 和睦이 超越하니 隣里
에 稱頌이 藉藉터라 淮陽公 諱愼의 十八世孫
이요 風玉軒(諱 守倫)의 十一世孫이니 家運
이 不幸하야 家庭之變이 連起하더라.

乙酉(1855)正月十五日에 趙英熙에게(趙同
熙 直閣의 兄) 勒葬을 當하고 曾祖以下の 先
塋局內 全部를 强奪하야 前後左右 何山麓은
勿論하고 强奪후 漢城府 入案을 내어 所有를
삼았다.

埋葬한 趙塚은 趙英熙의 妻요 당시 侍從大
監 趙重國의 母요 李鎬俊(判書)의 女 李完用
의 姉(No.1쪽)

三十餘年前에 先葬한 趙英九氏의 祖父墓가

不過 二三十步에 右하거늘 士大夫 女塚之下
에 士庶人之男塚이 不可라하여 勢力을 對抗
치 못하고 抑鬱히 移葬까지 當하였다.

埋葬當日에 營校數十名 舒川官隸의 後保를
얻어 數百名의 威力下에 英九氏의 父親 趙東
碩公은 三代積功之地일뿐 아니라 公이 十年
山訟之?의 決定을 不得으로 甲戌年 五月 三
十夜半에 韓塚 二個所를 自掘하고 舒川官에
自白하야 萬頃 龍安邑에서 三年懲配로 堀塚
之罪를 服役한 것을 移葬 勒葬을 當하였으니
人非 木石이어던 그情像이 어떠할까. 公은 生
死存亡을 不關하고 禁葬에 擊打를 當하여 당
일 臥席일제 八個月을 吐血하다가 當年 四十
七歲에 乙酉八月 十日에 別世하다.

父親의 非命怨死를 當한 英九氏는 當年
(1885) 八九歲에 少時로 여덟 달을 夜不解帶
하고 晝不成眠으로 親患에 奉恭타가 할 수
없이 天崩之痛을 當한 後 雪上加霜으로 亡室
之憂를 當하고 片母之情과 亡父之冤을 哀痛
悲感하야 三年不娶하더라.

殺父之警을 生覺하면 胸中에 감춘 칼날은
은근히 빛이 나고 全身의 뛰노는 氣運은 하
늘에 사무쳐 火藥鹽硝로써 趙塚을 破壞할까
計畫까지 하다가 後患을 生覺하야 白骨이 無
罪함으로 火藥代金만 支拂하고 作罷한 일도
있다.

丁亥年(1887)에 當하야 東學教門에 入敎하
야 七年동안 布敎함에 敎徒 三萬餘에 達하고
苧產七邑의 大接主의 名譽를 얻게 되었다. 時
局의 變遷은 점점 甲午革命에 當到하자 四方
으로 蜂起한다. 革命에 東學의 元眞理와 目的
은 아니지만 亂臣賊子와 貪財汚吏며 班常階
級の 虐待를 벗어나 宗廟社稷을 安保하고 輔

國安民을 目標삼아 全琫準의 一大革命이 일어난을 따라 全國의 東學教徒는 全部가 革命軍이 되어 攪亂法亂에 이르러 教門에 恥와 憂慮될 點도 없지만이 하였다.(No.2쪽)

甲午三月에 全羅道 珍山邑亂을 벗어나 四月에 至하여 藍浦大接主 李光淳이 各接主에 私通을 하되 林韓山扶餘鴻山教人 全部를 動員하여 藍浦 東室서 藍保宇教人和 會勢하여 서울로 올라가자는 것이다. 各接主들은 教徒를 動員시키는데 趙英九氏도 部下 數萬으로 各郡接率과 合同하여 六萬餘名을 引率하고 氏가 先鋒將이 되어 行軍하니 勢가 板橋에서 良時까지 延하고도 오히려 板橋에서는 出發이 未盡하였더라 東室에 到着하니 李光淳이 出迎하여 案内하여 藍保宇教人和 合하니 六七萬 大軍이니 山峽洞에 留陳하니 伉伍를 定하기 推하더라 李光淳은 洪州牧使李勝鎬(字)와 連絡하여 儒會軍이 되어 表面으로는 東學軍인 체하고 兵丁 五百名을 東室附近에 埋伏하여 두고 그 二日밤에 兵禍를 일으켜 東學軍을 殺害 할 陰謀를 한것이다. 그날밤에 東室 富豪 이개벽집에 他接教徒가 侵亂하되 運糧시킨다고 家産을 劫取하고 이개벽 노인을 結縛하여 무수한 困辱을 당하여 ○○死境時에 公이 聞知하고 部下 六七十名을 引率하고 李氏집에 들어가 蕩亂教徒를 逐出하고 李氏의 生命을 救濟하고 財産을 安保 하였으니 李氏는 死境을 벗어나니 趙先棒 恩惠를 白骨難忘이라 內室의 自己處所로 案内하더니 酒를 이어 待接한 後 말하고자하되 참아 못하는 氣色이 보이더니 感激한 恩惠를 입어 生命이 살았으니 報復할 길이 없어 비밀을 말 씀하오니 보대쳐 쉽게 알지 말고 깊이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方令 李光淳이 東學軍인 체 하나 兵丁 五百名을 附近에 伏兵하여두고 明日 夜半에 東學軍을 殺害 할 豫定이니 만일 不祥事가 일어나면 數萬名의 生命이 불쌍하고(No.3쪽) 이 洞里도 猝대발이 되 것으니 이 일도 判定하여 部隊漏泄말고 防兵之策을 講究함을 말하거늘 그 길로 나와 部下를 단속하여 明일 오시에 ○○하야 團束하고 그 밤을 조심하여 날을 샌후 先鋒旗를 빼여 말에 달고 방포삼○에 公이 部下 數萬이 退軍하여 나아가니 그외의 各 接中은 일도 모르고 겁달려나와 良峙各散各解하시고 따르다. 善人은 善人을 돕고 惡한 사람은 惡人이 뒤를 따르는 법이다. 육칠만의 생명이 하사함이 선인 ○업에 살아 난 것이다.

其後 報恩 ○團에 崔海月先生丈席에 들어가 先生侍奉할제 月月○에 東學의 暴動은 漸漸 ○하여 勒堀人塚하고 勒俸私債하고 ○辱官長하고 ○辱士大夫하며 世上이 紛擾하니 先生이 憂慮하사 公을 命하여 苧産七郡의 禁亂都執綱으로 任을 定커늘 各郡의 巡團하여 禁亂中 舒川宗中の 大患亂을 鎮撫하였으며(趙參判집, 趙英岩집大小家, 支石里 趙都事집, 其他에도 鍾川 趙宗에난 特別히 患亂을 鎮撫하여 無事避亂하였으며 郡內 三山里 曹監察, 斗匪里 金監察, 韓山 楸洞 聞郡玉, 堂里 李群昌, 솔리 秋의관집, ○○의 大患亂과 生命財産을 安保시켰으며 山川里 韓氏宗中の 患亂을 避하였더라(韓氏는 가위 父讐之嫌에 있○어 父親이 韓塚을 自堀하고 三年懲配간 嫌提도 不拘하고 生命求濟의 正義로써 나아감에 그후 韓氏의 作嫌은 韓氏들이 解嫌을 하고 말 것이다.(No.4쪽)

甲午六月 十七 趙英熙를 걸어 舒川郡守 金麟洙(서천군지(1929))에 壬辰十一月到任甲午九月日遞)에게 出訟을 願情하였다. 時局이 時局인以上 郡守는 감히 訟民을 定斷키 不能한 時라. 官長이 訟民을 對하야 큰門을 열어 맞이하였으며 自己坐席으로 請坐하였으나 公은 絶對 拒絶하고 訟民은 아직 換臟한 趙英九가 안이오니 그리 待接함은 甚히 抑鬱하오이다. 그렇다면 郡守의 決定을 얻을 것이 없고 訟民의 能力으로 趙英熙를 對抗할 수 있으나 換臟치 않기에 官長에게 願情하오니 善處하여 주기를 請한데 郡守吏屬을 불러 探問한즉 吏屬들도 悲悵에 말하되 趙英九가 抑鬱히 당한 줄은 草董木手도 다 아는 바를 前來의 山訟한 文跡이 全部 小人의 筆跡임을 말하니 生覺하다가 決定을 明日로 延弛하니 氏曰 訟民의 願情한다는 決定만 바라던 것이 아니요 順序를 밝고 푼 것이니 決定 못할 것은 訟民이 ○○아는바니 白文退訟을 하여 주시면 觀察府의 訟 갈 것이요 萬一 觀察府에서도 決定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면 漢城府에 올라 擊鼓를 할 豫定이요 하니 郡守 大驚하여 曰 그러면 官長의 官面은 어찌되나 내 말을 信用치 못하면 다짐을 쓸터이니 明일 午前에 不堀이면 官堀하여 준다고 다짐을 썼다. 郡守는 卯時官 隸를 놓아 洪州배울 趙英熙에게 晝夜倍到를 시키었다.(明日 午前에 卽刻堀塚이 되어 或有 延弛이면 午後는 ○○ 官塚을 ○○의리라) ○○趙英九면 ○白之禍 ○을 ○披라 如此恩人之德을 忘却하면 天必毀之矣리니 深刻深刻을 數望 趙英熙○○○○○더도 時局을 認識하고 그 일을 生卽時 堀葬하였다. 氏억울한 父讐를 十年만에 열에서 十

分之一이나마 報讐을 하였다.(No.5쪽)

그리 저리 氏의 運命은 時局이 變함에 따라 二十年間의 歲月을 飄浪生活로 隱居하다가 辛亥에 당하여 不幸이 后配의 亡室之憂를 당하니 當年 四十八歲라 不老 不少의 子女의 一生이 憂慮되어 四十年間의 長歲月을 琴瑟之樂을 忘却한 貞操는 어찌 형언 하리오.

己未 ○○하야 孫秉熙씨 뒤를 따라 獨立萬歲運動에 勞心타가 西大門 監獄에서 二十日 滯囚하여 無限한 苦痛을 당하여 放免되사 歸郷後 舒川警察署의 禁束을 하여 六十五日間에 笞刑과 其他 重刑을 당하여 十餘時間의 精神을 놓고 氣絶까지 하였다가 放免되었다.

양렬공 정인경 선생

서산문화원

양렬공(襄烈公) 정인경(鄭仁卿) 선생은 고려 고종 25년(1238)에 간월도에서 태어났다.

양렬공의 아버지 원외랑(員外郎) 정신보(鄭臣保)는 송나라(宋) 형부상서(刑部尙書)로서 송나라가 망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 라는 절의(節義)를 지키려고 망명하여 작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간월도에 정착하였고 양렬공의 어머니는 덕풍현(지금의 德山) 오영로(吳永老)의 따님이다.

당시(當時)의 우리나라는 고종(高宗) 18년(1231)부터 몽고(蒙古)로부터 침공(侵攻)을 받아 막지를 못하고 급기야 고종 19년(1232)에는 개성에서 강화도(江華島)로 천도(遷都)하였고 사실상 한반도는 무방비 상태로 곳곳에서 관병과 민병이 몽고군과 싸웠으나 역부족으로 부득이 고종 46년(1259) 몽고에 굴복(屈服)하고 11년후인 원종 11년(1270)에 개성으로 환도(還都)하였으며 우리고장은 고려 명종(明宗) 12년(1181)에 아전이 고을 영위를 유폐시킨 사건이 발생하여 폐현하고 부성(富城)이라는 군호를 제적, 지역을 분할하여 운주(漣州: 지금

의 홍성)와 청주(淸州)에 屬하여 충렬왕 10년(1284)에 서산군(瑞山郡)으로 복군될 때까지 103년동안 이름 없는 고을로 지내왔다.

양렬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을 좋아하며 섬에서 태어났어도 바다를 돌아보지 않고 책을 가까이하여 9세때에 도비산(島飛山)에 올라서 지은 시 두편이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 있다.

‘수登高정계하니(愁登高頂髻)하니 요망운비 북(遙望雲飛北) 홀억선인묘(忽憶先人墓)하니 루수춘우락(淚隨春雨落)’ 이라고 하였고, 또 ‘호진장우주(胡塵長宇宙)하니 만리낙고신(萬里落孤臣)이라 하일건곤정(何日乾坤整)하야 중회조씨춘(重回趙氏春)하리.’

양렬공은 11才時 대사동(大寺洞)마을(現 石南洞)로 이사하고 문주사(文住寺)를 왕래하면서 수학(學)을 수련하여 18才에 등과(登科)하였다. 또한 稷山, 신창(新昌)에서 야습(夜襲)으로 몽고군을 대파하는 큰공을 세우고 입사(入仕)후의 행적(行蹟)은 묘지명(墓誌銘)에 기록되어 있다. (묘지석은 종 72cm, 횡 37.9cm, 글자 12

cm의 크기로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음)

묘지명을 살펴보면 벽상, 삼한삼중대광추성정책, 안사공신광정대부, 도침의 중찬상호군, 판, 전리사, 치사, 정공으로 되어 있다.

양렬공의 휘는 인경인데 청주 부성현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표황으로 벼슬이 형부 원외랑에 이르렀는데 양렬공의 귀함으로 인해 문하 시랑 평장사를 추증하였다. 어머니 오씨는 승동정 오영로의 따님인데 귀함으로 인해 누차관작이 봉해져 고장군 대부인에 이르렀다.

양렬공의 고향은 본디 형령이었는데 양렬공이 세운 공로로 인해 지관으로 승격되어 서주로 개칭되었다.

양렬공이 태어나면서부터 웅대한 역량(能力)이 있어 산서에 이름을 떨치었다. 병진년(1256)에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로 밀고 들어 왔는데 공이 그때 19세로 응모(應募) 종군하여 적의 머리를 많이 벤 공로로 효온하의 대정이 되었고 또 양국의 언어를 익히었다. 지원 6년 기사(1269)에 지금의 주상께서 친히 원나라에 조회하여 가자 양렬공이 섬교위로 수행하였는데 이해 7월 돌아오는 길에 파시부에 이르러 임연(林衍)이 임금을 폐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주위수행하는 신하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더러는 압록강을 건너자고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렬공은

양렬공 정인경선생은 고려 고종 25년(1238)에 간월도에서 태어났다.

양렬공의 아버지 원외랑 정신보는 송나라형부상서로서 송나라가 망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 라는 절의를 지키려고 망명하여 작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간월도에 정착하였다.

대의에 따라 지금의 주상을 모시고 원나라로 들어가 먼저 황제에게 나아가 원왕을 복위 시키고 공주를 시집보낼 것과 병력을 파견하여 역적을 토벌할 것등의 몇 가지 일을 주청하여 모두에게 재가를 받았다. 이는 만세에 공로이다.

양렬공은 경오년(1720)에 산원검견 어룡행수에 임명되었다. 신미년(1271)에 장검 세자부 우지유에 임명되었고 이해 지금의 주상께서 사대부들의 맏아들을 데리고 볼모로 들어가면서 공을 데리고 가고자 원왕에게 간청하니 원왕이 평소 공이 다른 마음없이 직책을 수행한 것을 사랑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항상 임금 곁을 드나들며 총애를 더욱 두텁게 받았다. 임신년(1272)에 특별히 어명을 내려 장군 겸 입내시에 임명 되었다. 갑술년(1274)에 원왕이 승하하자 지금 주상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보위를 이어 받았는데 의심을 받아 4년동안 한직에 있었다. 그러나 주상은 마음에 담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장차 크게 등용하려고 하였다.

양렬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웅대한 역량이 있어 산서에 이름을 떨치었다. 병진년(1256)에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로 밀고 들어 왔는데 공이 그때 19세로 응모 종군하여 적의 머리를 많이 벤 공로로 효온하의 대정이 되었고 또 양국의 언어를 익히었다.

무인년(1278)에 다시 장군 겸 전법총람에 임명되었고 임오년(1282)에 대장군으로 승진되고 누차 전직 되었다가 병술년(1286)에 이르러 상장군에 임명되고 정해년에 용야군 상장군 겸 군부판서에 임명되었다. 이에 특별 어명을 내려 양렬공을 일등공신으로 삼고 단권(丹卷: 錄卷)을 하사 하였는데 옛날의 공을 포상한 것이다.

기축년(1289)에 삼사사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밀직사 부사 겸 건법판서로 옮기었는데 형부의 좌집법은 반드시 사람을 간택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이 직책을 겸한 것이었다. 누차 전직되어 지사사에 이르고 얼마 안되어 우상시로 옮기었는데 그때 마침 총애를 받은 내시가 찾아와 혼인할 것을 요청하자 양렬공이 의리를 들어 거절하였으므로 그 내시가 감정을 품고 주상에게 참소한 바람에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유식한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였다.

기해년(1299) 3월에 주상께서 옛날의 공로를 생각하여 판 삼사사에 임명하자 다시 나와 일을 보았다. 7월에 지도청의사사에 임명되고, 9월에 참리에

임명되고, 12월에 찬성사에 임명되는 등 몇 개월이 안되어 네 번이나 총애의 포상을 가하였으니 주상의 총애가 이와 같았다.

이해에 하정사로 원나라에 들어가 도당의 의논을 자세히 듣고 주상에게 아뢰었다가 당시 모사하는 신하의 비위를 거슬렀으므로 그 즉시 도침의 사람으로 치사하고 다시는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

양렬공의 타고난 성품이 공정하여 국가에 이로운 일이면 숨김 없이 곧바로 개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시기하고 이로 인해 재차 벼슬에서 물러나는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공손히 분수를 지켜 구차하게 진출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화난 표정이 없이 앵계에다 별장을 짓고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히 여러 해를 살았다. 충렬왕 31년 을사년(1305) 9월에 주상께서 그전의 공로를 소급해 기록하여 벽상 삼한 삼중대왕 주성정책안사 공신 도침의 중찬으로 품계를 올려 영광되게 하였다. 이해 9월에 병이나 12월 17일에 집에서 서거하니 향년 69세였다. 주상께서 양렬공이 서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는데 병오년(1306) 12월 19일에 박현에다 장사지내고 양렬의 시호를 내렸다. 공이 예빈 윤진수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다섯,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 유는 지금 첨의사인이며 신영은 지금 판도정랑이

고 신구는 조계사 승려가 되었고 신화는 지금 도렴서령이고 신수는 지금 회룡직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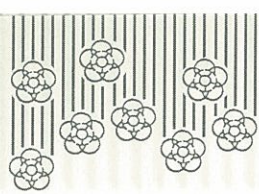
첫째 딸은 삼사우윤 채종서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사복관 좌랑 김광식에게 시집 갔는데 모두 정승 가문의 귀한 큰 아들이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영영한 정공이여, 사람 가운데 용이로다. 성품은 너그럽고 담은 큰데다가 모습은 온화하고 공손하도다. 말은 바직책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오로지 정도로 하였도다. 명에 따라 사방을 오가며 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절개를 지켰도다. 공로는 병상에 높이 올랐고, 지위는 시중에 다달았도다. 부귀에 천수를 누리며, 슬프거나 영광스럽건 간에 한결 같았도다. 가문이 빛나고 빛나 난 초와 옥이 무성하도다. 남은 향기 다하지 않아 온갖 복을 똑같이 받도다. 마땅히 그들에 새기어 무궁히 전해야겠도다.'

양렬공은 국가에 유공하였으며 폐현된 이 고장을 복군시켜 주었기에 돌아가신 뒤에 관대를 본군 유사에게 유치해 두고 매년 추모제를 1550년대까지 지냈다는 기록은 있으나 정확한 절차나 날짜,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안타깝고 공의 행적에 비하여 유품, 유적이 적은 것은 1920년대까지 620여년간이 이 고장에 자손이 한집도 살지 않았다는 것이 큰 원인인가 한다.

양렬공의 타고난 성품이 공정하여 국가에 이로운 일이면 숨김 없이 곧바로 개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시기하고 이로 인해 재차 벼슬에서 물러나는 곤욕을 치렀다.

남은 유적으로는 대사동마을(남원마을) 앞에 살면서 심은 은행나무가 지금도 싱싱하며 그 부친 원외랑께서 수시로 뒤산에 올라 서해의 뜬 구름을 바라보며 영조 29년에 이 지역 유림이 세운 송곡서원(지금의 송곡향현사)에 그 부자분이 있으며, 또 1614년에 부임한 김대덕(金大德) 군수는 서산과 연고가 있는 선현(先賢) 선생을 정하여(고운 崔致遠, 원외랑 鄭臣保, 양열공 鄭仁卿, 문희공 제봉 高敬命) 오군영시(五君詠時))라 한분 한분에 대한 추모시를 지어 현관에 각지하여 동헌에 게시하고 추모하였으나 후임들이 게시도 하고 버리기도 하였다가 지곡면 산성리에 오현각(五賢閣)을 짓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무너지고 방치되었다가 1994년에 복원하였으나 오현에 대하여 역대 여러 군수가 추모하고 본받으려한 영시가 알려지고 있으며 영원히 전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김 항 (金 恒)

- 조선때의 학자 -

논산문화원

김 항(金恒)은 아버지 김인로와 어머니 서씨의 장남으로 서기 1826년(순조 26년)에 인계 담곡, 지금의 논산군 양촌면 남산리에서 태어나 서기 1898년 사이에 살다간 정역(正易)으로 성학을 밝힌 학자로 초명(初明)은 재일(在一), 자(字)는 도심(道心), 호는 일부(一夫)이며 광산인(光山人)이다.

김항은 이조 명신 김국광(金國光)의 후예로서, 어려서는 아버지 김인로에게 학문을 배웠다.

김인로는 학덕을 겸비한 지방의 선비로 인근에 알려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아들 김항에게 학문적, 정신적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선비라면 누구든지 배우는 성리학(性理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였다.

평소 김항의 독서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책읽기가 시작되는 날은 보통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귀한 책을 얻어 읽으려다 빌려주지 않으면 주인에게 사정하여 그집에서 몇일씩 묵어가며 귀한 서책을 접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하여 그는 20대에 유교의 경전은 물론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의 문예에 통달하고 심지어 도(道), 불(佛), 이학(理學)에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학문의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서기 1861년 그가 36세가 되던해 형조참판에서 은퇴한 유학자 연담(蓮潭) 이수증(李守曾: 一名 雲圭)의 문하에서 배우게 되면서 부터이다.

연담에게서는 서경과 역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다. 특히, 역학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깊은 연구를 하였다.

역학을 공부한지 18년만인 서기 1879년에 복희(伏羲), 문왕(文王), 공자(孔子)의 도학전통을 계승하는 정역괘(正易掛)를 그었다. 이는 종래의 송대(宋代)의 성리학적 차원을 극복한 공자시대 유학의 본래의 경지를 크게 깨달음으로써 한국유학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어서 서기 1885년 그의 나이 60세 되던해 일생일대의 대저(大著) 「정역(正易)」을 완성하

게 되니 이야말로 공자(孔子), 맹자(孟子) 이후 끊어졌던 성통(聖統)을 직접 계승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학(聖學)을 열음이었다.

전하여 오는말에 의하면 김항은 저서가 다수 있었으나 정역(正易)을 완성한 후에 여타(餘他)의 저서들은 한데모아 태워버렸다 하니 정역이 김항사상(金恒思想)의 결산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62세 되던해에 논산군 부적면 부항리로 이주하여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그러나 정역의 학문적 깊이가 워낙 심오하여 당시에는 연산지방 소수의 인물과 영남지방의 몇몇 문하생들이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는 그문화를 통한 학문적 계승이 끊어지다시피 되었으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일은 김항 이후의 시대가 구한말 내지는 일제 침략기로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선비들이 순수히 스승의 학문 전수에만 몰두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김항은 한때 동학혁명으로 논산군 두마면 향한리 계룡산 군사봉에 피난한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차라리 세상일을 멀리하고 오직 학문연구에만 힘썼는지도 모른다.

그는 서기 1898년에 부적면 부항리에서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김항은 천성이 어질었으며 흰칠한 키에 덕이 가득찬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평생 학문연구에만 몸을 바쳤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부귀와 영화를 멀리하였다. 겉보기에는 소극적인 삶을 살은 것 같지만 그는 조선 유학사상의 새로운 맥을 찾아 헤맨 적극적이고 용감한 일생을 살았다. 그는 정역(正易)으로 전통 성리학에 도전하여 성리

학을 거치지 않고 정역을 통하여 공자와의 만남을 꾀하였다. 정역은 공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공자의 진면목(眞面目)을 찾아내는 원리로써 제시되었다. 따지고 보면 성리학의 숲에서 따돌림을 받던 외롭고 고독한 학문의 길을 걸어난 것이다.

정역은 유교 본래의 차원을 재발견 하면서 성학적 천명사상(聖學的天命思想)을 종교적으로 해결하고 조선 유학의 폐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송대(宋代) 성리학적 차원을 극복함과 더불어 실학의 고증학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한 대(漢代) 경학적 차원도 극복함과 더불어 유교 본래의 선진성학적(先秦聖學的)인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역대의(大意)는 서문격인 대역서(大易序)에 잘 나타나 있다.

논산(論山)지방에서 이렇듯 새로운 학문적 원리를 통하여 선진성학에 접근하려는 거유(巨儒)가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고장의 조선 유학의 대맥(大脈)인 기호학과 사상이 숨막히게 서려 있었던 예학의 고장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일생동안 거의 바깥세상 출입을 하지 않았다. 오직 학문과 씨름하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김항의 일생을 통하여 학문적 개혁정신과 중국유학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의식을 극복하려는 주체의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묘소는 그의 탄생지인 논산군(論山郡) 양촌면(陽村面) 남산리(南山里)에 있고 그곳에 성덕비문(聖德碑文)이 세워졌으며 진영은 대전시 대사동에서 후손이 모시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세영(李世永)의 사립 성명학교(私立 誠明學校)

청양문화원장 / 안 종 일

조 국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이세영(李世永) 선생이 청양군 장평면(靑陽郡 長坪面) 관현리에 사립성명학교(私立 誠明學校)를 세우고 국가의 동량이 될 후학 육성을 위해 일해 왔다.

이세영(李世永) 선생은 아산군 음봉(牙山郡 陰峰) 태생으로 한말국운(韓末國運)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통탄(痛歎)하게 생각하던중 1895년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되자 홍주(洪州)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97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민종식(閔宗植) 참판(參判) 및 의병장(義兵將)과 채광묵(蔡光默) 의병장(義兵將)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1906년) 참모장(參謀長)이 되어 홍주에서 침략자 왜군들과 싸우다가 피체되어 종신유배형(終身流配刑)을 받고 복역하다가 풀려났던 애국지사(愛國志士)로 그의 동생 창영(昌永)과 함께 1908년 당시 정산군(定山郡)에 사립학교를 설립 이같이 후진양성에 힘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주관행정청인 정산군

수(定山郡守)는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교사진(教師陣)은 한말(韓末) 진사(進士), 참봉(參奉), 주사(主事) 등 학식과 덕망이 겸비된 실력자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71세에서 24세로 노소(老少)를 불구 우국충정심의 결정으로 후세교육에 심신을 받치고자 했다. 그리고 학생측은 8세에서 24세까지로 연령의 차이가 많은 편이었다. 또한 위국가(爲國歌)를 작사 보급했는데 지금의 애국가(愛國歌)와 같은 정도로 8절로 하여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 시켰다.

설립청원서(設立請願書)를 또다시 정산군수 이인용(定山郡守 李寅用)에게 융희 2년(隆熙 2年) 4월 26일자로 제출했는데 조건 없이 4차나 반려했고 5차에는 융희 3년 3월 29일자로 반려하면서 ① 설립인가청원 1통(設立認可請願 1通), ② 학칙 1통(學則 1通), ③ 직원 이력서 1책(職員 履歷書 1冊), ④ 학계증명서 1본(學契證明書 1本), ⑤ 교사평면도 1본(校舍平面圖 1本)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통지한바 있는데 제출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세영 선생은 아산군 음봉태생으로 한말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통탄하게 생각하던중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다음은 성명학교 임원(誠明學校任員)들과 학원(學員)들의 존안(存案)

임원제씨(任員諸氏)

- 교장 정삼품 이세영(校長 正三品 李世永)
- 교감 진사 이용직(校監 進士 李龍植)
- 학감 의관 안중현(學監 議官 安鍾現)
- 총무 의관 채규성(總務 議官 蔡奎成)
- 교사 참봉 이상린(教師 參奉 李相麟)
- 교사 부위 이창영(教師 副尉 李昌永)
- 교사 참봉 유진석(教師 參奉 俞鎭奭)
- 교사 참봉 이승칠(教師 參奉 李承七)
- 교사 참봉 유학준(教師 參奉 俞學濬)
- 교사 참봉 유철준(教師 參奉 俞哲濬)
- 교사 참봉 민영구(教師 參奉 閔泳求)
- 교사 주사 황규희(教師 主事 黃奎熙)
- 교사 진사 민영환(教師 進士 閔泳璜)
- 교사 진사 김규영(教師 進士 金圭榮)
- 교사 진사 안효열(教師 進士 安孝悅)
- 찬성 승지 민영석(贊成 承旨 閔泳錫)
- 제씨 위원 이범조(諸氏 委員 李範조)
- 주사 황길희(主事 黃吉熙)
- 주사 유치형(主事 俞致亨)
- 절학 김규희(切學 金奎熙)

◎ 학도제원 융희이년 사월 일일 시입학(學徒諸員 隆熙二年 四月 一日 始入學)

이중국 완산인외 사십삼명
(李重國 完山人外 四十三名)

◎ 위국가(爲國歌)

天降生民하오시니(하늘이 생민을 내리시니)
幸茲秉彝이 아닌가(이에 타고난 천성을 바
랬네)

堯舜禹湯 授受大道(요순우탕의 주고 받은대
도)

周公孔子發明하니(주공과 공자가 펴 밝히
니)

文化東漸數千年에(문화가 동으로 온지 수천
년에)

우리大韓特色일세(우리대한의 특색일세)
太祖皇帝龍興하사(태조황제가 나라세워)
無疆休業얼으시니(끝없이 아름다운 업적을
얼으시니)

神聖하신文祖烈祖(신성하신 문덕있고 공이
큰 선조)

五百重熙오늘날에(오백년을 거듭 밝히니)
於戲謳歌불렀으니(얼시구 좋다 노래를 불렀
으니)

未艾國運無窮일세(그침이 없는 국운 다 함
이었네)

光武天地法堯하고(광무황제는 요의 법을 좇
고)

隆熙日月重華로세(융희황제가 거듭 뵈네)
閉關舊規改張하여(없어진 옛 제도 고쳐펴
서)

五洲玉帛禮讓하니(온 세계와 문물을 예양
하니)

日英美俄法德과(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 불

일생을 조국의 광복에 바친 독립운동가 이세영선생은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에 사립 성명학교를 세우고 국가의 동량이 될 후학육성을 위해 일해왔다.

란서, 독일과)

陸海權力諸領袖가(육해의 권력의 영수가)

事功으로 相上하고(공으로 섬겨 서로높이고)

富強으로 自誇하여(강을 부로 자기를 자랑하며)

弱的肉强的食을(강한자가 약한자를 침해할을)

看作能事이시대에(보고 행함이 능사인 이시대에)

自守도 하려니와(스스로 지키기도 하려니와)

進取를 잊을손냐(진취함을 잊겠는가)

어와우리 同胞들아(아 - 우리 동포들아)

堂堂한 온 우리大韓(당당한 우리대한)

어이하면 自守하여(어떻게 하면 잘 지키며)

어이하면 進取할고(어떻게 하면 진취할고)

換古徵今할지라도(옛것을 바꿔 이제를 거들지라도)

學文上에 斷在하니(학문을 먼저 함이 끊겼으니)

어서어서 學文배워(어서 어서 학문 배워)

二千萬口一心되여(이천만이 한마음 되어)

愛國하는 精神을(애국하는 정신으로)

日新으로 日新하여(날로 새롭게 한결 새로이 하며)

國權回復獨立하고(국권을 회복하여 독립하고)

世界盟主되여보세(세계의 맹주가 되어보세)

이아니우리靑年(이것이 우리 청년이 할일일세)

所願成就本心이며(소원성취의 본심이며)

이아니우리學校(이아니 우리 학교)

所願成就期望인가(소원성취 기망인가)

萬歲萬歲萬萬歲(만세 만세 만만세)

大韓帝國萬萬歲(대한제국 만만세)

萬歲萬歲萬萬歲(만세 만세 만만세)

大皇陛下萬萬歲(대황 폐하 만만세)

萬歲萬歲萬萬歲(만세 만세 만만세)

太皇陛下萬萬歲(대황 폐하 만만세)

千歲千歲千千歲(천세 천세 천천세)

皇太子殿下千歲(황태자 전하 천세)

萬歲萬歲萬萬歲(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同胞萬萬歲(만세 만세 만만세)

萬歲萬歲萬萬歲(만세 만세 만만세)

誠明學校萬萬歲(성명학교 만만세)

◎ 誠明學校趣旨書(성명학교 취지서)

이 세상의 서쪽에 못이 있으니 울혈(兀子 : 우뚝하고 외로움)이다. 산 후미진 골짜기에 처해져서 물이 호수와 같이 물대여 못을 깊게 하니 신기한 이무기와 용의 집이 있고 영물인 큰 자라와 악어가 살고 있어 모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족들이 여기에서 놀고 헤엄침을 활발히 아니함이 없으라. 저 - 언덕이 골짜기로 변천함을 당하여 산과 돈대가 무너짐이 그 물대움을 끊으니 못은 드디어 궁벽한 굴속과 함정속을 달리하여 큰바위가 그 앞을

2 금산농악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자 하면 옛것을 다듬고 밝혀나감이니 교육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을 하고자 하면 밝음을 재촉함이니 정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리고 늘어진 가지와 칙냉쿨이 그를 뻑뻑히 가리며 햇빛이 비치 아니하니 이에 신명의 밝음이 더럽고 썩은 김이 서려서 큰 자라 악어고기 자라가 모두 소경(盲魚) 고기가 되었다. 철학박사가 그 위에 임하고 있어 굽어보고 탄식하기를 이제 화산이 솟아남에 지맥이 몰래 갈라져서 깊은 바다 검은 호수가 이미 물이 되어 가만히 통하니 잇빨이 세고 등뼈가 큰 어족이 반드시 여기에 모여지게 되면 소경고기는 외로움을 벌려 없으리니 누가 소경고기로 하여금 비비고 갈아 예전의 밝음을 내놓게 할고? 내가 이 말을 듣고 한숨쉬고 아파하기를 오는 우리 대한의 형세가 못과 같지 않은가? 아 - 백성이 고기를 같이 했구나. 선왕의 은택이 말라감에 인현의 교화가 식어서 만족한 시들음의 즐거움이 긴밥을 성실히 한지가 그것이 이에 백년이 지났다. 서양의 풍조가 물처럼 흘러와서 여러 강국이 그 안에 들이고 처한이는 이에 다시 성실하고 만족하며 숨쉬는 잠깐 동안에 그 삶을 하고자 하나 할 수 있겠는가? 아 - 누가 성실과 만족한 자로서 다듬고 가는 그를 동포의 족속이 지령(至靈)의 성품을 합하여 천신과 합하니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면 마침내 소경고기가 아니 될 것이다.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자 하면 옛것을 다듬고 밝혀나감이니 교육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을 하고자 하면 밝음을 재촉함이니 정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가? 월 구천의 교육과 진노사의 강제교육이 다 패망의 뒤

에 일어나서 능히 패도가 되어서 망해 감을 도로 꺾고 약(弱)을 돌려 강(強)으로 함은 그 힘써 한바가 일찍이 정성에서 나가지 앓음 없음이니 이제 우리 대한의 사람이라면 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동지와 같이 학교를 세움에 성명(誠明)이라 이름하고 제생과 동렬하며 고하노니 우리 윤리의 학문은 선왕과 인현의 전한바가 아니겠는가? 그 이용과 후생(厚生)은 시대에 부합한 업무 일 수 있다. 원컨대 제생은 빨리 백 천가지 공부를 잘하여 어리석은 이는 밝게 하며 부드러운 이는 강하게 하여 울혈(兀子)의 고기가 되지 말며 이 학교의 뜻을 어기지 말아라.



금 산 농 악

-판굿을 중심으로-

안 용 산

1. 금산농악의 개요

금산농악은 1946년 전국기념전국농악대회, 1949년 광복기념농악대회, 1961년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최우수상과 내각수반상을 수상하는 등 해방을 전후하여 공식적으로 거행된 각종 농악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최근에도 1983년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1994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을 통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지의 외국공연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초청공연 등 국내공연을 통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금산농악의 특징은 전원이 전립을 쓰고 복색이 간소하며 빠른 가

금산농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지의 외국공연을 통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락이 많고 개인놀이보다 단체놀이에 치중하고 있다. 윗놀이인 채상놀이가 발달한 반면 밑놀이인 가락은 담백하고 힘차며 전체적으로 동작이 빨라 가장 남성적인 농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금산농악은 평야지대의 다른 농악과 구별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판굿에 열두마치, 영산, 미지기, 품앗이, 물이긋 등 평지에서 볼 수 없는 감칠맛 있는 놀이가 있고 쇠의 상모가 부들부포로 되어 외사, 양사, 사사, 전조시 등 씩씩하고 활기있는 상모짓이 발달하였으며 소고의 상모가 채상으로 되어 자반뒤집기, 연풍대 등 활발한 채상놀이가 발달하였고 쇠가락은 마치굿, 짝두름, 영산, 소쩍새 가락 등 아기자기한 가락을 많이 구사하고 있다.

2. 금산농악의 내용과 형태

1) 앞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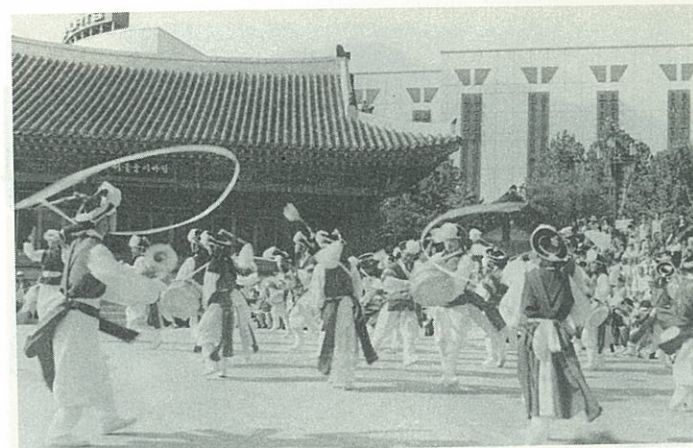
• 외마치질굿 : 치배가 역진하여 잡색부터 들어가 원을 그리며 논다. 원이 완성되면 두마치로 넘겨 맺고 인사를 한다.

• 갓은열두마치 : 금산농악 중에서 영산가락과 함께 구성이 빼어난 가락이다. 타악이 낼 수 있는 내고 달아 맺고 풀음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그 구성은 갓은 열두마치, 외마치, 두마치, 연풍대 등 그 열고 닫음의 구조가 백미를 이루고 있다.

•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여섯마치 : 세마치와 네마치를 서로 암수장단으로 짝을 이루며 놀다가 다섯마치와 여섯마치로 넘기어 암수장단으로 짝을 이루다 두마치로 맺고 연풍대로 풀어낸다.

• 일곱마치, 여덟마치, 아홉마치 : 일곱마치는 중부농악의 칠채와 비슷하나 한배가 다르고 그 맺고 끊음이 칠채보다 명료하다. 여덟마치는 일곱마치와 비슷하나 끝맺음 부분을 막는 것이 다르고 아홉마치는 일곱마치에서 2박이 더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

• 돌굿 : 돌굿은 좌우로 명석말이를 하며 팔상진으로 놀다가 중앙에서 맺는데 좌우에서 팔상진을



금산농악의 특징은 전원이 전립을 쓰고 복색이 간소하며 빠른가락이 많고 개인놀이보다 단체놀이에 치중하고 있다.

할 때는 마치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아주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

• 품앗이굿 : 품앗이굿은 쇠와 장구가 양편으로 갈라서 짝두름으로 밀고 당기다가 두줄로 서면 상쇠가 쇠채발림을 하며 논다.

• 호호굿 : 호호굿은 태극모양을 이루고 놀며 장단 끝에 “호호”와 “허허”를 반복하며 서로 부른다.

• 각정굿 : 갈림굿으로 갈라지면 쇠와 장구가 서로 각각 돌다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원을 이루며 두마치로 맺는다.

• 영산굿 : 금산농악의 백미로 내고 달아 맺고 풀며 조여가는 곳이다. 짝두름으로 상쇠와 부쇠가 주고 받는 가락이 마치 소쩍새가 이산 저산에서 서로 화답하는 소리처럼 명상적이면서 역동적인 서정이 스며있는 가락이다.



2) 뒷굿

• 춤굿 : 춤굿은 굿거리로 시작하여 외마치, 갓은세마치, 두마치로 놀며 특히 두마치의 수박치기는 특이한 놀이이다.

• 미지기굿 : 치배가 두줄로 갈라져 서로 밀고 당기며 놀다가 상쇠와 부쇠가 각각 두줄을 달고 소고 쪽으로 가서 다시 안으로 돌아와 놀다가 맺는다.

• 삼진굿 : 미지기굿을 마치면 치배가 뒤로 세 번을 가고 다시 앞으로 세 번을 돌면서 놀다가 두마치로 맺는다.

• 등지기굿 : 등지기굿은 서로 등을 맞대고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며 놀다 맺는다.

• 고사리격기 : 상쇠가 치배를 한 사람씩 풀어 나간다.

• 물이굿 : 예전에 짐승 사냥을 나갔을 때 짐승몰이를 하던 굿으로 수렵시대의 잔영으로 판굿에

영산굿은
금산농악의 백미로
내고 달아
맺고 풀며
조여가는굿이다.
짜두름으로
상쇠와 부쇠가
주고받는 가락이
마치 소쩍새가
이산 저산에서
서로 화답하는
소리처럼
명상적이면서
역동적인
서정이 스며있는
가락이다.

남아 있다.

• 도둑잡이굿 : 치배는 모두 쉬고 잡색들만 나오는데 투전놀이를 하며 잡색놀이로 꾸미는 마당극이다.

• 소리굿 : 소리굿은 전원이 부포를 앞에 놓고 상쇠의 앞소리에 맞춰 모든 치배가 뒷소리를 하며 논다.

• 개인놀이 : 쇠놀이, 채상놀이, 장구놀이, 열두발채상놀이 등을 하며 개인의 기량을 보인다.

• 파송굿 : 파송굿은 서로 암호를 주고 받는 것처럼 구음을 내면서 노는데 굿이 끝났음을 알리는 굿이다.

• 재넘기굿 : 재넘기굿은 판굿을 마치고 모든 잡귀를 쫓는 뜻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든 치배가 모닥불을 넘으며 노는 굿이다.

은 산 별 신 제

부여문화원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을굿인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가 거행되어 오고 있다. 이 은산리는 부여읍에서 서북쪽으로 8km 정도 지점에 있는 면소재인데 조선시대에는 역(驛)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현재도 공주, 청양, 서천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주위에서 출산되는 각종 물산의 집산지로서 5일장이 서고 있다.

은산리의 뒷산을 당산이라고 부르는데 당산에는 백제시대에 쌓은 이중산성이 있다. 이 당산 남쪽에 은산별신제를 지내는 별신당이 있고, 당집 중앙에는 산신령을 모시고, 동편에는 토진대사, 서편에는 복신장군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여기의 토진대사는 복신장군과 백제 부흥 운동에 참여했던 도침대사로 알려져 있다.

백제의 부흥을
위하여 나당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복신장군과
도침대사, 그리고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위령하는
제로 보고 있으며
약 1300여년전부터
거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산별신제의 창출 유래는 이렇다. 옛날 이곳 은산지방에 악질이 유행하여 매일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촌로가 낮잠을 자는데 백마를 탄 신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내 부하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백제의 장군이다. 죽은 뒤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가 없어 우리들의 백골이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으니 백골을 거두어 매장해 주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악질을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백골이 텅굴고 있다는 장소를 가리켜 주고 사라졌다. 낮잠에서 깬 촌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하고 꿈에 장군이 가리켜 준 장소로 가보니 과연 거기에는 수많은 백골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를 수습해서 안장하고 위령제를 지냈더니 극성을 부리던 악질이 사라졌고, 이 때부터 별신제를 거행하게



2) 꽃받기

되었다고 한다.

이 은산별신제의 창출 유래에 관해서는 몇 가지 전설이 더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은산별신제는 백제의 부흥을 위하여 나당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복신장군과 도침대사, 그리고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위령하는 제로 보고 있으며 약 1300여년전부터 거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별신굿 또는 별신제는 동해안 및 남해안 일원과 경상도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민속제의로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은산에서 전승되고 있다. 본래 별신이란 두신(痘神), 즉 천연두를 일컫는다. 또한 별신이란 의미는 질병신인 천연두 외에 골매기나 당산 신이 아닌 별개의 신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별신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질병신(疾疫

은산별신제는 다른 마을제와는 달리 무녀가 참가하고 대장·중군·선배·비장·후배비장·사령의 임원이 등장하는 등 장군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神)이나 무병제액을 기원하는 신령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은산별신제는 다른 마을제와는 달리 무녀가 참가하고, 대장·중군·선배·비장·후배비장·사령의 임원이 등장하는 등 장군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은산별신제는 제사 때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제삿날을 결정하고 제관인 임원을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임원으로 선출되면 이들은 그날부터 외출을 금하고 매일 목욕재계를 하며 근신을 한다. 이후 행사일 3일전이 되면 모든 제관들은 별신당 곁에 있는 은산천에 나가 제삿술을 빚기 위한 물을 화주집으로 떠가는 행사인 조라술 행사를 한다.

조라술행사 다음에는 진대베기를 한다. 이 행사는 참나무 4본을 베어 오는 행사로 농악과 삼현육각을 울리며 말을 타고 행군하여 별신당에서 20리 내에 있는 산에 가서 미리 선정해 놓은 참나무를, 제사 지낸 후에 베어 가지고 돌아온다. 베어온 진대는 화주집에 보관했다가 장승제를 지내는 날 은산리 동서남북의 일정한 거리에 있는 장승터에 세운다. 진대는 진목이라 하여 진중 묵책으로 사용한 것인데, 진대베기 행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행사이다.

이어 다음날에는 꽃받기 행사를

한다. 꽃받기 행사는 별신당에 봉안된 신위에 대한 헌화 행사로서 인근 사찰이나 사당에 미리 안치해놓은 꽃병 6개와 화등 6개를 이날 받아온다. 진대베기 행사와 같은 행장을 갖추어 전 임원이 참여하는데, 최근에는 삼층사에 미리 봉안한 것을 운반하여 화주집에 놓았다가 본제 당일 제물과 함께 공물로 신위 앞에 올려진다. 이 꽃들은 별신제가 끝난 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다음날에는 상당행사와 본제(산신제)를 지낸다. 상당행사는 본제를 지내기 위한 제물을 화주집에서 별신당으로 옮기는 행사다. 이때 엄숙함과 정결함을 위해 입에 흰종이를 물고 각종 제물과 꽃을 운반한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관 전원이 제사를 한다. 이어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산신축, 장군축, 동민축을 하며 본제를 올린다.

본제 다음날인 행사 5일째에는 별신제의 중심행사인 상당굿과 하당굿이 펼쳐진다. 강신굿인 상당굿은 무녀에 의해서 치러진다. 제사가 치성이 잘되었으면 신이 내려 대기가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일 때까지 제관 전원이 은산천에서 목욕재계한 후에 다시 굿을 한다. 하당굿은 상당굿이 끝나면 마을 안 시장터의 괴목 아래에서 진행되는데 무녀는 모든 임원들에게 차례로 술잔을 돌리고 그때

은산별신제는 10여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별신제중 가장 규모가 크고 원형 보존이 잘되어 있다. 예전에는 3년마다 한번씩 지냈으나 요즘은 짝수 해에는 대제를, 홀수 해에는 소제를 지낸다.

마다 축원을 해준다. 하당굿은 별신제가 잘 거행되었음을 자축하고 임원을 위로하는 일종의 여흥행사이다.

마지막 날인 6일째에는 독산제와 장승제를 지내 별신제를 마무리 짓는다.

독산제는 별신당 왼쪽에 있는 독산제단에서 지낸다. 이는 별신제가 무사히 끝나도록 보살피 주신 신에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장승제는 동서남북에 있는 장승터에 가서 새로 만든 장승과 진목을 세워놓고 잡신들이 부락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사를 거행한다.

이렇듯 은산별신제는 10여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별신제중 가장 규모가 크고 원형 보존이 잘되어 있다. 예전에는 3년마다 한번씩 지냈으나 요즘은 짝수 해에는 대제를, 홀수 해에는 소제를 지낸다. 소제 때에는 진대베기와 꽃받기 행사가 생략된다. 시기도 과거에는 음력 정월이나 2월에 15일동안 계속했으나 최근에는 3월말에 6일 동안 지내고 있다.

현재 은산별신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한때 농촌인구가 줄고, 산업화의 여파로 침체의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은산별신제 보존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조상 전래의 원형을 지켜오고 있다.

강 다 리 기

조치원문화원

연 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400여년 전인 임진왜란이 끝난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부락민이 모여 강다리기를 시작하였다.

일제시대인 1918년(무오년) 송창현(88)씨가 10살 되던해의 강다리던날 어른들 말씀이 다른해보다 올해는 재해가 있다하니 더욱 정성드려 강을 다려야 한다면 강을 다렸다.

그해 용암리 주위 마을인 고북리, 신대리, 쌍유리, 쌍전리 등지에서는 전염병인 괴질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러나 용암리 주민들은 한사람도 죽지 않았고 괴질이 걸린 사람 또한 금방 치유가 되었다. 그러한 일이 있는 후 동네사람들은 더욱 정성을 들여 강다리기를 했다. 일제시대에 일본 헌병대가 집회를 꺼려 강다리기를 중단시킨 해가 있었다.

주민이 많이 모여하는 집회라 하여 첫째 이유를 들고 우리 민속을 금지하는 것이 둘째로 못하게 금지하여 그해는 강다리기를 하

지 못했다. 그러자 동네에 불화가 겹쳐서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주민이 죽어 나갔으며 동네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동네사람들은 긴급 마을회의를 열어 헌병대에 찾아가 강다리기를 허가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헌병대에서는 막무가내 거절을 하고 절대로 못한다는 대답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더욱 많이 헌병대에 몰려가 항의를 하자 헌병대에서는 허락치 않으면 사태가 심각할 우려가 있어 결국 강다리기만은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한해도 빠트리지 않고 하였다.

용암리 마을의 변천

예전에 용암리는 100여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현 용암저수지내에는 63호의 집이 있었는

데 1983년도 저수지 담수로 이주하여 서울, 대전, 조치원, 인근 마을등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 주민만 위양동으로 이주하여 현재 용암리 전체 가구수는 70여호 주민은 200여명이다.

1983년 이주가 끝나고 1984년도부터 물을 담기 시작했는데 담수 지역내에는 마을 주민 전체가 길어다 먹은 큰샘이 있었다. 현재 위양동에는 1000여년 됐다는 느티나무 괴목이 있고 이 괴목 아래에 정월 열엿새날 제를 올린다.

위양동 마을에 담수가 시작되던날부터 5일간 이 괴목이 울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령스런 나무로 위하고 있다. 용암리 우물이 세개 전해오는데 위양동의 “큰샘”과 배나무골 앞 저수지내에 “참새”와 군인 사격장 앞에 “오목이 샘” 등이다.

참샘은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더운 물이 나왔고 여름에는 이가 시리도록 차거운 샘물로 예전에 피부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전설이 깃들인 샘이다. 현재는 저수지 안에 있어 심하게 가물으면 보인다.

오목이의 샘은 예전에 그곳에 갑부가 살았는데 오목이라는 여자종이 있었다. 주인의 학대에 내쫓겨진 스님에게 몰래 시주하자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라 하여 집에 일이 너무 많아 손을 덜어 달라하자 동쪽과 서쪽 산능성을 파내면 주인집이 더욱 큰 부자가 될 것 이때 주인에게 말하라 하여 시키는대로 했더니 그 부자집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오목이에게 그 원인을 다그쳐 묻고는 그날부터 더욱 호된 일을 시켜서 결국 오목이는 집앞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깃든

우물이다. 현재에도 우물이 있어 농사에 쓰인다.

용암 저수지내의 마을을 위양동(渭陽洞)이라 부르는데 이 명칭이 언제부터 쓰여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의 풍수가들이 이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위양의 위(渭)자는 “밭(田)이 물(水)에 잠겨 달(月)이 비춘다.”라는 뜻의 글자이고 위수(渭水)란 맑은 물이란 뜻이다. 또한 “위양동”이라 위지(渭地)와 양지(陽地)마을로 이루어졌는데 위지는 물에 잠기고 양지는 현재 마을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낙양의 낙수가 물이 남쪽으로 흐르는것과 우리나라 서울(한양)의 한강이 흐르는 이치가 같은것이라 한다.

산남수북(山南水北)은 산은 남쪽이요, 물은 북쪽으로 흐른다는 말이다.

검단(檢斷)

고북저수지에 기룡리로 넘어가는 서쪽마을을 “검단”이라 부르는데 그 연유는 검은 돌을 이용하여 단을 쌓아 단을 만들었다는데서 연유한다. 강화도 마이산 정상에 “참성단”이 하늘에 제를 올리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올림픽이라든지 큰 행사시 이곳에서 봉화불을 점화하여 옮긴다 한다.

마이산은 제주도 한라산과 백두산의 중간 지점이다.

천리성의 애화

서천문화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후 태평성대가 계속 된지도 어언 백여 년이 지난 고려 초기의 일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 서해안 바닷가에 한가한 마을이 있었다.

소라껍질처럼 아늑히 포구가 원을 그리고 뒤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병풍을 두른 듯 둘러선 갯마을엔 서해안 그 어느 곳보다 간만의 차가 심하여 간조 때엔 갯벌이 십여 리씩이나 생기는 갯마을이었다.

이 갯마을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별로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썩 평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마을에 길첨지라는 내외가 슬하에 자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첨지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근처 산에서 나는 대나무로 빗이나 붓파위를 만들어서 등에 걸머지고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고하여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 길첨지의 아내는 이 갯마을에서 둘도 없는 미인이었다. 삼십이 될까말까한 나이에 그 풍성한 미모는 마을 할아버지들

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도 남았다. 더욱 남편이 지지리도 못생긴 추남이라는데 마을 할아버지들은 질투를 느끼고 집요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할아버지들 중에 기골이 장대하고 성미가 불같이 우직한 최서방이 있었다. 이 최서방의 아내는 지난해 봄에 조개잡이로 갯벌 끝까지 나갔다가 그만 밀물에 밀려 수중귀신이 되어버려서 최서방은 갯난 계집아이를 하나를 슬하에 두고 쓸쓸한 할아버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에미없는 젖먹이 아이를 기르기로 한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제 막 여자를 알게 된 그의 혈기 왕성한 생리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허전함이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최서방은 길첨지의 아내에 대한 연정이 불같이 타 올랐으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러한 갯마을에 용왕제를 지내는 날이 왔다. 용왕제란 겨우내 추위로 고기잡이를 쉬었다가 처음으로 고기잡이를 떠나는 전날 밤에 지내는 큰 행사요, 마을이 온통 축제

기분으로 들뜨는 날이다. 산골짜기에 얼음이 녹아 맑은 냇물이 흘러 내리고 갯벌 금빛 모래밭에 햇빛이 따사로운 삼월 초순 어느날... 겨우내 묶어 두었던 돛단배를 풀어 망가진 그물을 다시 손질한 후 고깃배에 신나게 쟁이고 이제 막 바다로 나가려는 바다의 사내들...

술과 음식을 장만하는 마을 아낙네들의 가슴도 흥겨웁고 풍요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새까만 조무래기들 역시 신이 나서 공연히 마음이 들떠 이리저리 내닫는 그야말로 마을이 온통 활기를 띠는 날이다.

“어이 최서방! 이 그물 어디 쓰갓는가 젠장!”

박첨지가 구멍이 군데군데 뚫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최서방에게 다가갔다.

“젠장 낸들 안담!”

최서방은 통명스럽게 내뱉는다. 지금 최서방은 내일 고기잡이를 떠나면 갯난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하고 걱정중이었다. 아니 그보다 길첨지의 아내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짜증이 났던 것이다. 퍼뜩 최서방의 머리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길첨지 아내의 심중도 떠 볼겸 고기잡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날까지 갯난아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할 궁리를 했던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길첨지가 허락할까? 설마 걸로 못하겠다고 거절을 앓겠지.

그는 용왕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아득한 수평선에 저녁해가 기울고 어수선한 갯마을에 금빛 황혼이 젖어들기 시작하였다. 어슴프레한 갯벌 위에 갈매기가 너울거리고 하

나 둘 돛단배에 등불이 밝혀지면서 용왕제는 절정에 달했다. 조수는 만조가 되어 최서방네 마당 끝까지 밀려들고 파도는 우직한 최서방의 가슴처럼 바위를 치며 허영게 부서지고 다시 밀려와서 부딪쳤다. 바닷가의 봄바람은 아직도 차고 사납다. 차가운 달빛은 뜰에 가득했다. 달빛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가며 최서방은 그 거북이 잔등같은 우악스런 두 손으로 갯난아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안고 길첨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을 어귀에 조그만 동산 하나를 휘돌아 동쪽으로 꽤 떨어져 있는 길첨지의 집은 집이라기 보다 움막에 가까운 오두막 외판집이었다. 토담이 드문드문 무너져 내려 앉고 금방 기울 듯이 쓰러져가는 기둥에 아무렇게나 잘라다 떠 반힌 통나무 두어 개가 한쪽 벽을 떠받히고 작년에 호박과 박을 놓았던 썩어가는 지붕은 달빛에 환했다.

“길첨이 있수?”
마음이 켜겨드는 듯한 최서방은 싸립문을 어깨로 지긋이 떠밀며 들어섰다. 가슴이 사뭇 방망이질을 쳤다. 잠시 그대로 아무 기척이 없었다. 희미한 초롱불 빛이 창문에 비칠 뿐이다. 최서방은 더욱 초조하고 안타까웠다.

“길첨지!”
이번엔 짜증 섞인 큰 소리였다. 이윽고 창문이 비시시 열리며

“누구여?”
길첨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바람에 하마터면 깜빡 초롱불이 꺼질 뻔했다.

“아, 나여! 아 그래 고기잡이 안하는 사람

이면 온 마을사람들이 다 지성드리는 용왕 제도 참석안해야 한당가?”

속으로 최서방은 잘 말했다고 생각했다.

“허 누구라구! 나야 뭐!”

길첨지는 죄라도 지은 듯이 짐짓 먼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내일 고기잡이 떠나나?”

마루로 엉금엉금 기어나온 길첨지는 말을 마치며 마당에 대고 각 가래침을 뺀다.

“아 그걸 말이라구 해? 그런데 내가 길첨지 안 식구한테 청이 하나 있어서 왔네!”

최서방은 얼른 길첨지의 안색을 살폈다. 들창코가 실룩거리며 관자놀이가 을먹인다. 초롱불빛에서 다소곳이 도사리고 앉아 무언가 껴매고 있던 길첨지의 아내 역시 흠칫 얼굴을 돌린다.

“무... 무슨 청이길래?”

의심과 적의를 감추지 못한 어정쩡한 길첨지의 반문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저어 내가 내일 고기잡이를 떠나잖나? 그래서 며칠동안 어렵지만 이 계집아이를 돌봐 주었으면 하네.”

최서방은 어린아이를 조심스레 고쳐 안았다. 이윽고 길첨지는 그제사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별로 반갑지 않은 눈치였다.

“아니 여태까지 돌이 어머이 젖을 먹여줬잖아?”

난색을 역지로 감싸며 긴 담뱃대를 짹짹 빨아 들인다.

“아 그렇지만! 글세 저.....”

최서방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말을 얼버무렸다. 이 때 방 안에서

“걱정마시고 다녀오세요! 제가 봐 드릴게요.”

길첨지 아내의 낭랑한 목소리였다. 최첨지는 떨 듯이 기뻐다.

“그럼 저어. 헤. 이거 너무 폐를 끼쳐서. 참 할아버지 신셀 면해야지 원! 애한테도 못할 노릇이고...”

최서방은 갓난아이를 길첨지 아내에게 넘겨주면서 길첨지 아내의 얼굴을 다시 훑쳐 보았다. 와락 껴안고 싶은 자태였다.

갯마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떠나던 날 저녁 길첨지의 집에서는 내외가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어떤 연분에서인지 곱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 살게 된 길첨지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으나 오히려 다른 사내놈에게 아내를 빼앗기지나 않을까, 혹은 아내가 자기를 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로 전전긍긍한 생활이었다. 더욱이 최서방의 갓난아기를 자기 승낙도 없이 날름 맡아 정성들여 돌보는데는 일종의 의처증같은 의심마저 생기기 시작하였다. 몇 번 꺾꺾 쥐어박고 고함을 쳐도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럴수록 아내는 갓난아이를 사랑스러이 껴안기만 했다.

이러한 아내의 행동에 더욱 길첨지는 약이 올랐다. 혹시 그 놈 최서방하고 정을 통하지나 않았나하는 의심이 자꾸만 머리를 어지럽혔다. 만일 그놈과 정을 통했다면 소름이 짹 끼치는 일이었다.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우악스런 건강한 최서방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자 웬지 가슴이 오르러드는 것 같은 위압과 함께 비굴한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을 행상도 나

가지 않고 굴같은 방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쟁쟁거리며 아내를 들볶았다. 붓통이나 참빗을 만들면서도 뺨같은 눈초리로 아내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아내가 그 곱고 풍만한 유방을 내놓고 젖을 먹일 때면 일종의 질투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자꾸만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함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길첨지의 아내는 조개잡이 마저 못나가게 하며 마치 금족령을 내린 것같이 아내를 꼼짝 달삭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뛰어난 미모처럼 마음씨도 곱고 순박하여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이 남편이 하라는대로 고분고분 순종할 따름이었다. 물론 이러한 미묘한 갈등속에서도 최서방의 딸에 대한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였다. 마치 친자식처럼 돌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길첨지가 아내에 대해 불안한 반면에 그의 아내는 갓난아이를 대할 적마다 우람스러운 최서방의 건장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다. 몹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사납게 이는 날이면 최서방에 대한 걱정마저 생기는 것이었으며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는 점점 야릇한 흥분과 미묘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마치 최서방 앞에서 유방을 내놓는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이즈음 조정에서는 북쪽 오랑캐들의 침입이 잦아 지금의 신의주와 원산을 잇는 천리성을 쌓는다는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고을마다 젊은이들은 이 천리성의 부역에 끌려 가지나 않을까하여 저마다 걱정을 하였다. 꽃다운 아내를 둔 길첨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행상을 나간 길첨지는 고개 너머 말죽골 마을에서 불행하게도 부역에 걸리고 말았다. 떠날 날은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천지가 아득하고 기가 막혔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길첨지가 천리성 부역을 갈 날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산들 봄바람이 따스한 봄볕에 한결 부드러운 이 날, 멀리 고기잡이를 갔던 갯마을 어부들이 개신장군처럼 구리빛 얼굴로 무사히 돌아왔다. 마을은 또한 바탕 활기를 띠고 밤새도록 술과 고기로 마음껏 즐겼다. 풍성하고 즐거운 하루였다.

이 날밤 최서방은 얼근히 취해서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길첨지의 집을 향했다. 그의 어깨에는 갓가지 싱싱한 고기가 한 망태기 그득히 메어져 있었다. 갓난아기를 돌봐주어 고맙다는 인사보다 길첨지의 아내를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다. 마침 이날 길첨지는 마지막으로 행상을 떠났던 것이다. 아내에겐 내일 저녁까지 돌아오겠다고 하고 아침 일찍이 떠났다.

“길첨지!”

싸림문을 밀치고 들어선 최서방의 둔탁한 음성이었다. 이윽고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며

“어머! 무사히 돌아오셨네. 아긴 금방 잠이 들었어요.”

최서방은 망태를 마루 위에 올려 놓았다. 취기로 다리가 휘청거렸다.

“길첨지는 어디 갔는가요?”

“네. 오늘 행상을 떠났어요”

순간 길참지의 아내의 얼굴엔 서글픔이 번졌다. 남편이 천리성 부역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려다 그만 입술을 꼬옥 깨물고 말았다.

최서방을 치켜보니 충혈된 두 눈이 이글거렸다. 길참지의 아내는 얼굴을 껌 돌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서방은 가슴의 고동이 그냥 멎어 버리는 것 같았다. 최서방은 와락 달려 들었다. 사나운 짐승처럼 마구 시근댔다.

“어머!”

길참지의 아내는 모기같은 목소리로 애원을 하였으나 최서방의 욕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난! 난! 정말!”

미친 듯이 덮쳐 눌렀다.

“절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 몸을 바치겠어요. 그러나 한가지 청이 있어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길참지의 아내가 말을 했다. 최서방은?

“뭔데? 죽으라면 죽기라도 할테야. 정말 응!”

하며, 불을 뿜듯 열기를 뿜으며 유방을 더듬었다.

“제 남편대신 천리성 부역을 가 주시겠어요?”

“응! 응!”

최서방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답을 했다. 한동안 뜨거운 걱정 순간이 흘렀다. 킁킁 기러기의 울음이 서글프게 들렸고, 포구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들렸다. 「길참지 대신 부역을 간다. 장부 일언이 중

천금이요, 하루밤에도 만리성을 쌓는다는데, 가야지 암 가야지.」 최서방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후의 새벽. 최서방은 마을 사람 몰래 이슬 맺힌 풀섬길을 걸으며 점점 멀어져 가는 갯마을을 향해 몇 번인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천리성 부역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갯마을에 풍어가 들고 흥겨운 잔치가락이 울릴 때면 길참지의 아내는 홀로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버릇이 생겼다.

닭우리 고개

청양문화원

옛날 적곡땅(현. 장평면) 아랫마을 쪽으로 들이 있고 들에서 산길로 접어드는 곳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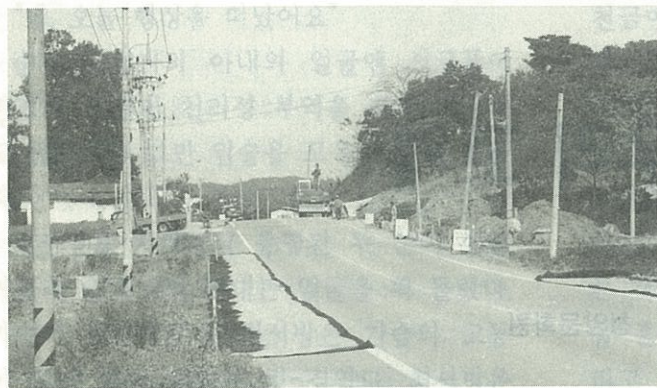
흥년일 때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드물었지만 풍년일 때는 사람들이 주막집을 드나들었고 또한 이 주막집은 고개 길 아래에 자리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행인들이 하룻밤 쉬었다가곤 하는 주막집이었다.

그래서 풍년일 때는 항상 주막집이 붐볐고 술꾼들이 비틀거리는 주막이었었다. 하루는 밤늦게 주모가 그날의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바깥에서 말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 나그네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고 말 등에 짐을 가득 싣고 주막 앞에 말을 세워놓더니 큰칼을 옆에 들고 주막 가까이 와서는 주모 남편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을 깨우고 그 앞에 남편을 안내하자 어쩐 일인지 남편이 그 앞에서 굶신굽신하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말을 몰고 온 사람은 주막에 들어올 것도 없이 술을 큰항아리에 가져오라고 하더니 물을 마시듯 별떡

별떡 마시고는

“이놈아 생전 마누라 손끝으로 벌어주는 밥을 먹고 살테야. 이놈아 사내 대장부가 될 할 것 없어서 마누라 뒷다리를 굶고 사느냐 이거야 이놈아.” 하곤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 날밤 주모 남편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뜯눈으로 새우더니 마누라 몰래 새벽에 정산땅 대장간에 찾아가선 큰장도(長刀)를 하나 사왔다. 그리곤 그날 밤부터 밤일을 하는 도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기 집에 말에 짐을 싣고 온 사람은 유명한 정산 골의 산적이었다. 어려서 형님 동생으로 통하던 그가 형의 권고를 받고 도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는 저녁 때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는 행인들을 유심히 살폈었다. 그러다가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행인이 고개를 넘어갈 때는 그 행인의 돈을 강탈하는 도적이 된 것이다. 그는 가끔 행인들을 털었다. 더구나 그는 길을 걸어와서 곤하게 잠든 행인들은 그가 닭 시늉을 내며 닭 울음소리를 내면 으레히 노을이 밝을 거라고 생각



옛날 닭우리 고개가 오늘날 국도 39호선으로 개통되어 있는 현장

하고 행인들이 길을 재촉했었다. 사실은 자정 밖에 안됐지만 닭 우는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언덕을 넘어가다간 그의 장도(長刀)앞에 모두 돈을 빼앗기는 비운을 맞게되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가 산에 가서 도적질을 하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서다가 며느리와 마주쳤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외딴 방의 남편 시중을 들던 며느리가 그렇지 않아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장도를 들고 물건을 등에 지고 들어올 때 시아버지가 도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멈칫 섰었다. 그렇지 않아도 밤마다 어리론가 사라지는 시아버지를 의심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아버지의 행색을 알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한 시간이나 됐을까. 조금전에 주막을 나서던 행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주막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것은 시아버지 짓이라고 생각하니 이 집에 산다는 것은 도적 굴에 사는 것 같아서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다. 주막에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 유숙하게 되면 자정이 되기 전에 닭 울음 소리가 들렸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웁지, 저 닭 울음소리에 속는구나!” 하고 자정이 되기 전에 닭 울음소리가 나면 고개를 넘어가려는 행인 들게 저 닭 울음소리는 가짜 닭 울음 소리라고 말하며 산적이 산에 숨어 있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행인들을 무사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밤이 늦도록 닭 울음소리만 내다가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 후 땅이 갈라지고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가뭄의 해였다. 하루는 밤중에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선 시아버지와 함께 사라졌다. 밤이 이슬 하자 행인 한 사람이 밭짐을 지고 일어섰다. 그래서 며느리는 가짜 닭 우는 소리라고 그 행인에게 귀뜸을 해줬다. 그러자 그 행인은 그래도 바빠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산길로 오르는 것이었다. 며느리 생각엔 저 사람 짐도 다 빼앗겼구나 하고 생각하고 부엌 살림을 챙기는데 한 시간도 못되어 대문 앞에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며느리가 나가 봤다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거기엔 양손이 잘린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였었다. 도적질을 하기 위해 덤뵈다가 조금 전에 떠난 사람의 칼에 양손을 잘린 정산골 도적과 시아버지였다. 그래서 양손을 잘린 시아버지와 정산골 도적은 출혈이 심했던지 죽고 말았다 한다.

그래서 이 고을에 도적이 없어지고 행인들이 편안하게 다니게 되었다 한다.

시아버지가 닭 우는소리를 내며 도적질을 하던 고개라 하여 그 고개를 “닭 우리고개”라 부른다 한다.

장성리(長城里) 은행나무

— 금마면(金馬面) 장성리(長城里) 은행정(銀杏亭) —

홍성문화원

금마면 장성리에는 천변마을 북쪽으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은행정(銀杏亭)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홍성읍과 경계를 이루면서 은행정이 다리옆으로 자리하는데, 조선 500년 동안의 한(恨)을 안은 외로움 속에서

우람하게 버티어선 은행나무 한 그루만을 믿고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는 마을이다.

이 은행나무에 얹힌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이 이루어 놓은 심오한 영적(靈的)

아름다움이 숨어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여보게, 자네도 엿저녁 은행나무 우는 소리를 들었나?”

“그러게 말야. 간밤에 우는 소리에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뜯 눈으로 세웠다네. 이를 어찌면 좋겠는가?”

“이판에 은행나무가 울었으니, 올해도 또 흉년이들겠구료! 어서 초근목피라도 부지런히 모아 대비해야지!”

이른 새벽녘 마을의 농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간밤에 은행나무가 울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머잖아 닥쳐올 흉년에 대비하고자 서둘러댔다. 언제부터인지 이 은행나무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피 울어제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하였다.

원래 이곳에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나란히 어깨를 견주며 사이좋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의 한 나무를 당시의 홍주목사(洪州牧使)였던 김병억(金炳億)이 베어냈다. 그후 목사의 아내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자 너도나도 은행나무를 경외로운 모습으로 우러러 보곤 하였다.

은행나무가 울었다는 사실은 어둠이 물러난 이튿날 새벽녘 만나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곧 은행나무에 대한 제사를 준비했다. 간밤에 울었으니 더 이상 울지 않게함으로써 마을에 미칠 어떠한 재앙을 막아 보자는 것이었다. 은

은행나무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것은 은행나무의 영험한 힘으로 앞으로 닥칠 재앙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곧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많은 제사 음식이 준비되었다. 오곡으로 빚은 갓가지 음식은 물론이려니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이나 포, 산에서 캐어온 나물이나 풀뿌리,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제사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그러한 뒤에 마을의 최고 어른이 제주가 되어 정성으로 술잔을 올리고 제발 그만 울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마을의 무당은 은행나무에 금줄을 둘러치고 동실동실 춤을 추었다. 모두가 은행나무가 더 이상 울지 아니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그러나 모든 제사의 차례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제사상의 좌우에서 해살대던 촛불이 지나가던 바람에 획 꺼져버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순간적으로 싸늘한 냉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살갓이 닭의 살갓처럼 오들오들 돌아나는가 했더니, 머릿결이 일순간에 곤두섰다.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 한 줄기의 회오리가 은행나무 가지 사이를 맴돌다가 제사상의 음식 사이까지 밀려내려왔다. 제사상이 심히 떨리는가 싶더니 은행나무의 울음소리가 굵게 울려 퍼졌다. 우우우 하는 소리는 분명 간장을 에어내는 호적소리였다.

“오, 이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그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울다가도 제사를 지내면 울음소리를 그치곤 하였는데……. 이는 필경 우리 마을에 난리가 밀어닥칠 일이로구나!”

마을 노인들은 허겁지겁 제사상을 치우도

록 하고, 일제히 다시 한 번 은행나무를 향하여 절을 하였다. 그리곤 곧 닥쳐올 마을의 운명을 이야기 하다가, 앞으로 난리가 밀어닥칠지도 모를 일이나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마을을 비우고 피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세워 은행나무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피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모두 피난을 하였다. 아녀자들은 머리에 이고, 지아비들은 지게에 먹을 양식을 지고, 마을을 등 뒤로 하였다.

은행나무는 빈 마을을 바라보며 며칠을 계속하여 울어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행나무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 말았다. 어디서 물려왔는지 오랑캐놈들이 떼를 지어 와서는 빈 마을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남쪽에서부터 물려온 왜놈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잔악한 행위나 옷차림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왜놈들은 집집마다 텅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미처 피신시키지 못한 집 짐승을 잡아다가 은행나무 밑에서 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놈들의 행동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꼭 미친 개들이 무리지어 날뛰는 것만 같았다. 왜놈들은 텅 빈 마을을 보며 어떻게 알고 마을 사람들이 도망쳤는지 모르겠다며 더욱 화를 내었다.

왜놈들이 물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쳐들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마을로 돌아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이 싸기 시작한 짐을 풀지 않으면 안되었다. 앞서 왜놈들의 동향을 살펴보려던 마을 사람중의 한 사람이 은행나무의 울음소



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긴 한숨을 쉬며 은행나무의 울음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언제나 울음소리가 멈추게 될 것인가?”

은행나무가 다시 울고난 이튿날 왜놈들이 물려와 빈 마을을 살살이 뒤지고 간 사실을 확인 한 뒤, 마을 사람들은 울어주는 은행나무가 고마웠고 마침내 왜놈들이 완전히 물러간 다음, 울지 않는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마을로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은행나무를 찾아가 감사의 절을 거듭했다. 마을 사람들은 왜놈의 잔악한 손길에 황폐해져 버린 마을을 다시 일으키며, 연신 은행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잃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온 후 근 백여년 동안 은행나무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은 언제나 평화스러움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를 점지해주는것은 바로 은행나무라 생각하고 해마다 정초가 되면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의 젓상을 은행나무에

바쳤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이따금 변화를 일으켰다. 어느 해는 나무의 끝가지에 푸른 잎을 많이 달고, 어느 해에는 전혀 푸른빛이 띄지 않을 만큼 조금의 잎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다. 즉 잎이 많이 오

붓하게 피어오르면 그해는 풍년이 들고, 나뭇잎이 나무 아래로만 피어오르고 무성하지 아니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믿는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푸르고 푸른 잎이가득하기를 해마다 기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이 은행나무는 현재 충청남도의 도나무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니, 그것은 860여 년의 오랜 수령이

아직도 청춘이기를 바라는 마을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郷土遺跡指定資料

두솔성 (豆率城)

靑陽文化院長 安 鍾 日

■ 指定의 背景

百濟復興軍 最初 本據地이며 항거지가 七甲山內에 있는 豆率城(一名 慈悲城)으로 판단 됨에 따라 百濟復興運動의 顛末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百濟史蹟을 발굴 보호 관리 하는데 있다.

- 位置 - 靑陽郡 七甲山 道立公園內
- 規模 - 둘레 45km
- 築造時代 - 百濟時代
- 建築形態 - 土城(一部石城)
- 상단넓이 5~10m

■ 主要 百濟文化 遺蹟의 痕迹

○豆率城內에 王族文化의 痕迹이 있는 道林寺址가 있음.

○道林寺址 遺跡

百濟時代 — 推定3層石塔(地方文化財27號)

出土遺跡 — 염부처, 석등과편, 주석, 기단석,

부처좌대, 백제와당, 금박달린 큰칼등

○豆率城을 비롯한 百濟城을 活用하여 統一新羅時代에 全國10停중 1停인 古良夫里停이 設置되었음.

○牛山城(道指定記念物 81號)

城의 規模는 길이 965m 靑陽邑 邑內里에 所在함. 石城으로 百濟時代에 築造하고 高麗時代에 重修한 痕迹이 있으며 三國史記 百濟條에 좌평백가가 모반을 일으켜 무령왕이 평정한 기록이 있음.

○豆陵山城

城의 規模는 540m의 소규모 石城이다. 豆率城과 더불어 百濟時代의 사비성 북방 군사 요충지로 烽火台등 重要 전초기지로 活用되었음.

○其他土城

관비산성 연티산성 천마산성 등이 百濟重要山城이며 統一新羅時代 古良夫里停이 주둔지였음. 豆率城이 名稱考察

○大東地志 定山沿革

本百濟 豆良尹城 一作 豆陵尹城 一作 豆率城 一作 尹城 一作 悅己

○大東地志 定山 古城

在七甲山 本 豆率城或 慈悲城

○三國史記 地理志

悅己 懸一 一云 豆陵尹城... 一回 豆串城 一回 尹城

※ 豆率城 豆串城 豆良尹城 豆良伊城 豆陵尹城 尹城 悅己 慈悲城

■ 百濟復興軍의 抗拒記錄

○大東地志 定山 典故

新羅 文武王 三年 遺將 攻 豆陵尹城 下之

(신라 文武왕 3년에 유장이 두릉윤성을 공격하여 항복시킴)

百濟 諸城 潛圖 復興 據 豆率城 乞師於倭 爲據 王率庚信等 諸將次熊津州 與劉仁願 合兵 至豆率城 百濟人與倭人出陣 羅兵 力戰大破之 百濟人 與倭人開港

(왜인의 지원을 받아 두솔성에 응거하여 백제 부흥을 도모하자 왕이 김유신등 제장들을 인솔하여 당이 유인원과 더불어 두솔성에 이르러 신라병이 백제 및 왜인을 대파 시키고 항복을 받다)

伊食品日 先至 豆良尹城 南相地 百濟人 急擊不意 羅軍擊駭潰北

(이찬 품일이 두릉윤성에 도달하여 남쪽에 터를 잡자 백제인이 불의에 공격하자 신라군이 놀라 괴배 하였음.)

○三國史記 文武王條

文武王 八年 三月五日 至中路 品日 分摩 下軍 先行 往豆良尹 一作伊城南相 營地 百濟人 望陳 不整 猝出急擊 不下意 我軍擊駭潰北 十

二日 大軍來屯 古沙北城 外進攻 豆良尹城 一月六日 不克

(문무왕 8년 3월 5일 노중에 품일휘하 군사를 나누어 일부를 두릉윤성 남쪽에 먼저 보내어 군영지를 물색하던중 백제군사가 급격하니 불의에 신라군이 괴배했다. 12일에 고사비성에 주둔한 대군이 두릉윤성을 36일간이나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 發掘保護의 必要性

○이와같이 諸般記錄이 確實하고 36日間の 대격전을 치를수 있는 諸般與件(물, 군량, 지형 등)을 갖춘 百濟復興軍의 本據地로 確認되어 郷土遺跡으로 指定함은 勿論 國家史蹟地로 指定하여 保護管理할 必要가 있음.

■ 豆率城에 對한 發掘 調査 및 推進計劃

○ 郷土遺跡으로 指定 (1991年)

○ 道指定 記念物指定申請(1991年)

○ 指標및 學術調査 (1991年)

○ 史蹟地 指定申請 (1992年)

○ 發掘復元(1993年)

대흥면 임존성지 유적지를 찾아서

예산문화원

■ 대흥지역

대흥면은 예산군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예당저수지로 인해 마을이 동서로 구분되었다. 현재 대흥은 인구수보다 다른 여타의 것들로 볼 때 예산군에서 낙후된 곳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예산에 기차역이 놓이기 전까지는 예산읍보다 더 활성화 되었던 곳으로 지금의 대흥 초등학교는 예산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다.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서리에서는 청동기 유적이 다량 발견되어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성(城)에 대하여

성의 기원은 대체로 기원전 1~2세기경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집단 거주지에 설치한 방어시설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복사업이 본격화하는 4세기경에 산성으로 발전한 것 같다. 특히 삼국시대 삼국간의 직접적인 마찰 및 대립과 이해가 상충되는 곳에는 전투가 많아 산성을 구축하게 했고 평지성에 비해 산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축조되었다.

■ 임존성

봉수산의 남쪽 경사면 분지를 둘러싼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백제 때 이미 서부 제1의 중요성이었고 백제 부흥운동을 꾀한 최후의 항거지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흥군의 내분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성이다. 이곳에서 보면 발아래 펼쳐지는 예당호와 서해 안면바다, 북쪽 삼교천호, 기름진 내포평야, 차령연봉과 오서·가야의 준맥, 이 모두가 아름다운 경관이다.

1. 성의 구조와 특징

성 안은 폭 7~8m의 내호(內壕)가 둘러져 있고, 성의 둘레 2.5km 높이 25m 폭 35m인 석

1. 성의 종류

◆ 축성 재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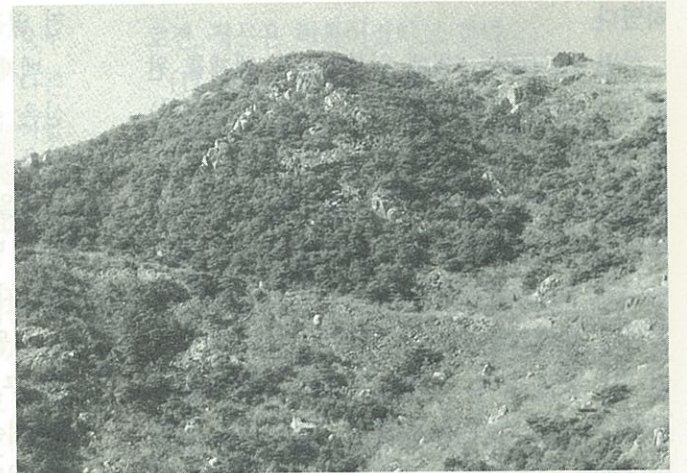
- (1) 목책성 : 목책(나무를 땅에 박아 가로 세로로 엮어서 만든 담)을 둘러 방어시설을 한 것으로 성곽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조선시대에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 (2) 토성 : 토성은 석성과 함께 우리나라 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목책성과 함께 고형식에 속한다. 석재의 운반이 어려운 지형에서는 토성이 축조되었다. 토성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 널리 유행하였으며, 조선 초 한양 도성도 토성이다.

축으로 내면은 토석혼축으로 내탁(內托)을 하였다. 성의 네모퉁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곳보다 약2m 정도 더 두텁게 축조하였고, 성의 좌우에는 성문의 일부로 추정되는 석축구조가 남아있으며 남문지와 북문지가 있다. 성내는 완만한 분지이고, 평지를 이루는 계단식 건물터와 산정인데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남쪽 성벽에는 수구(水口 : 폭70m, 높이30m)가 있어서 성내의 빗물을 이 수구를 통하여 배수하기 위하여 도랑(폭60m, 길이 90m)이 있고 그 위에 판석을 덮었다.

임존성은 대책(大柵)과 소책(小柵)이 있었던 것으로 소책은 임존성의 동북쪽에 있는 조선시대의 사직단(社稷壇)의 외곽석축으로 추측된다. 임존성은 서부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성으로 현장에 올라서 그 위치와 산세, 축조를 살펴보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2. 성의 역할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망(AD.660)한 뒤 달솔 복신·스님 도침·장군 흑치상지와 지수신등이 중심이 되어서 부흥의병을 일으키던 그 거점이 임존성으로 험준한 산성이라 수비



에는 유리하나, 백제 전역에서 일어난 전체부흥군을 통솔하기에는 불편이 많았으므로 복신과 일본에서 돌아온 풍왕등은 임존성의 남쪽 30리쯤 거리인 주류성(흥성 장곡면)을 근거로 하였다.

만 삼년간 계속된 항전에서 백제 전역에서 200여 성을 회복하니, 점령군이 장악한 지역은 당나라군 일만 명과 신라군 칠 천명이 수비하고 있는 사비성과 웅진 성뿐이므로 백제 부흥운동의 완료단계였다. 그러나 지휘부의 내분이 있어서 복신은 도침을 죽이고 풍왕은 복신을 죽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나라 장수 유인궤는 “백제의 명장이 죽은 마당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하여 신라 문무왕이 직접 거느린 김유신등 28장군의 군과 합동하여 반격

- (3) 석성 : 돌을 쌓아 성벽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 나라 성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다. 석성은 초축당시부터 석성인 경우도 있으나 처음에는 토성이었던 것을 석성으로 개축하기도 했다.
- (4) 토석혼축성 :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하여 성벽을 만든 성으로 석축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산성은 대부분 바깥쪽에서 석축을 이루고 있으나 안쪽에는 토사와 잡석을 채워 비스듬히 쌓아 올렸다. 토성의 경우도 백제의 익산토성은 토석혼축성이다.
- (5) 전축성 :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축성한 것으로 조선 세종

년간에 전축성이 행하였으며, 정조때 축성된 수원성 일부가 벽돌로 축성되었다.

◆ 목적에 의해서 행정적인성과 군사적인성으로 나뉘어진다.
◆ 거주 주체에 의해서 도성(내성+외성), 궁성, 행정성, 읍성으로 나뉘어진다.

◆ 지형에 의한 분류

- (1) 산성 : 산에 위치하는 성으로 성벽이 산지를 둘러싼 모양에 따라 테피식, 포곡식, 복합식으로 나뉘어진다.
- ① 테피식 산성 : 성의 축조 지형이 산의 정상중심으로 하여 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 되게 한바퀴 둘러쌓은

하였다.

한편, AD.663년 8월에 일본수군은 백제를 원조하기 위해 백사(白沙-당진 석문리 장고항)에 도착하여 임존성과 주류성의 백제 병력과 합류하기 직전이었고, 이때 사비성과 웅진성에 고립되어있는 자국군을 구조하기 위하여 당나라 도독 손인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산동을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남하하고 있었다. 드디어 8월 27일 양국 수군은 차돌배기-백석촌(白石村)과 웅포(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앞 장암 바다에서 격돌하였다. 이때, 일본 내원군을 영접하기 위하여 8월 13일 주류성을 떠나 백석촌까지 몸소 나와있던 풍왕과 일본장군들은 자군의 절대우세한 병력을 믿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적은 도망칠 것이다.”하여 조수의 물때와 풍향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시도한 반면 열세인 당나라 군사는 굳게 결집하여 방어에만 치중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군은 크게 패하고 풍왕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이 해전에서 일본과 당 양군은 백석촌 앞바다(백촌강-백강)에서부터 지대포(只代浦)와 손량(당진군 고대면 장항리)에 이르는 좁은 만(灣)에서 이틀간 네 번의 회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이 참패를 하였다. 당의 화공으로 일본 배 400소를 불태우니, 하늘은 불타는 연기로 덮이고 바닷물을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 이 해

전 열흘(9월 7일)후 주류성도 함락되었다.

백제의 수령인 사타상여와 흑치상지와 지수신은 주류성이 함락되자, 다시 임존성에서 항전을 계속하였고 신라 문무왕은 10월 21일 주류성을 공략에 참여한 병력을 북쪽으로 회군시켜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 임존성을 공격하였지만 소책을 점령하였을 뿐 이기지 못하고 11월 4일 공격을 중단하고 경주로 귀환하였다. 구 백제영역을 단독으로 영유하게된 당군은 계속 임존성을 공격하였지만 지세가 험하고, 성도 견고한데다 양국의 저장도 많아서 항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러자 당의 태종이 초서(招書)로 이들을 회유 마침내 사타상여와 흑치상지는 항복을 하고 지수신은 계속항전하였다. 이때 항복한 장수 흑치상지에게 당의 병력을 공격하게 하였다. 지수신은 전에 동료였던 흑치상지의 공격을 받게되자 삶의 무상을 느끼며 고구려로 망명하므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 묘순 바위에 얹힌 전설

임존성의 가장 낮은 지대는 대흥면 남마사리 연한 서남쪽 성곽인데 이 부근에 슬픈전설이 담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묘순이는 옛날에 이 산성에 쌍둥이 남매로

것을 말하는데 마치 머리를 두른 것 같다하여 테뫼식이라 하고 멀리서 보면 시루에 흰띠를 두른 것같다하여 시루성이라고도 한다. 이 테뫼식 산성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축성년대가 오래된 것이 많으므로 소규모 산성으로 단기 전투에 대비한 성이다.

② 포곡식 산성 : 성안에 하나 또는 여럿의 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것으로 규모가 테뫼식보다 크다. 성의 내에 水源이 풍부하고 활용공간이 넓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노출도 테뫼식보다 훨씬 적다. 장기 전투에 사용된 성으로 테뫼식 산성에서 점차 포곡식 산성으로 축조되거나 규모를 확대하면서 포곡

한 경우도 있다.

③ 복합식 산성 : 성의 내에 산꼭대기와 계곡을 공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일부는 테뫼식 산성이고 일부는 포곡식 산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로 이 산성은 일정 한 규모이상의 산성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모가 큰 산성이나 도성이 이에 해당한다.

(2) 평지성 : 평지에 축성한 성으로 평면이 방형인 경우가 많고 벽 외부에 해자를 구비한 경우도 있다.

(3) 평산성 : 구릉지와 평탄지를 각기 일부씩 포함하고 있는 지세에 축조된 성으로 해미읍성과 수원성이 이에 해당한다.

태어난 누이의 이름이다. 백제의 풍습에 오누이가 쌍둥이로 태어나면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놀이하여 죽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 남매로 하여금 힘과 재주를 겨루게 하여 지는 편이 죽도록 작정을 했는데 삼일동안에 묘순이는 돌을 가져다 성을 쌓고, 오빠는 서울을 다녀오게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될 되었는데 딸의 성 쌓는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초조한 나머지 계획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딸을 불러 딱딱한 콩이 든 밥을 먹게 해서 아들을 이기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딸 묘순이는 바위 속에 가두어 죽었다는 전설이다.

임존성은 동서 북이 지대가 높고 서남쪽이 지세가 낮아 성안의 물이 묘순이 바위 근처로 모이게 되어 묘순이 바위 부근에 물을 많이 가두어 놓으므로써 서남쪽으로 기어오르는 적을 물을 이용해 몰살시킬 수 있는 수공식성책(水攻式城柵)을 쌓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 대련사

도침스님이 백제부흥의 큰 뜻을 세우고 계곡의 위쪽에 창건하였다. 여지도서에는 큰 절(법당 3칸, 선당 5칸, 승당 5칸, 복전 5칸, 향로전 3칸, 정문12칸)로 기록되나 지금은 복전, 향

로전, 정문은 허물어졌다고 한다.

(1) 원통보전(圓通寶殿)

대련사의 본전으로 서기 1750년에 그려진 아미타불의 탱화가 보관되어 있다.

(2) 산신각 - 누구의 도침스님이 긴 창을 빗겨 들고 날렵한 차림으로 서 있다.

(3) 5층석탑 - 작자미상, 고려말 탑으로 추정 산신각 앞을 지나는 길을 따라서 700여m 오르면 능선을 쫓아 석축한 옛 성곽이 연하여 있다. 옛 성곽의 정문자리에 들어서면 성곽을 따라 군마의 조련 장으로 쓰여졌을 천여 평의 평지가 보인다.

■ 사직단(社稷壇)

국토와 오곡의 신을 제사하는 단으로 봉수산아래 상중리의 중단부락(中壇部落) “사직골”에 있다. 백제 때의 소재인 작은 성지(城地)안에 단지(壇址)가 있다. 이 소재의 서쪽 30~40m지점에 백제토기의 가마터가 있으며, 동남쪽 40~50m 하록(下麓 - 아래쪽 산기슭) 지점에 또 다른 사지(祠地)가 있는데 이는 여지승람에 의하면 소도독사로 보여진다.

2. 성의 축성 요소

(1) 성문

① 개거식 : 성문의 개구부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성문의 개구부 폭,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다. (홍성의 동헌)

② 평거식 : 성문의 양쪽 벽석을 쌓고 그 위에 장대석이나 판석을 걸쳐 네모진 모양의 개구부를 낸 형태

③ 홍예식 : 평거식과 형태는 같으나 개구부의 윗 부분을 둥글게 홍예(무지개)모양으로 한 형식

④ 현문식 : 성문의 개구부가 설치된 위치가 일반 성문의 출

입구와는 달리 성벽의 일정 높이에서부터 시작되는 형식으로 일명 다락문형식이라고 한다.

(2) 옹 성 : 성문을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한 이중 성벽을 말한다.

(3) 성벽

(4) 성내시설 : 생채, 여장, 치, 각루, 해자 등이 있다.

안흥진성 (安興鎭城)

태안문화원

1) 동 문

동 문은 제1 봉우리의 남측 기슭에 위치한다. 다른 세 군데의 성문과는 달리 홍예문(紅霓門)의 형식을 하고 있는데 좌측(북쪽)의 유축

부분은 붕괴된 상태이지만 우측(남쪽)의 유축 부분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북측 부분은 잘 가공한 화강암 무사석(武沙石)으로 축성하였는데 벽돌처럼 면이 고른 무사석을 12단 쌓아 유축부분을 구축하고 있다. 동문의 출입구는 지면위에 무사석을 수직으로 5단 쌓은 다음 그 위에 7매의 반원형 이용하여 홍예를 틀고 있다. 좌측의(북쪽) 유축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사석을 이용하여 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현재 전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동문 출입구 옆에 무너져 있는 흙더미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자리한 안흥진성은 태안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일뿐만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충청남도 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성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6년에 축조된 것이다. 안흥진성에는 동, 서, 남, 북에 각각의 성문이 배치되어 있다. 성문이 배치된 곳은 지형이 가장 완만한 곳으로 지금도 성의를 연결하는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즉 안흥진성은 네개의 산봉우리를 에워싸면서 축성되었는데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능선상에 각각의 성문을 배치하고 있다.

속에서 많은 무사석이 섞여 있어서 남쪽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유축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출입구 안쪽의 성벽도 역시 무사석

으로 축성하고 있는데 외벽에서 24m까지만 남아있다. 지형적으로 볼때 원래는 동문의 출입구도 다른 지역의 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출입구의 안쪽 길이가 5m이상에서 붕괴되며 그 절반 정도만 남아 있다.

동문 남쪽의 성벽은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성문 유축부 북쪽의 성벽은 우측부와 약 120°의 각도를 이루면서 직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성문 주변의 성벽을 이와 같이 축성한 이유는 모두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문의 남쪽과 같이 성벽을 안으로 휘어지게 한 것은 적대(敵臺)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북쪽과 같이 120°의 각도로 성벽을 축성한것도 성문을 향해 달려오는 적을 양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 문

서문은 제2봉우리와 제3봉우리 사이의 평지에 위치해 있다. 바다와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성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곳을 주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성 성문에 비해 원형을 많이 잃고 있으며 2)서문은 제2봉우리에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성벽에 이어지고 있다.

서문의 출입구에서 약 15m 앞쪽부터 성벽이 조금씩 두꺼워 지다가 10m 앞쪽에서 부터는 44m가 되어 유축부를 형성하고 있다. 서문의 유축부 상면은 최근에 보수한 것인데 보수 전에도 유축부의 너비는 44m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에서 10m 전방부터 성벽의 폭이 넓어져 유축부를 형성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부터는 축성에 사용된 돌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 지점부터는 길이 100cm 두께 50cm정도의 대형석을 이용하여 성벽을 구축하고 있다. 출입구를 향하여 경사진 지역이기 때문에 수평쌓기를 하고 있다. 수평쌓기를 하지 않았다면 출입구를 향해서 돌의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성문이 쉽게 무너졌을 것이다.

출입구는 길이 100cm 두께 70cm 내외의 대형석을 4-6단 쌓은 다음 그 위에 다듬은 화강암 장대석을 가로 걸쳐서 평거식으로 만들었는데 폭 2m 높이 27m 안쪽의 길이 56m의 크기이다. 장대석은 4개가 가로 엮어져 있는데 안쪽 2개는 최근에 보수했다.

출입구 안쪽의 길이는 57m인데 길이 120cm



안흥진성 성안

내외에 두께 80cm 정도의 대형석을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출입문 오른쪽의 유축부도 길이 100cm 두께 70cm 내외의 대형석으로 구축하였으며 돌과 돌사이에는 주먹 크기의 작은 돌로 꼼꼼히 메우고 있다. 큰 돌을 사용하여 유축부를 튼튼하게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 문

남문은 제3봉우리와 제4봉우리의 사이의 낮은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 성문은 출입구 위쪽에 다듬은 화강암 정대석을 가로 걸쳐서 만든 평거식이다.

유축부의 출입구 그리고 유축부 위의 문루터(門樓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축부는 출입구를 중심으로 왼쪽(서쪽)과 오른쪽(동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왼쪽의 유축부는 남벽과 120°의 각도로 연결되고 있다. 성벽과 유축부를 이렇게 연결 시킨것을 동문과 마찬가지로 성문에 접근해오는 적병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함에서라고 할 수 있다.

4) 북 문

북문은 제1봉우리와 제2봉우리 사이의 낮은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 성문은 출입구 위쪽에 다듬은 화강암 장대석을 가로 걸쳐서 만든 평

거석이다. 육축부의 출입구 그리고 육축부 위의 문루로 나누어 살펴 보면 육축부는 출입구를 중심으로 왼쪽(동쪽) 오른쪽(서쪽)으로 나누어 볼수있다. 왼쪽의 육축부는 제1봉우리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성벽과 이어지고 있는데 성벽과는 달리 맨 밑에서 부터 큰 돌로 축성하고 있다. 밑에서 부터 25m 까지를 크기 50~70cm 두께 30~40cm 정도 되는 대형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큰 돌을 이용하여 축성한 높이는 출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져 출입구 바로 옆에는 밑에서 부터 정사부 까지를 모두 이렇게 큰 돌로 축성하고 있다.

출입구 우측의 육축부도 길이 100cm 내외에 두께 50cm 내외의 큰 돌을 이용하여 축성하고 있다. 밑에서 부터 2m 높이까지를 이렇게 축성하고 있다. 출입구는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4~5단 쌓은 후 그 위쪽에다 다듬은 화강암 장대석을 가로 걸쳐서 평거식으로 구축하였는데 너비 140cm에 높이 240cm다. 출입구의 안쪽은 길이 100cm 내외의 두께 50cm 정도 되는 길쭉한 돌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는데 안쪽 길이는 50cm다.

육축부 위에는 경성루(傾城樓)라고 하는 문루가 있었던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실제로 육축부 위에는 문루가 있었을 만한 공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의 규모나 건물 한칸의 크기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 동원된 인원

왕의 명을 받은 충청감사는 즉시 해미 덕산 예산, 당진, 면천, 홍주, 결성, 보령, 남포 서천, 한산, 임천, 홍산, 청양, 청주, 충주 등지의 18개 읍면이 이에 동원되어 10여년만에 축성되어 240년간 내려오다 조선조의 고종31년 동학혁명 때 성내의 건물이 일부 타버리고 이에 따라



안흥진성 성박

성곽은 자연히 폐성되고 말았다. 그후 광무(光武) 5년 (1901)에 일부 남은 건물을 뜯어다 태안군청과 그 부속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였는데 그 규모를 살펴보면

동헌(東軒·책실(冊室)·내아(內衙)·내관청(內官廳)·외관청(外官廳)·비자청(婢自廳)·막비청(幕裨廳)·중방청(中房廳)·감관청(監官廳)·통인청(通引廳)·급창청(及唱廳)·관노청(官奴廳)·사령청(使令廳)·혈수청(歇守廳)·작청(作廳)·형리청(刑吏廳)·장교청(將校廳)·대도안청(大道案廳)·교련청(敎練廳)·능로청(能櫓廳)·장대(將臺)·영사대(永思臺)·연습대(練習臺)·흥학대(興學臺)·객사(客舍)·홍살문(紅箭門)·오리정(五里亭)·대변정(待變亭)·육모정(六模亭)·팔모정(八模亭)·검소루(劍嘯樓)·폐문루(閉門樓)·제승루(制勝樓)·망해루(望海樓)·대장막(大將幕)·중군막(中軍幕)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안흥진성의 동문을 수성루(守城樓) 서문을 화홍루(華紅樓) 남문을 복파루(伏波樓) 북문을 경성루(傾城樓)라 불렀다. 그러나 기록에만 있을 뿐 실제로 이들이 성내의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95년 3월에 서쪽의 루각인 화홍루만 복원하여 보호되고 있다.

영탑사 금동삼존불

당진문화원

중앙에 여래상을 본존으로 하고 그 좌우에 각각 보살상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불 형식이다. 특히 삼존불 형식 가운데서도 좌우의 협시보살이 중대의 좌우쪽에서 뻗어나온 연

줄기 끝에 피어난 양련좌에 앉아 있어 일경삼존(一莖三尊)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앙의 여래상은 연꽃줄기가 아닌 상, 중, 하대를 갖춘 육각형의 연화대자에 앉아 있어 전형 양식에서는 벗어나 있다. 삼존불과 대좌는 함께 주조하였는데 현재 보존상태는 매우 좋다. 이 금동삼존불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이다.

세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본존은 앉아있는 자세인데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모습이다. 즉 긴 상반신에 비해 무릎너비가 좁은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상체 또한 머리부분에 비해 두 어깨는 조금 좁아 전체적으로 보면 상

- 소재지 : 면천면 성하리 569
- 지정내용 : 보물 제409호 (1964. 9. 5지정)
- 규모 : 높이 51cm
본존불 높이 27.5cm
좌협시 17.8cm
우협시 18cm
- 시대 : 고려
- 재료 : 금동도금

체는 가늘고 긴 느낌을 주고 있다.

본존여래의 머리는 나발(螺髮)이며 육계는 크고 넓적한데, 중앙에 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넓적한 모습인데

반쯤 뜬 눈, 우뚝한 코, 작은 입 등이 어우러져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손모습을 보면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왼손을 위로하여 지권인(智拳印)을 맺고 있다.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 곧 위, 아래가 뒤바뀐 셈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불국사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 그러하듯 이와 같이 손의 위치가 뒤바뀐 지권인을 종종 볼 수 있다.

옷차림은 양어깨를 모두 감싼 통견의(通肩衣)이며, 옷주름은 평행계단식 주름을 이루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왼쪽어깨에서 내려온 가사자락을 왼쪽가슴 부근에서 나비 매듭처럼

뿔은 가사끈의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식으로 중국 송나라시대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좌우협시보살은 본존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나타내고 있다. 손과 발의 위치만 다를 뿐 모든 면에서 닮아 있다. 화려한 보관, 기슴을 장식한 영락, 몸을 감싼 천의자락 등 고려불화에서도 볼 수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귀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는 허리는 바짝 조여 맨 천의자락 그리고 앞쪽으로 불룩 솟은 배로하여 더욱 가늘어 보이며, 역시 이 보살상들도 긴 상반신에 비해 두 무릎이 왜소하다.

본존여래는 상대, 중대, 하대를 갖춘 6각형의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



하대는 앞쪽 3면에는 안상이 새겨져 있는데 밑에서 위로 솟은 꽃잎 모양의 장식은 고려시대 안상에서 나타나는 특색의 하나이다. 중대 또한 6각형이고 안상(眼像)이 투각되어 있다. 중대의 앞쪽 좌우 양면에서 각각 연꽃 줄기가 뻗어 나와 각각 좌우협시보살의 연화좌를 이루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삼존 모두 양련좌(仰蓮座)위에 앉아 있는데 연꽃잎 끝부분에 늘어진

장식표현은 상현좌(裳懸座)를 나타내고 있다.

고려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갖춘 이 금동삼존불은 영암사에 모셔진 이래로 두번의 도난을 당하는 수난을 겪어 현재는 부처님 오신 날에만 전각에 모셔지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

예산문화원

국보 49호로 지정되어 있고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에 건립정면 3칸, 측면 4칸, 형태가 장중하고 수법이 견실하고 치밀하며 목조건물중에서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최고(最古)의 것이며 최상(最上)의 것이라 한다.

벽화는 고려때 (담징화상의 작품)것과 두가지가 있음.



단오절 민속축제

아우내문화원

1. 단오의 유래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이다.

이날을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이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한 수리로 떡을 해 먹었기 때문에 수리란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또 수리란 고(高), 상(上), 신(神)들을 의미하는 고어(古語)인데 5월5일이 신의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연유된 이름이라고 한다.

단오는 초오(初午)의 뜻으로 양수(陽數) 즉 기수(奇數)의 달과 날이 같은 수로 겹치는 것을 중요시 한데서 5월5일을 명절날로 한 것이다.

중국 「古書類」와 우리나라 「東國세시기」 및 「史書類」 등의 문헌에 의하면 수릿날은 일년중 큰 명절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5월5일을 단오절로 정하고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날을 경축일로 삼아 거국적인 잔치

를 베풀어 흥겹게 지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여자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몸에 이롭다하여 창포 삶은 물을 먹기도 했으며 목욕재계후 음식을 장만하여 창포가 무성한 못가나 물가에 가서 물맞이 놀이도 하며 단오장이라하여 붉고 푸른 새옷을 입고 창포뿌리를 깎아 붉은 물을 들여 비녀를 만들어 꽂았다고 전한다.

2. 행사의 목적

단오절을 축제의 날로 승화 시킴과 동시에 우리고유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문화의 뿌리와 건전한 정신문화를 견고히 하고 아름다운 우리 민속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3. 기본방침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을 원형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온 시

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적 행사 추진으로 시민화합을 도모코자 한다.

4. 행사개요

- 기간 : 1998. 5. 26~2. 27(2일간)
- 장소 :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아우내장터
- 행사종목 : 민속씨름의 5종목
- 주최 : 아우내문화원
- 후원 : 천안시

5. 행사진행

- 첫째날(5. 26)
 - 농악, 사물놀이 공연
 - 민속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팔씨름, 노래자랑
 - 국악 및 고전무용단 초청공연
 - 시상
- 둘째날(5. 27)
 - 그네뛰기(개인전)
 - 시상

6. 행사결과

선조들의 놀이문화를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은 물론 문화를 뿌리를 견고히 하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올해는 특산물 전시장을 마련하여 우리고장의 특산물 홍보를 겸하였는데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민속놀이를 통해 시민의 화합과 결집의 한

마당 축제로 승화발전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염창순 국악단과 죽심회 국악단을 초청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가락과 고전무용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개회식



그네뛰기



죽심회고전무용단 공연

성환배축제

성환문화원

성 환 배 축제는 지난 95년 성환배의 홍보를 목적으로 성환청년회의소 회원들에 의해 처음 개최되었다. 성환의 신고배는 1986년부터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일본등에서도 수출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전라도 지역에 수해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해 성환지역의 수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95년까지만 해도 “배하면 나주배”라는 인식이 전국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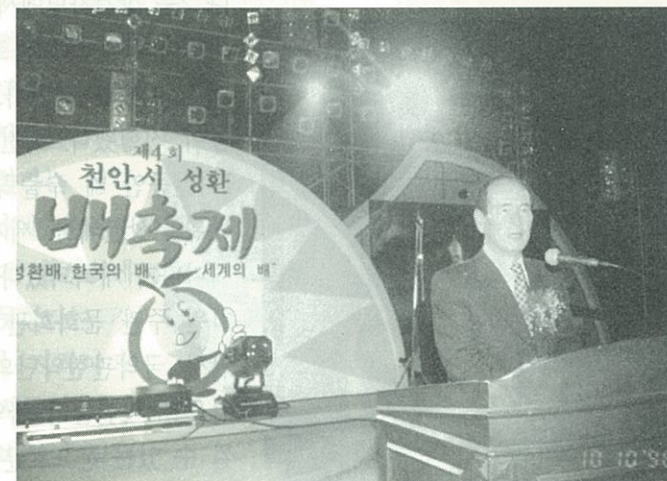
우수한 품질의 배를 생산해 농고도 홍보부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성환청년회의소는 성환배를 주제로 축제를 만들기로 하고 천안 배원예조합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천안의 성환 배 축제는 배 수출시기인 매년 10월 중순경 개최되며, 96년 2회 축제부터는 성환청년회의소와 천안 배 원예조합의 공동주최하에 천안시와 성환농협, 성환문화원, 천안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개최한다.

성환 배 축제의 역사는 얼마 안되지만 그동안 축제를 통한 홍보로 성환배의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매년 축제기간에 선발된 성환배 아

가씨가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의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제4회 천안시 성환배 축제

제4회 성환 배 축제는 10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2일간에 걸쳐 천안시문예회관과 문예회관 주변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째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성환문화원 주관으로 관내 초·중학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고장 자랑 글짓기, 애향의식 고취 그림그리기, 경로효친 회화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에 길놀이 퍼레이드



를 진행, 천안시문예회관을 출발해 성환읍내를 한바퀴 돌며 홍보풍선을 나눠주는 등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저녁 7시에는 지역 인사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개막식의 막이 올랐다. 개막식 후 천안시문예회관 야외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성환문화원 주관 성환배 가요제 및 시민음악회가 불꽃놀이와 함께 화려하게 펼쳐져 지역민들의 환호성을 자아내게 했다. 축제의 주요행사가 배치된 둘째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성환배 잔치 한마당, 세미나, 국악 공연, 도전 내가 최고, 배품평회 시상식 등이 펼



쳐졌으며 오후 7시에는 배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배아가씨가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속에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성환배 잔치 한마당'은 20여 작목반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1부 체육대회와 2부 장기 자랑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체육대회에서는 나도 생산왕, 세계화 물결, 전략전술 줄다리 기, 오리발 릴레이 날으는 통닭등의 이름으로 마련된 각종 경기를 통해 작목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관람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해 즐거움을 더했다. 2부 장기자랑에서는 『배 빨리 깎고 먹기대회』와 『배 먹고 멀리 던지기』등 배를 이용한 간단하고 재미있는 게임 등이 진행됐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1시간동안 배 수출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성환배를 세계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오후 2시 성환문화원 주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천안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펼쳐져 가을날 시민들이 국악의 대향연을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프로그램으로 자

리매김했다. 오후 6시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장기자랑에 이어 올해 가장 큰 배를 생산한 대과상(수상: 영농법인 대지회소속 박무일)과 가장 우수한 품질의 배를 생산한 품평상(수상: 영농법인 울금회 소속 김영준)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한편 축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야외 광장에는 놀이마당을 만들어 로데오, 빼에로, 하일리 워커, 동물캐릭터, 아트 페인팅등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배 품평회 전시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성환문화원 꽃꽂이 반에서 2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꽃꽂이 전시회와 서예작품전이 전시되어 축제 본 행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매년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펼쳐지는 『성환 배아가씨』선발대회에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배아가씨 진·선·미와 포토제닉, 우정상등 5명의 배아가씨를 선발했다.

배 축제에 맞는 문화행사 발굴개발이 필요하다. 천안에서는 9월초에 『임장 거봉포도축제』가 개최되며 9월말에는 『천안 삼거리 문화제』가 열린다. 그런데 각 축제에서 선보이는 문화행사는 거의 비슷하다. 포도 및 배 축제의 경우 우선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부 기획사에 용역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런 기획행사들의 대부분이 오락성과 소비성이 짙은

행사여서 본 행사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축제의 주최측인 천안배원예조합은 성환배의 품질 우수성은 이미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배축제를 농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즐기는 농민들의 축제, 현재의 소비위주 행사를 줄이고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산의 인삼축제가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의 국내외적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서 인삼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천안 성환의 배축제는 성환배의 우수성과 배생산지로서의 성환(천안)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금산인삼축제에 가면 금산인삼의 약효를 전하는 전설이 어린 진악산 산신제 인삼사진전, 인삼 장사씨름대회, 인삼요리 솜씨자랑등 인삼과 관련디 문화행사들이 열린다. 또 지역향토 문화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천안의 성환배 축제도 향토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환배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지향

천안문화원장 민 병 달

1.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

이제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 왔던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에 서 있다. 19세기가 그랬듯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현상으로든 세기말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는 학자나 종교인들도 없지 않다.

이런 세기적인 전환기적 소용돌이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상의 부재, 인간경시의 극대화현상에 따라 문화예술의 힘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레저문화와 향락문화 등 기형적인 '즐김'이 문화라는 이름을 달고 예술영역을 침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함께 고유영역의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 예술성이 담겨있는 사상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전환기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 사상을 담은 양질의 예술성이 담긴 문화예술이 창출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정책은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서의 양질의 예술성이란 전환기적 세기말 현상속에서 도덕적으로 회복하는 문화운동까지를 포함한다.

2. 대중을 예술향유의 장으로

이제까지의 우리 문화예술 정책은 관료주의적 예술행정의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실리 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고, 눈에 띄는 외면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 예술향유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선결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향유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예술활동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장의 문턱은 너무 높다. 고급예술은 더욱 고급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고급예술에서 소외되는 대중의 상실감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조적으로 유행지향적인 말초적 문화에 내맡기도록 만들었으며 도덕과 윤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소외된 대중들을 예술향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문화의 위상정립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 편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대립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의 공동화현상과 함께 폐쇄적 냉소주의와 퇴폐주의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정신을 떠받치는 문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시당한 채 잘 못되고 뒤틀린 정치·경제 구조와 사회현상이 마치 전부인것 처럼 개인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의 방향은 역설적으로 문화가 정치·경제등과 대등한 비중으로 제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할때 내실화 욕구가 강해지면서 국민들의 향수욕이 강해질 것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향유인구의 급증과, 지방화시대 속에서 서로간 조화와 경쟁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는 경향 또한 강해질 것이다.

4. 문화예술 의식의 균형육성

자생적 자발적 창조지지를 지원하는 제도적여건 형성으로써, 정책적 편향성이 지양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예술행정내지 예술경영의 전문성의 결여를 개선해가는 제도 입안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우리의 문화행정은 창작과 향유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향유자들을 위한 정책배려가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집단간의 의식의 격차를 완화, 접근 시켜주며, 견해차이를 조정하고 소통시켜 주는 전문인의 육성이나 자격인정을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각종단체(신문사, 방송국, 여러사회봉사단체 포함)의 문화행사가 명실상부하지 못한채 입안자의 의도와 이익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말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상품화되는 경향과 함께 순수 인간성 회복을 주창해야 할 사명감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가 가장 영원한 문화라고 볼때, 우리 문화예술의 정책방향은 사람답게 사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자기만족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려면 현 상황을 확연히 깨달아 과대포장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 아직도 문화예술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 이기에 사람답게 사는 비전의 제시를 통해 희망찬 세기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참된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

문화에 대한 칼럼

대천문화원장 윤원석

文化의 定意

외 국자본과 문화가 물밀 듯이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 문화가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화란 문명의 꽃이다. 인간이 자연속에서 살아가면서 순응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면서 얻어낸 행동양식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

종교라거나, 경제라거나, 사회라거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산물과 유적을 만들어 문화재라는 증거물로 후손들에게 전하여 알리고 있다.

특히 희귀하여 보존히 필요한 것을 박물관에 모아 놓는다.

이런 문명의 꽃들이 문화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모든 것이 문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문화나 남의 문화를 통틀어 인류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어떠한 중심과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傳統과 文化財

문화를 이야기함에는 당연히 전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때는 전통이 문화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정제된 산물이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불러진다.

그러면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가 전통이냐 하면 그것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든다.

보이지 않는 어떤 벽찬 존재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 전통이다. 오늘의 문화가 쌓여가면서 내일의 전통이 되어 가고 거기서 얻어지는 귀중한 산물이 문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 가는 행동양식들이 후세에 남겨지는 문화유산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문화는 좀 더 가치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미묘한 것은 결국 한몸일 수 있지만 역사는 거대한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 문화는 항상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문화현상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거기서 또다른 형태로 변형시켜 나가는것이 발전이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수용이란 커다란 창고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文化와 受用論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여 쓴다는 의미이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전통과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수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나온 것만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IMF체제하에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 수용론이 아닐까 한다. 어차피 내가 남이 될 수 없듯이 남의 것을 수용한다고 내가 남이 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믿음의 출발이다.

이것은 요즘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제2건국 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문제점이 노출된 마당에 기초부터 더욱 튼튼히 새롭게 시작자는 것이 구조 조정이요, 제2건국이라면 굳이 국수주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의 문화의 장점을 과감히 흡수하는 수용의 묘를 살렸으면 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견고한 반석위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文化家族의 使命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전통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오면서 오해를 하고 지냈다. 우리 전통, 우리 문화하면서 포용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기술을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때는 너무 나의 것을 과대 포장하고 남의 것을 배척하는 행동을 해 올 때가 많다.

어차피 인류라는 커다란 문화 공동체를 인정하고 출발한다는 인식이라면 이런 소극적인 논쟁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화 현상들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기왕에 전면적인 개방과 수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하다. 중심에 서서 중심을 잡아 주고, 무게를 달아 가치를 정해 주고 이끌어 나가며 보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거시적인 아이টে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원은 지역 문화원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여타의 문화 현상을 보다 긍정적인 수용속에서 피드백(feed back) 할 때 다시 독특하고 발전된 문화가 번성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작업의 선봉에서 뛰는 것이 IMF와 그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 가족들의 모습이 아닐까?

『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원에 맡겨야...

충남도지회장 김 현 구

새로운 문화공간 확충방안으로 추진중인 문화의 집 조성은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확충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 널리 조성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시급한 과제임에도 기능이 유사한 문화공간의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각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 창조와 육성을 위하여 제한적인 재정형편과 부족한 인력등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는 문화에 대한 열정과 자기 문화에 대한 자의식(自意識) 하나로 문화사회교육, 문화예술향수,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연과 전시등 각종 지역문화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는 우리 문화원이 좀더 충분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육성과 지원에 정책적인 노력과 힘을 투

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부가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협, 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그동안 예술행정적 경험이 없는곳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예산, 정보 및 자료, 인력, 네트워크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문화의 집이 지역문화생활센터로 활성화되고 이러한 제한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을 문화의 집 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다른 문화시설에 비하여 비교적 기초자치단체에 고루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성 높은 조직으로 각 읍면동에 분원과 원장을 비롯한 임원, 운영위원, 부문별 전문위원, 분원장, 회원으로 구성되는 문화가족들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기준시설(회의실, 강당, 공연장, 전시

실, 도서실 등)과 각종 장비를 고루 갖추어 각종(문화예술활동, 문화사회교육활동)의 법정사업(法定事業)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생활 공간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문화의 집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기초단체 단위의 문화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문화의 집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최근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대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지방문화원 분원형태로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지방문화원 본원(本院)은 시·군·구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에 분원(分院)이(서산문화원은 15개 분원이 있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 분원으로 하여 지방문화원이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정책적인 우선순위로 본다.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 3~4명이 파견되어 그저 현장유지하는 차원에 머무를 것이며 그나마 전문위원을 파견한다 해도 직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문화의 집 운영은 지방문화원에 맡겨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주체성을 가지고 더 많은 가치창출(價値創

出)을 위한 경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 재원확보, 예술공동체와 연계·관련조직들간의 네트워크, 직원 전문성 확보,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문화원은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하여 문화주의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하는 문화활동, 문화를 사회의 중심가치로 자리잡게 하는 문화활동, 문화가 인간생활의 기본임을 터득케하는 문화활동,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종래의 운영의 틀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문화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관료주의적 문화행정 행태와 전시위주의 사업추진 관행은 극복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의지와 결정이 요구된다.

- 서산지역 백제사 학술회의 -

백제의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는 부성산성, 백제의 주류성은 상왕산성이다.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원장 김현구)은 1998년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관련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서산지역 백제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해준 공주대학교수, 이남석 공주대학 박물관장, 이은우 서산향토연구회장이 발제자로 나와 백제역사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태안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강동환 교사와 한서대학교 안덕임 교수, 임선빈 충남발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백제사가 도읍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백제문물의 유입경로인 서산지방이 소외되고 또한 백제사 속에서 서산지방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어 있음을 본 학술회의를 통해 밝혔다.

또한 백제의 대륙교역의 전진기지는 안흥성이 아니고 부성산성이라는 이남석교수의 발표와 백제의 주류성은 홍성설, 연기설, 서천설, 전북부안설등 많은 설이 있었으나 상왕산성일 것이라는 이은우 회장의 발표는 백제사의 새로운 발굴로 이번 학술회의의 큰 성

과이다.

슬라이드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 및 발제자들의 과학적 서령으로 그간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서산의 백제사가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한 역사적 평가 역시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참가자들은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본 학술회의에는 유상동 서산교육장, 신서균 서산시 홍보관, 서산문화원 임원 및 문화가족, 각급학교 교사, 서산향토연구회원 등이 대거 참여하여 우리지방의 백제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피력하였다.

'98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10월 24일 독립기념관 계례의 집에서 충청남도내 문화예술인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98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가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로 한마음 실내악단의 우아한 음악이 펼쳐졌으며 기념식에는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많은 지혜두 성환문화원장을 비롯한 28명이 충청남도지사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김현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은 충남의 문화예술인들이 협심하여 향토문화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IMF의 국난도 문화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므로 그 타개책도 문화에 있다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이근영 천안시장, 박유철 독립기념관장 등 충남도내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충남문화예술인대회 표창자 내역

년 도	충남도지사 표창	문화원 충남도지회장	비 고
91년	○이종찬(천안) ○박창원(온양) ○정재욱(공주) ○윤원석(대천) ○조문호(서산) ○박병하(예산) ○전옥현(서천) ○이재홍(성환) ○양인식(논산) ○김석재(당진)	○안종일(청양) ○이갑춘(태안) ○이하영(홍성) ○안용산(금산) ○최영환(아우내) ○김학준(조치원) ○김인권(부여) ○심소영(온양)	도 지 사 : 10명 도지회장 : 8명
92년	○조성민(아우내) ○황가철(홍성) ○이갑춘(태안)	○이정우(천안) ○박상의(서산) ○장 영(조치원) ○윤성의(당진) ○박건영(예산) ○심재철(성환)	도 지 사 : 3명 도지회장 : 6명
93년	○안종일(청양) ○신정교(금산)	○윤장희(홍성) ○김동수(천안) ○김길섭(서산) ○진두호(온양) ○임영수(조치원) ○류정환(태안)	도 지 사 : 2명 도지회장 : 6명
94년	○노금래(서천) ○이항복(예산) ○김현구(서산)	○김규환(당진) ○김중서(아우내) ○정해영(조치원) ○박원식(대천) ○현대수(공주) ○임두순(청양)	도 지 사 : 3명 도지회장 : 6명
95년	○임병오(부여) ○하기수(논산) ○장 영(조치원) ○안용산(금산)	○김수진(온양) ○이혜실(대천) ○강원식(서산) ○김동남(홍성) ○최영근(당진) ○이원철(청양) ○김준기(아우내) ○강정현(조치원)	도 지 사 : 4명 도지회장 : 8명
96년	○이관용(공주) ○박노을(온양) ○민영근(당진) ○전용국(예산)	○이제연(천안) ○임은정(부여) ○홍덕유(서천) ○김남수(논산) ○지해두(성환) ○이준세(대천) ○윤계동(태안) ○정양순(금산)	도 지 사 : 4명 도지회장 : 8명
97년	○강태훈(홍성) ○박원식(대천) ○정정희(당진) ○김원식(부여) ○안종철(청양)	○이정우(천안) ○고인숙(예산) ○윤길상(태안) ○주호창(홍성) ○구창완(서천) ○신좌균(성환) ○박종관(조치원) ○김준기(아우내)	도 지 사 : 5명 도지회장 : 8명

'98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 도지사상

연 번	성 명	소 속	연 번	성 명	소 속
1	김 성 진	당진문화원	6	이 경 호	예충예산지부
2	장 동 환	아우내문화원	7	윤 성 희	예충천안지부
3	임 성 만	태안문화원	8	김 건 수	예충부여지부
4	지 해 두	성환문화원	9	유 보 근	한국사진작가 협회충남지회
5	김 정 현	홍성문화원	10	박 화 응	한국연예협회 충 남 지 회

■ 연합회장 및 예충회장상

연 번	성 명	소 속	연 번	성 명	소 속
1	홍 덕 유	서천문화원	1	조 재 훈	예충공주지부
2	현 대 수	공주문화원	2	이 상 민	예충보령지부
3	박 범 열	충 청 남 도	3	김 미 양	무용협회충남지회
			4	이 현 열	음악협회충남지회

■ 문화원 및 예충도지회장상

연 번	성 명	소 속	연 번	성 명	소 속
1	길 말 숙	조치원문화원	1	김 기 완	예충천안지부
2	오 근 환	청양문화원	2	전 문 수	예충아산지부
3	박 명 미	서산문화원	3	오 태 근	예충공주지부
4	김 동 권	논산문화원	4	신 정 섭	예충보령지부
5	조 동 옥	천안문화원	5	김 종 찬	예충서산지부
6	서 명 선	부여문화원	6	이 종 연	국악협회충남지회
7	김 명 자	대천문화원	7	김 종 우	문인협회충남지회
8	김 계 환	예산문화원	8	성 윤 제	미술협회충남지회

李 灌 鎔 공주문화원장 문화훈장 받아

1926년 11월 1일생
공주에서 나서 자란 이관용 원장은
1961년 공주문화원장에 취임 36년동안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젊음을 불사른 분
이다.

1954년 공주읍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
는 이관용 원장은 문화원장 취임 5년만
에 자체 원사를 마련하였으며 백제문화
제를 개발, 전국 3대문화제로 육성 발전
시켰다.

또 문화원의 구심체로 전국문화원연
합회를 창립하였는데 앞장섰고 2·8·

12·13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공민
과의 문화교류,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
정 등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지역문화원
동에 불을 지폈다.

특히 문화원의 사회교육사업의 필요
성을 역설, 오늘날 전국의 문화원이 문
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으
며 향토문화연구소를 근간으로 백제문
화재발굴 보전에 기여한 공로는 높이 평
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관용 원장의 공
로에 보답 옥관문화훈장을 서훈하였다.

●충남문화 창간호 축서(10P) 작품해설문●

달빛으로 책 읽으니
도움줄 친구가 찾아
온 것이나 다름없고
香 피우고 名 畫를 감
상하고 品 評을 하는
데 깨끗한 말로써
도움을 삼는다

對月披書來哉益友
(대월피서래재익우)
然香品畫佐以清言
(연향품화좌이청언)

윤원석 대천문화원장 문화훈장 옥관장 수상

대천문화원 윤원석원장은 향토문화를 가
꾸는 문화의 촉매자로 문화의 산실인 대천
문화원을 설립하고 보령지역의 문화발전
을 위해 헌신적으로 1958년부터 40여년동
안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문화훈장 옥관장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1958년 usis공보원의 승인을 받아 대천문
화원을 설립하고 사재를 투입하여 현재의
대천문화원 (3층 309평 규모, 시가 8억여
원)을 건축했으며, 문화의 전당 대강당(70
평) 소강당(35평), 초현대식 음향시설 및
전시장을 갖추고 13만 시민의열린 문화마
당으로 향토문화를 가꾸어 문화창출의 초
석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인물, 지명, 문화재, 전설, 설화등
향토사를 총망라하여 대천문화원 부설 향
토사조사연구 위원회를 설립하여 애향지
1~12집을 발간하고 지역주민에게 향토사
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워 주었으
며 도시화 속에 사라져 가는 우리고장의

민속 1-3집을 발간하여 고유 전통문화를
발굴, 면면히 계승케 하는한편 내고장역사
의 현장 등 상용의례제법. 오남필경, 향토
구비문화대계 등 향토사를 집대성시켜오
는 공적을 세웠다.

또한 지역문화센터로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학교로 1996년 지정을 받아 시민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는 꽃꽂이 민요, 공
예, 서예, 한국화, 과목을 년중 상설운영하
는 취미교양강좌 및 청소년 사회교육의 일
환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토사,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강좌
를 개설하여 문화예술을 보고 직접 체험하
는 산교육장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문화예
술의 창작 의지를 키우는 미술, 서예, 백일
장, 실기대회를 비롯하여 경로효친실천 응
변대회 등 문화,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년중 전시회 및 음악회, 영화, 뮤지
컬, 등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문화공간을
마련해 문화 창달의 파수꾼으로서 문화예
술 발전에 큰 공적을 세워 왔다.

1998년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❶ 학술투문



金成允 (1948. 7. 21生)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277-9

약 력

- 1976. 2.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 1980. 3~84. 6 서독 트리어대학 정치학과 수료
- 1987. 3~현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1987. 6. 서독 자유베를린대학 졸업 정치학박사
- 1996. 9~현재 한국정책연구학회 회장
- 1998. 3~현재 충남도정 자문교수

공적개요

- 1987년부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단독저서 5권, 공저 6권, 학술논문 118편의 저술 및 강연활동과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충청남도 정책자문 교수단의 일원으로서 충남도정 발전에 기여함.
- 충청남도 개도백년사를 발간함에 있어 귀중한 역사 사진 자료 400여장의 발굴수집, 내용정리 등 사료적 가치있는 도사 편찬을 주도하여 향토문화 선양에 공로가 큼

❷ 예술투문



白圭鉉 (1952. 7. 13生)
대전시 서구 가창동 50-23

약 력

- 1976. 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1979. 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졸업
- 1980~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 1984~86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연수
- 1996~98 이탈리아 아르츠 아카데미등 연수
- 1990~현재 충남성공오페라단 단장
- 1994~현재 공주영상정보대학 이사

공적개요

- 1980년이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음악교사 배출 및 성악교육 현장연구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온 참 교육자임
- 1990년 순수민간의 충남성공오페라단을 창단하여 오페라『카르멘』,『나부코』,『이순신』을 30여회 전국순회 공연하는등 오페라 문화를 개척하는데 혁혁하게 공헌
- 교수 음악회, 오케스트라 협연, 가곡의 밤에 60여회 출연하는등 창작발표회 연주활동을 적극 주관하여 공연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함.

'98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❶ 문학투문



金明培 (1933. 10. 9生)
천안시 원성동 274-7

약 력

- 1958. 3. 공주사범대학 국문과 졸업
- 1961.~69 옥천여중,제천여고,조치원상고,천안농고교사
- 1973. 6~93. 6 안성농업전문대학 교수
- 1975. 5~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 1993. 7~현재 안성산업대학교 교수

공적개요

- 1961년부터 중·고교사, 대학교수로 몸담아오면서 후학지도에 전념함은 물론『과수원시문학회』,『호서문학회』,『충남문학』 회원으로 활약하면서 전통적인 품물과 자연을 소재로 개인시집 5권 발표, 천안문학지 11집 발간 참여등 충남시인의 긍지를 높여왔음.
- 조선조 여류시인 김부용의 추모행사 개최등 역사적인 시인 발굴에 힘써왔으며, 문예한국, 자유문학지 등의 편집 기획위원으로 활동, 충남의 문학지망생들에게 문단진출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공헌함.

❷ 교육투문



金相璵 (1935. 3. 30生)
천안시 성황동 2-37

약 력

- 1958. 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 1959. 9~706 유성농고, 병천고, 천안농고 교사
- 1970. 6~83. 2 운산중·병천중·천안여고·천안농고 교감
천안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1983. 3~98. 2 고대중·천안농고 교장, 천안교육청 교육장,
충무교육원장
- 1983. 3~현재 천안공업고등학교 교장

공적개요

- 1959년부터 교직에 투신한 이후 40여년동안 후세교육에 전념하면서 투철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으로 창의적인 교육이념 구현에 힘써옴.
- 일선 학교장, 장학사, 교육장, 충무교육원장등을 재직하면서 교육행정가로서 교육과정의 다양화, 심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으로 학생 인성지도와 능력개발, 교육의 인간화 실현으로 사고없는 학교를 조성하는데 크게 공헌함.
- 특히 모범적인 공사생활의 실천으로 만인의 귀감이 되는 참 스승상을 정립함.

'98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연수회	○ 일시 : 98. 7. 24 ○ 장소 : 천안문화원 ○ 대상 : 시, 군 축제담당자 문화원 사무국장	시·군 향토축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전통과 특성이 함축된 축제로의 발전방안 모색과 축제기획, 운영 관계자들에게 프로그램 연출기법 전수계기를 부여함으로써 향토축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승화시킴. 향토 축제의 홍보·기획물의 비교전시회 개최	
2	향토축제 프로그램 센타 운영	○ 일시 : 98. 11. 10 ○ 장소 : 예산문화원 ○ 대상 : 향토축제평가단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축제 지원육성을 위하여 축제프로그램센타를 운영하고 각 문화원의 축제에 대한 기획, 정보교환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기간과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운영의 핵심기구로 육성하기 위해 17개 문화원에 향토축제결과분석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향토축제 평가단의 사례발표 및 결과 분석회의를 개최함.	
3	향토사연구 활성화	○ 일시 : 98. 11. 24 ○ 장소 : 청양문화원 ○ 대상 : 향토사연구위원 문화원장, 임원 문화원 종사자	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며 이를 토대로 올바른 국사정립과 향토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원당 1편이상의 향토사료 연구조사 논문을 응모받아 우수논문 3편을 선정, 시상하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료발표시 사학계 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가짐	

● 지역사회 개발부문 ●



약력

- 1973. 2.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77~80 (주)서해방송국 기자
- 1980~90 KBS 전주방송국 앵커, 속초방송국 기자
- 1990~98. 5 KBS 대전방송총국 기자
- 1997. 5~현재 한국기자협회 대전·충남기자 협회장
- 1998. 3~현재 한국기자협회 감사
- 1998. 6~현재 KBS 공주방송국 방송부장

徐基祥 (1950. 4. 20生)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116/1101

공적개요

- 1977년부터 21년간을 방송기자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방송과 신속한 보도 활동으로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지역사회 관련 역사, 사회, 문화, 경제분야등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생동감있게 기획 보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가교역할의 해음
- 평소 근면성실, 정직, 청렴을 생활신조로 국민의 눈과 귀가되어 애환과 바램을 바르게 전달하고, 특히 충청도정 현안문제점과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등 발전지향적인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함.

● 체육부문 ●



약력

- 1966. 2. 휘문고등학교 졸업
- 1991. 2~현재 대웅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1992. 12~현재 박세리골프선수 후원회장
- 1995. 5~현재 공주장애인협회 후원회장
- 1995. 8~현재 충남육상연맹 회장

劉光烈 (1948. 8. 13生)
공주시 검상동 863

공적개요

- 1995년부터 충남육상연맹 회장을 맡아오면서 지역체육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충남육상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 특히 충남도가 '97전국체전 육상3위 입상과 '98전국체전 종합3위 입상등 체육선진도를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체육인임.
- 또한 장애인 후원회를 만들어 200여명의 장애인에게 생활비로 매년 2회에 걸쳐 쌀100가마, 자활대책기금 1천만원 지원 등 공주지역 장애인들에게 헌신 봉사해온 공로자임.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4	'98 충남문화 예술인대회	○ 일시 : 98. 10. 24 ○ 장소 : 천안독립기념관 ○ 대상 : 충남도내 문화예술 인 300인정도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충청 남도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 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토고유문화 창달에 기 여코자 건국 50주년과 뜻을 같이 하여 충남문화예술인대회를 주최 하였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비롯 한 충남문화예술인 300여명이 참 석하였으며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많은 11명에게 충남도지사상이 수 여되는등 28명에게 작중 상이 수 여되었다.	
5	문 화 원 종 사 자 교 육	○ 일시 : 98. 5. 27 ○ 장소 : 천안문화원 ○ 대상 : 사무국장, 경리, 회계담당자, 간사	충남도내 17개 문화원 업무의 통 일을 기하고 업무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회계업무처리 방법과 예산 편성, 집행요령, 계약사무처리, 세 무관련 업무등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여 문화원과 감독관서간의 상 통된 운영체제로 개선함을 목적으 로 전국문화원 연합회와 충청남도 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였으며 도지 회 산하 17개 문화원 사무국장, 경 리, 회계담당자등 문화원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함.	
6	문 화 시 민 운 동 강 좌	○ 일시 : 98. 12. 22 ○ 장소 : 천안문화원 ○ 대상 : 각시군 일반시민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떨칠 수 있는 기회로 민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품격있는 민족문화를 가꾸 고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 시민운동추진협의회와 협조하여 충남도지회 산하 17개 문화원을 통해 문화시민운동의 전개를 위한 요원 60여명을 선발하여 12월 22일 천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문화 시민운동 강좌를 실시하였다.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7	문 화 원 종 사 C U G 교 육	○ 일시 : 98. 6. 23 ○ 장소 : 한남대 공과대학 ○ 대상 : 문화원 종사자	21세기 문화의 시대, 정보화 시 대에 부응하고 지방문화원의 정보 전산화를 촉진하고 연합회에서 운 영중인 CUG의 전면실시에 대비하 여 98 지방문화원 종사자 CUG교 육 실시	
8	도 내 원 장 단 월 려 회 및 임 원 회	○ 총회 : 2월중 개최 ○ 운영위원회 격월제 (3, 5, 7, 9, 11) ○ 원장회의 격월제 (4, 6, 8, 10, 12) ○ 국장회의 상하반기 2회 (3, 9월중)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와 기능보 강 및 문화원간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회의를 정례화하여 도지회의 사업수행 방향과 방법등을 논의하 고 이로써 도지회의 연간 사업계 획이 차질없이 수행, 효율적 추진 이 가능함.	
9	충남문화간행	○ 일시 : 98. 1~12월중 ○ 규격 : 4×6 배판 ○ 부수 : 1,000부 ○ 내용 : 문화원활동상황 향토문화계도 ○ 보급 : 무가보급 (전국문화원, 기관, 단체, 향토사연구소등)	97년에 이어 『충남문화』 제2집 발간. 『충남문화』는 충남도의 문화 시책, 도내 각종 문화행사와 도지 회 및 각 문화원의 년간 활동상황, 향토연구 조사 활동등 다양한내용 을 수록하였으며 이는 충남 향토 문화사에 귀중한 자료로써의 가치 를 가지고 있음을 자부함.	



향토사 연구발표회

충청남도내 향토축제 분석회의



'98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향토사료관 확충사업	○ 착공 : 98. 3. 1 ○ 완공 : 98. 4. 1 ○ 규모 : 30평	천안유일의 사료관으로 일반시민 홍보용 400여점의 문헌, 유물 등 향토문화자료 전시	
2	'98문화학교	○ 기간 : 4월 ~ 11월 ○ 과목 : 10개과목 ○ 수강인원 : 400여명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꽃꽂이, 사 진 등 10개 과목 유적진순례(6월16일)-수원성등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3	수채화교실	○ 기간 : 4월 ~ 11월 (매주 월, 화요일) ○ 수강인원 : 50명	소묘, 텃생, 수채화 초급, 중급과정, 야외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년 1회 작품전 실시	작품전 12. 11 ~13
4	시창작교실	○ 기간 : 4월 ~ 12월 (매주 금요일) ○ 수강인원 : 30명	예술강좌 특별프로그램으로 이미 지, 운율, 수사, 문장론 등 강의. 년 1회 사회집 발간	
5	여류시인 김부용추모제	○ 일시 : 4. 19 (11:00) ○ 장소 : 광덕산 묘역 ○ 참석 : 100여명	다례, 헌시낭독, 시세계 조명 강의 등 문협회원, 향토사연구소, 문화가 족, 천안차인회 회원등 참석	
6	청 소 년 영상음악회	○ 일시 : 5. 30 (14:30) ○ 장소 : 문화사랑방 ○ 참석 : 청소년 150명	레이저디스크를 통한 영상음악 감 상 (해설 병행 실시), 레크레이션, 초청성악가, 중창단 발표등	
7	문화교양강좌	○ 일시 : 6. 9 (19:00) ○ 장소 : 강 당 ○ 참석인원 : 200여명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수필가 전속회, 시인 김남조씨 초청 문학강연회	
8	제 5 회 합창발표회	○ 일시 : 6. 15 (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 1,000여명	부설 어머니합창단 제5회 정기연 주회 단원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등. 매주 토요일 오전 연습	
9	"천안문화" 26호 발간	○ 발 행 일 : 6. 30 ○ 발행부수 : 1,5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 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10	향토문화자료 14집 발간	○ 발 행 일 : 6. 30 ○ 발행부수 : 1,250부	천안의 민담과 설화로 천안지역 민담 80여편 수록	
11	개원44주년 기념식	○ 일시 : 7. 10 (11:00) ○ 장소 : 강당 ○ 참석인원 : 250여명	기념식 (유공문화예술인표창, 기념 사, 축사, 지역문화선언문 낭독 등) 리셉션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등 참석	
12	사진협회천안 지부초대전	○ 기간 : 7. 10 ~ 14 ○ 장소 : 전시실 ○ 참석인원 : 25명	개원 44주년기념 및 '98 사진영상 의 해 기념 특별초대전 1인 2점씩 50점 전시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3	“향토연구” 제 9 집 발 간	○ 발 행 일 : 7. 20 ~ 28 ○ 발행부수 :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 정기회지 향토사 연구논문 9편 수록	8
14	글짓기교실	○ 기간 : 9. 27 (10:00~17:00) ○ 수강인원 : 50명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글짓기, 독서지도, 독후감 지도, 원 고지 작성법 등 강의	4
15	제28회학생글 짓기사생대회	○ 일시 : 9. 27 (10:00~17:00) ○ 장소 : 문화원내 공원	시내 초·중·고생대상 600여명 참석 당일 심사후 시상	
16	꽃꽂이작품전	○ 기간 : 9. 25 ~ 27 ○ 장소 : 다목적실 ○ 출품인원 : 30명	꽃꽂이 교실 수강생 30명 출품 생활, 예술꽃꽂이 작품50여점 전시	
17	간 추 린 향토문화발간	○ 발 행 일 : 10. 5 ○ 발행부수 : 1,500부	천안의 역사, 문화유적, 민속, 인물 사, 민담과 설화 등을 천안홍보 및 학생들의 학습보조자료용으로 간 단하게 수록	
18	내 고 장 알 리 기 사 업	○ 일시 : 10. 25(10:00~16:00) ○ 장소 : 관내 유적지 ○ 인원 : 80여명	전입(1년미만)주민 대상 프로그램 30가정 신청 접수후 실시, 관내유 적지(국보,보물 등 유적지 순례)	
19	청소년을위한 사랑의음악회	○ 일시 : 11. 12 (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5회 정 기 연주회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 램으로 개최	
20	“천 안 문 화” 27 호 발 간	○ 발 행 일 : 11. 30 ○ 발행부수 : 1,5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 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문,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9
21	'98 오 늘 의 천 안 미 술 전	○ 기간 : 12. 15 ~ 20 ○ 장소 : 전시실 ○ 참여인원 : 70여명	천안지역 미술작가들을 초청 신청 접수후 실시 천안지역 최대의 미 술전으로 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 인, 공예, 조각 등 70여점 전시	
22	향토사료조사 수 집 사 업	○ 기간 : 년중	문헌 (고문서 등) 및 유물 수집. 상황판 제작 등	
23	향 토 축 제 개 선 사 업	○ 11월중 완성	천안삼거리 문화제 CIP 제작 (심 벌마크, 마스코트 등)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작 의뢰	51



◀ 시인 김남조, 수필가 전숙희교수
초청 강연회



◀ 청소년어울마당
「모짜르트와 함께 신록의 계절을」



▲ 천안문화원 개원44주년 기념식

'98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향토문화14집 발 간	○ 일시 : 1998. 12. 10	직산의 광업사(금광)에 관한 내용 을 모아 발간	500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2	내 고 장 고 적 순 례	○ 일시 : 1998. 6월~9월 ○ 장소 : 천안시 일원 ○ 참석인원 : 450명	관내 유적지를 통한 애향심 고취	년10회
3	청 소 년 선 도 강 연 회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동성중,성환중,입장 중,광풍중,성환고 ○ 참석인원 : 1,200명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담	년 5 회
4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강습)	○ 일시 : 1998. 4월~10월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10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 7 회
5	여성취미교실 (수지침강좌)	○ 일시 : 1998. 4월~10월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75명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능교육	년25회
6	노인교양강좌	○ 일시 : 1998. 3월~12월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 4,000명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년40회
7	시 창 작 교 실	○ 일시 : 1998. 8. 3~8.13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00명	독후감, 글짓기, 시창작등의 운율, 수사법, 작문등	년10회
8	내 고 장 자 랑 글 짓 기	○ 일시 : 1998. 10. 1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21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내고장 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 상 11월6일
9	애향의식고취 그림 그리기	○ 일시 : 1998. 10. 1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23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그림그 리기 공모, 시상	"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경 로 효 친 회 호 대 회	○ 일시 : 1998. 10. 10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53명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경로효친 에 관한 서예대회	시 상 11월6일
11	일 반 작 품 집 발 간	○ 일시 : 1998. 11. 2	글짓기, 그림, 휘호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12	'98청소년어울 마당(서예교실)	○ 일시 : 1998. 5. 10~9. 19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800명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한글 궁체 및 한자 기초과정 지도	년20회
13	'98청소년어울마 당(문화유산탐방)	○ 일시 : 1998. 7. 27, 29 ○ 장소 : 청주, 수원 ○ 참석인원 : 90명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찾아 답사	년 2 회
14	세 시 풍 송 웃 놀 이	○ 일시 : 1998. 2. 12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친 목도모	년 1 회
15	시 민 음 악 회	○ 일시 : 1998. 10. 10 ○ 장소 :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 10,000명	시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년 1 회
16	국악의대향연	○ 일시 : 1998. 10. 11 ○ 장소 :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 800명	천안시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년 1 회
17	향 토 작 가 전 시 회	○ 일시 : 1998. 12. 18 예정 ○ 장소 : 천안시 문예회관	내고장 출신의 작가 작품 전시	년 1 회 예 정
18	직산의오충신 발 간	○ 일시 : 1998. 10. 2 ○ 장소 : 본원	직산출신 5명의 충신들에 관한 일 대기를 집대성하여 책자발간	500부
19	향토축제개선 연구 방 안 (성환배축제개 선 방안 발간)	○ 일시 : 1998. 12월중	성환배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관한 내용	500부 예 정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전입주민우리 고장알리기	○ 일시 : 1998. 8월~11월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0명	우리고장으로 전입은 주민들을 대 상으로 문화원을 알리기 위한 유 적지 순례 및 문화원 홍보 책자 발간	년3회



노인학교 교양강좌



내고장 고적순례



청소년 어울마당 - 서예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 문화유산 탐방

'98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청소년 문화강좌	○ 행사기간 : 98. 8. 3~8. 8 (6일간) ○ 참여인원 : 보령시 중,고 남여 학생	• 대상 : 보령시 중, 고 남여 학생 • 방학중 청소년 사회교양 교육실 시 (6일간) • 과목 : 향토사, 전통예절, 사회교 양, 경로효친, 레크레이션, 지역 인사특강, 글짓기, 한문교실 등 • 장소 : 문화원 대, 소강당	
2	취미교양강좌	○ 행사기간 : 98. 1. 1~12. 31 (년중상설운영) ○ 참여인원 : 11월 20일 기준 700명 참석	• 대상 : 보령시 거주 주부 및 일 반성인 • 과목 : 동양화, 사군자, 서예, 꽃 꽂이, 공예, 민요교실 • 강사 : 지역전문강사 6인 • 내용 : 주부 및 일반성인 취미 교양교육 상설운영 실시를 통해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중심기능 확충	
3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 행사기간 : 98. 8. 9 (청소 년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참여인원 : 중,고 남여 학 생 청소년 200명 ○ 행사기간 : 98. 11. 25 (문 화가족 유적 순례대행진)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50명	• 대상 : 보령시 중,고 학생 및 문 화가족 • 내용 : 관광버스 대절 문화유적 순례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전통성을 널리 알림 • 장소 : 충남도내 문화유적 순례	
4	한 내 1 2 간 돌다리밟기 민속축제	○ 행사기간 : 98. 8. 30 ○ 행사연출 : 인원 300명 ○ 참여인원 : 1,500명	• 보령시 고유미풍양속인 한내12 간 돌다리밟기 민속놀이를 발굴 하여 전승시킴 • 행사내용 : 시가행진 제례, 의식 행사 돌다리밟기(고로-단체장- 일반인) 뒤풀이 (농악시연및 전 통굿, 옛민속재현)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5	초,중,고 일반, 미술,서예,백일장 실기대회	○ 행사기간 : 98. 11. 27(오전 10시~12시:초등부), 오후 2시~5시 중,고등부,일반인 ○ 참여인원 : 보령시 초등학교 26개교 1,200명, 보령시 중,고등학생,일반인 300여명	• 대상 : 보령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1,500여명 • 내용 : 문화예술인 배양을 위한 미술, 서예, 백일장 대회 개최 • 장소 : 문화원 대, 소강당 및 문 화사랑방, 옥외공간	
6	실천레기발간	○ 98. 5월 인쇄 (1,500부)	• 예절 정례집 실천레기 13집 (1-12합본집)발간 보령시 각 기관 및 단체 배부	
7	내고장역사의 현장발간	○ 98. 12월중 사업완료	• 내용 : 우리고장의 문화재 인물 등을 총 망라하여 칼라화보 책 자 발간 1,000부 발간	
8	생활문화수기 공모	○ 98. 3 ~ 11. 20 마감 ○ 참여인원 : 보령시 거주 청 소년 120명, 일반성인 15명	• 대상 : 보령시 거주 청소년 및 일반성인 • 내용 : IMF를 맞아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근검·절약 생활 수기공모	
9	웃놀이대회	○ 98. 12월중 실시예정 ○ 참여인원 : 보령시 읍·면·동 17개동 200여명	• 내용 :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인 웃놀이 대회를 통한 민속 전승 및 지역 화합 분위기 조성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10	문화원회원 작품전시회	○ 98. 12. 16 ~ 20일(5일간) ○ 참여인원 : 문화원회원 및 문화가족 작품 전시, 문화가족 70여명	• 내용 : 문화사랑과 문화예술 창 출을 위한 문화가족 서예, 사군 자, 공예작품 전시 • 작품수 : 미술, 서예, 사군자 작 품 120여점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11	향토사료 수집보존	○ 98. 1월 ~ 12월	• 고서 및 민속품 도자기류, 철재 류 등 옛 생활용품류 수집 • 고서 및 생활소품 100여점 수집 예정 • 향토사료수집 위원회 개최	

'98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향토축제 개선사업	○ 시기 : 1998년 4월 29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서산시민 ○ 참석인원 : 200명 ○ 내용 : 프로그램 수립 문화상품 개발	향토축제인 서산문화제를 개선하 여 지역주민의 정서와 문화가 어 울어진 고유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97년에 있던 개선작업(서산시 문화 상징조사 및 문화축제 기획방향) 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및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주 민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2	투호놀이 공연	○ 시기 : 1998년 10월 11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서산시민 ○ 참석인원 : 500명 ○ 내용 : 각읍면동별 민속경 연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 민속을 계승·발전시킴.	조선시대에 주로 궁중과 조정의 고관들이 잔치때에 여흥으로 많이 즐겼던 이 놀이로 제7회 서산문화 제에서 관내의 각읍면동 경연대회 를 도모함.	
3	풍수지리로 본서산사 간행	○ 시기 : 1998년 1월~12월 ○ 발행 : 서산문화원 ○ 편저 : 이영하 (향토연구회 회원) ○ 내용 : 서산지역의 풍수지리 ○ 부수 : 1,000부	산천수류의 모양을 인간의 길흉화 복에 연결시켜 자연현상의 변화가 인간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어 분 묘·사찰·주거·촌락·도성을 축 조하는데 풍수지리설에 기인한 향 토사적 가치를 찾아 수록 사료적 체계를 구축	
4	조선환여승람 복간	○ 시기 : 1998년 5월~12월 ○ 발행 : 서산문화원 ○ 내용 : 조선환여승람 복간 ○ 부수 : 1,000부 (화지 50쪽 수지인쇄) ○ 자료수집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문화유산과 민족정기를 보 존·유지할 목적으로 8도 130개군 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간행한 이 책을 복간하여 향토사 연구의 자료와 사료로 보존·전승함.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5	지육교실운영	○ 시기 : 1998년 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중학생 ○ 내용 : 영재교육 ○ 수강생 : 50명	학교교육이외의 영재교육에 필요한 개성과 능력과 특성을 살려 저마다의 소질과 소양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	
6	문화시민운동	○ 시기 : 1998년 11월 13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천거된 요원과 시민 ○ 참석인원 : 160명 ○ 내용 : 친절, 질서, 청결운동	문화시민으로서 문화민족의 진면목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식교육을 각 읍면동 별 10명정도 천거·요원화 교육(각 해당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을 실시함.	
7	경제살리기 운동	○ 시기 : 1998년 3월~11월 ○ 장소 : 각 읍면동 분원 ○ 대상 : 각 읍면동 회원 및 일반주민 ○ 참석요원 : 800명 ○ 내용 : 역사의식과 문화의식(근검·절약·저축운동)	IMF를 맞이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역사의식과 문화인식에 대한 강화를 읍면동을 순회하여 실시	
8	서산의백제사 학술회의	○ 시기 : 1998년 12월 2일 ○ 장소 : 서산농협 회의실 ○ 대상 : 각계의 향토사 관련자 및 일반시민 ○ 참석인원 : 150명 ○ 내용 : 백제시대의 서산지역 향토사 재조명	백제시대의 서산지역을 조명해보는 학술회의로 하여금 향토사 조사와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련하여 서산지방의 소외가 부당함을 역설하고 금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백제의 대중국 교문의 교류가 부성산성이라는 의견과 또한 주류성이 상향산성이라는 설이 제기됨.	
9	서산문화원보 『서산의숨결』 간 속	○ 시기 : 1998년 1월 ~ 12월 ○ 발행 : 서산문화원 ○ 규격 : 16절 ○ 부수 : 2500부 (32쪽) ○ 보급 : 무가 ○ 내용 : 문화활동, 문화교양등	창간 15주년을 맞이하는 서산 문화원보 『서산의 숨결』은 문화활동, 향토문화 조사와 연구 내용 등을 수록·계속 발간함. 또한 28쪽에서 32쪽으로 지면확대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문화유적답사 동 활	○ 시기 : 1998년 4월2일 ~12월17일 ○ 장소 : 서울, 수원 일원 1차 및 전북(2차) ○ 대상 : 문화가족, 희망시민 ○ 내용 : 문화유적 현장학습	문화유적을 답사하여 우리것의 소중함과 우리것을 지켜가는 인식을 깊게 함. • 1차 문화유적답사 : 경기도 일원 (여주, 화성) 및 서울 몽촌토성 • 2차 문화유적답사 : 전북일원	
11	문화대 상 시	○ 시기 : 1998년 11월 8일 ○ 장소 : 서산문화제 개막식장 ○ 대상 : 문권력 (노인학교 교장) ○ 내용 : 문화활동 유공자 표창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시범이 되도록 하고 시상은 제7회 서산문화제 개막식에서 함.	
12	취타대시연	○ 시기 : 1998년 10월 8일 ○ 장소 : 서산문화제 ○ 대상 : 서산취타대 (팔봉중학교) ○ 내용 : 연주회(시연회)	97년에 창단한 서산취타대의 연주회로 하여금 국악의 진가를 심어주며 계승발전 시킴.	
13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시기 : 1998년 1월~12월 ○ 장소 : 문화사랑방 문화인물 관련지 ○ 회수 : 12회 ○ 대상 : 일반시민 및 지육교실 학생	매월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들을 선정, 조명해 보는 행사를 실시함.	
14	사진영상의해 기념행사	○ 시기 : 1998년 3월~12월 ○ 장소 : 문화사랑방 ○ 대상 : 시민 ○ 회수 : 10회 ○ 참석인원 : 500명 ○ 내용 :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 계도	시민의식을 근검절약생활로 계도하기 위하여 50~60년대의 생활상을 담은 “그때를 아십니까?”와 영화 비디오를 영상을 일정기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주 연속 개방상영함.	
15	작은도서관 운영	○ 시기 : 1998년 1월~12월 ○ 장소 : 작은도서관 ○ 대상 : 문화가족과 시민 ○ 내용 : 대출, 열람 등	정부가 지정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신간도서구입등 내실을 확충해 가며 연중 지식정보제공의 산실로 널리 활용함.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6	문화알리는날 운	○ 시기 : 1998년 1월~12월장 ○ 대상 : 문화가족과 시민 ○ 내용 : 대출, 열람 등	지역주민 또는 전입주민들을 초치 지역유래 및 문화를 소개하고 지 역내 문화유적등을 견학시켜 향토 문화체득과 애향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함.	
17	고향가꾸기 운	○ 시기 : 98년 10월8일~10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출향인사 ○ 내용 : 고향문화소개	출향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고장 의 역사와 발전상황을 순례하며 조상들의 얼을 기리고 고향사랑정 신과 조상숭모정신을 깊게 하며 특히 제7회 서산문화제 개최 시기 에 사업은 시행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함.	
18	새해다짐대회	○ 시기 : 1998년 1월 3일 ○ 장소 : 현대예식장 ○ 대상 : 각 기관단체와 시민 ○ 참석 : 300명 ○ 내용 : 신련교례회 새해축하연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함께 새해인사와 이 고장 발전과 도약 그리고 화합을 다짐하는 신 년하례식을 갖음.	
19	지역문화학교 운	○ 시기 : 1998년 3월~12월 ○ 장소 : 문화사랑방, 강의실 ○ 대상 : 일반인, 주부 ○ 내용 : 영어회화기초, 일어 회화초급, 수채화,사진,건강 교실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 문화예술적 자질을 계발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함.	
20	향학관 운영	○ 시기 : 1998년 1월~12월 ○ 대상 : 전국의 출향학자들 ○ 내용 : 전국에 산재해 있 는 학자들의 소재파악 작 업 (1차년도)	전국의 대학(303개교)과 학술기관 에 재직하는 서산출신 학자들로 하여 저서 논문등을 수집, 고향에 소장하고 향토고유의 도서관으로 유지계승하며 그들을 기념한 기념 관으로 매년 시행함. 연속사업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21	서산문화제 개	○ 시기 : 98. 10. 7~10일 ○ 장소 : 서산문화회관 광장 및 일원 ○ 대상 : 서산시민 ○ 내용 : 민속놀이경연, 시연, 민속씨름, 시민노래 자랑, 가족놀이 마당	향토축제 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하면서 지난 해에 제기된 개선 방향에 따라 축제를 개최함. 특히 제7회 서산문화제는 적은 비용으로 민속놀이 경연이라는 특색 있는 문 화제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음.	
22	전시홍보활동 운	○ 시기 : 1998년 1월~12월 ○ 장소 : 문화원과 각 지역 ○ 대상 : 회원 및 일반시민 ○ 내용 : 정부시책과 문화원 문화활동 홍보	정부가 보급하는 자료를 게시 또 는 문화사랑방을 활용, 홍보함과 아울러 자체실적등을 연주 순회강 연 및 서신 등으로 홍보함.	
23	지역문화 국내외교류	○ 시기 : 1998년 1월 12월 ○ 대상 : 국내외 ○ 내용 : 문화교류	국내외의 선진지 견학과 교류를 통하여 문화의식 제고와 유대강화 를 기함.	
24	서산문화원 사이버문화관 운	○ 시기 : 1998년 10월~12월 ○ 대상 : 일반시민 ○ 내용 : 각종문화정보의 제공 ○ 인터넷 주소 : SOBOCK KORNET21. NET/~CULIEO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서산문 화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문화정보를 게시하여 지역주 민에게 문화정보를 전달.	



부석면 굴부르기제

▼ 서산문화원 회원 문화유적지 답사



'98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문화사업	○ 향토조사 연구	1. 향토사 수집 발간 2. 을미왜란 진상과 복수창의 비사 발간 3. 향토사료수집	
2		○ 지역문화 행사	1. 제13회 청소년 백일장 2. 제13회 청소년 사생대회 3. 제9회 서예실기 대회 4. 문화예술단체후원 5. 작품전시회	
3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1. 지점토 강습 2. 꽃종이접기 강습 3. 요리강습 4. 농악강습 5. 논산문예 제6집 발간 6. 관내 유적지 답사 (2회) 7. 문화원이사 및 회원 전남 보성 서재필 박사 공원 답사	
4		○ 향토축제 개선	1. 향토민속 발굴 및 축제 개선 프로그램 센터 운영	
5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1. 내고장소식지발간 2. 신년교례회 개최 3. 신년교례회 기념수첩 제작배부 4. 내고장8경 카렌다 제작·인쇄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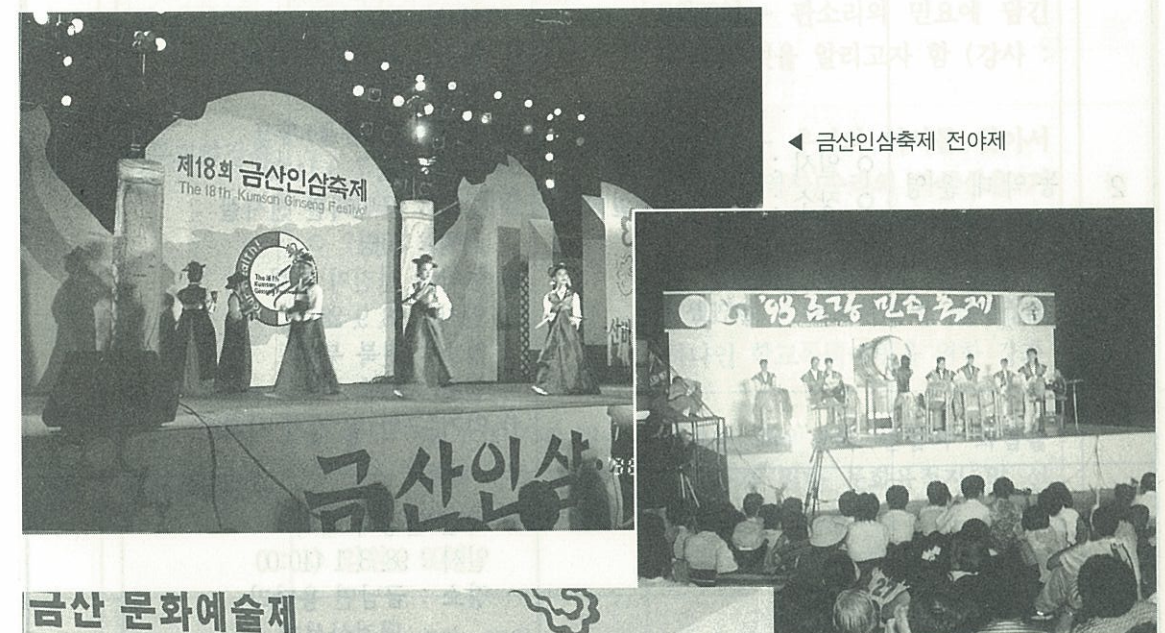
논산문화원주최
초·중·고 학생·일반
서예 실기대회

'98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금산 땅이름 조사사업	○ 일시 : 연중 ○ 대상 : 남이, 남일면의 자연 마을	금산의 전자자연마을의 마을이름 산, 들,논,밭,거리 등 땅과 관련된 이름 의 유래를 밝히는 사업(3년차 사업)	
2	금산의 문헌 자료집 발간	○ 금산의 고문헌 수집	금산과 관련된 모든 고문헌 자료 를 수집 정리하여 자료집 발간	
3	금산 문화 학교 운영	○ 일 시 : 4월~7월 ○ 장 소 : 금산문화원 ○ 강좌수 : 12개강좌 ○ 인원수 : 182명	평생교육과 생활문화교육 일환으 로 금산문화학교 운영 문화 향수권 신장	
4	문화사랑 금산사랑 운동사업	○ 금산소개책자 2,000부 발간 ○ 금산문화 알리는날 1회	금산전입주민과 금산을 찾는 외지 인들에게 금산의 문화를 알리는 사업	
5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캠프 운영	○ 일시 : 8월 13일~14일 ○ 장소 : 금산군 일원과 남이휴향림 ○ 인원 : 90명	청소년과 가족이 야영을 하며 금 산의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는 모 임 운영	
6	청 소 년 역 사 탐 방	○ 일시 : 8월 20일 ○ 장소 : 홍성군 일원 ○ 인원 : 90명	건국5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투사 들의 생가지를 방문 나라를 생각 하는 모임	
7	우 리 문 화 유 산 찾 기	○ 일시 : 11월 29일 ○ 장소 : 금산군 일원 ○ 인원 : 90명	금산문화가족들이 우리의 문화유 적지를 순회하고 문화사랑 정신 함양	
8	청 소 년 어 울 마 당 개 최	○ 일시 : 6월, 7월, 10월 ○ 장소 : 각급학교 ○ 대상 : 1,50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당극과 전통 문화익히기 등 문화의 이해를 도모	
9	정 월 대 보 림 축	○ 일시 : 3월 12일~13일 ○ 장소 : 장동마을 ○ 인원 : 200명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장동마을 탐제와 금산농악의 각종 굿 그리고 무대행사를 개최 금산문화원의 겨 울 축제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금강민속축제	○ 일시 : 7월~8월 2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 인원 : 13,000명	민속과 여름휴가를 결합 새로운 여름문화관광축제 상품으로 개발 개최하여 금산문화원의여름축제	
11	금산인삼축제	○ 일시 : 9월 15~19일 ○ 장소 : 금산읍 일원 ○ 인원 : 44,250명	금산의 문학, 미술, 음악, 서예등 창작문 현대문화예술을 발표, 문화 향수권 신장	
12	금산 문화예술제	○ 일시 : 10월 29일~31일 ○ 장소 : 청산회관 ○ 인원 : 600명	장동마을 축제를 대상과제로 선정 금산의 대보름놀이와 제의를 조사 대보름축제 기획 활성화하고자 함.	
13	장동마을 민속발굴사업	○ 일시 : 연중 ○ 장소 : 장동마을및 금산군 ○ 대상 : 장동마을과 대보름 민속조사	장동마을축제를 대상과제로 선정 금산의 대보름 놀이과제의 조사 대보름축제기획 활성화하고자 함.	
14	금산 농악놀이마당	○ 일시 : 매월 1회 ○ 장소 : 금산군 자연마을 ○ 인원 : 2,000명	금산농악을 각 자연마을과 연계,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 화마당 전개	
15	읍면농악시연 대회	○ 일시 : 금산인삼제기간 ○ 장소 : 금산읍 ○ 인원 : 240명	인삼제를 맞이하여 각 읍면 농악 팀을 초청 금산농악을 시연 질적 향상을 도모	
16	읍면마을농악단 발대식	○ 일시 : 7월 15일 ○ 장소 : 금산읍 ○ 인원 : 400명	금산군 각 읍면의 마을농악단을 창립 금산문화원에서 지원 전수하 는 사업	
17	난잉국제민속 페스티벌참가	○ 일시 : 10월 26일 ○ 장소 : 대만 대남현 ○ 인원 36명	국제민속페스티벌에 금산농악단 인삼아가씨를 파견 한국의 전통문 화와 인삼우수성 선양	
18	한국문화재보 호재단초청 공연참가	○ 일시 : 6월~9월 ○ 장소 : 서울놀이마당 ○ 인원 : 34명	국내의 우수 전통문화단체가 참가 하는 초청공연으로 금산농악 우수 성 선양	
19	큰기올리기	○ 일시 : 1월 3일 ○ 장소 : 금산문화원 ○ 인원 : 47명	한해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농악대 의식으로 금산문화원의 시 무식으로 거행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20	합창의밤	○ 일시 : 매주1회 ○ 장소 : 금산문화원 ○ 인원 : 45명	인삼골합창단이 매주 화요일밤에 모여 합창을 하며 여가선용	
21	충남합창대회 참가	○ 일시 : 9월 24일 ○ 장소 : 서산문예회관 ○ 인원 : 45명	인삼골합창단이 충남합창대회에 참가 금상 수상	



◀ 금산인삼축제 전야제

▲ 금강민속축제장면

◀ 금산문화예술제 -
장사의 초청공연

'98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제 8 회 민속한마당	○ 일시 : 98. 10. 23 14:00 ○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 인원 : 600명	노인장기자랑 (민요, 시조, 노래가 락, 만담 기타등등) 국악단 초청 위안공연	12
2	농악대 운영	○ 일시 : 98년 3월-12월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인원 : 50명	1) 부여 국악원 견학 일시 : 98. 6. 18 장소 : 부여군 국악원 인원 : 3명 2) 문화학교 (풍물)개강 일시 : 98. 7. 3 14:00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인원 : 50명 3) 농악대 선진지 견학 일시 : 98. 9. 28 장소 : 전북 부안 인원 : 45명 4) 악기 구입 및 강사 사례비	13
3	향토사 운영	○ 일시 : 98. 3~12 ○ 장소 : 연기군내 ○ 인원 : 20명	1) 덕진 산성제 개최 일시 : 98. 3. 1 (10:00) 장소 : 금남면 용담리 덕진산성제 인원 : 50명 2) 문화유적 자료구입 자료명 : 한국문화재발견 3) 문화유적 고적답사 일시 : 98. 10. 8 장소 : 국립부여박물관 인원 : 15명 4) 백제고산제 일시 : 98. 10. 24 장소 : 운주산성 인원 : 45명	18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4	경로효친 옹변대회	○ 일시 : 98. 4. 28 14:00 ○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 인원 : 150명	연기군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경로 효친사상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음.	81
5	경로효친의 달 행사	○ 일시 : 98. 4. 30 / 11. 28 ○ 장소 : 마곡사, 현충사 ○ 인원 : 300명	연기군내 65세 이상 불우노인을 모시고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 시 키고자 함.	81
6	주부교양강좌	○ 일시 : 98. 9. 30 98. 10. 2 98. 12. 17 ○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 인원 : 450명	9월30일 - 판소리와 민요에 담긴 우리의 멋을 알리고자 함 (강사 : 윤진철) 10월2일 -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백제의 역사)우리의 자긍심을 기 르고자 함 (강사 : 연기향토사소 장 정해영) 12월17일 - 사회환경의 심각성의 하나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강좌	81
7	문화유적답사	○ 일시 : 98. 7. 22 / 98. 12. 2 ○ 장소 : 충북 미륵사지 서산마애삼존불상 ○ 인원 : 90명	문화원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및 선 진지 견학	81
8	독서교실운영	○ 일시 : 6월~12월 ○ 장소 : 조치원문화원내	연기군내 군민을 위한 독서실 운영	81
9	군민친선 바둑대회	○ 일시 : 98. 4. 14~17 ○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 인원 : 시상 6명	연기군민 상호친목도모 및 바둑기 능인 양성	81
10	노인학교운영	○ 일시 : 98. 10. 23 ○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 인원 : 600명	연기군내 어르신을 모시고 군내기 관단체장의 초청강연	81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1	청소년 건전 영화 상연 및 어린이인형극	○ 일시 : 9월~10월/98. 10. 28 ○ 장소 : 군민회관 ○ 인원 : 500명	청소년 및 어린이의 건전한 정신 함양	
12	유물수집전시	○ 일시 : 3월~12월	유물, 문헌, 민속자료등을 수집 향 토자료관 설치	
13	전설모음집 발간	○ 일시 : 3월~12월	연기군내 전해내려오는 전설을 모 아 모음집을 발간함.	
14	향토민속발굴	○ 매죽헌 성삼문 연구	매죽헌 성삼문 연구하여 책으로 편찬	
15	향토축제개선	○ 도원문화제 CIP 개발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CIP개발	
16	전입주민우리 고장알리기	○ 일시 : 98년 12월 12일 ○ 장소 : 연기비암사,호녀열려비 ○ 인원 : 45명	연기군으로 전입한 주민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를 알리고자 함.	
17	사랑의음악회 개최	○ 일시 : 98. 4. 20 14:00 ○ 장소 : 군민실내체육관 ○ 인원 : 2,000명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음 악회 개최	
18	문화학교운영	○ 인원 : 50명	일반인들에게 사물놀이를 지도하 여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함.	

'98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어린이 역사교실	군내 초등학교 10개교 학생 130여명 ('98. 4~12월 년 8회)	군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월 1회 사적답사 프로그램 부여문화원 및 국내 주요사적지 답사	
2	청소년 역사교실	군내 중학교 10개교 학생 40 여명 ('98. 4~12월 년 8회)	군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적지 및 백제문화원의 주요유적지 답사 및 영상감상	
3	부여관광 정보센터운영	지역관광활성화 기반조성 사 업 ('98년도 연중 실시)	백제문화탐방관광열차 홍보 - 서 울지하철 및 전국열차 관광객 대상 문화재 강연 - 6,000여명 관광안내자원봉사자양성교육-70여 명등	
4	'98신년교례회	'98. 1. 5 행사 군내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1,300여명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및 신년교례회 명부 1,300부 발간	
5	향토자료 수집보존	50여점의 각종 고문서 전적, 족보등 수집	군내에 산재한 각종 고문서 전적, 족보, 문집 사진자료, 민속유물등 역사민속학적 사료를 일괄 수집 정리하여 향토자료관 설립에 대비	
6	향토민속발굴 (외산만수리산제 및 장승제발굴)	산제와 장승제를 발굴 정리하 여 보고서 500부 출간	우리고장에서 가장 고식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 외산면 만수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제오 장승제를 발굴 정리하여 보고서로 출간	
7	향토축제개선 및 축제 프로 그램센터운영	유왕산놀이 발전세미사 개최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에서 백제시 대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왕산놀이를 전국적 향토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미나 개최	
8	'98사진영상의해 기념사업	군내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문 화재 사진 공모전	'98 사진영상의 해를 맞이하여 사 진영상 발전을 위한 청소년 대상 문화재 사진공모전 개최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9	청 소 년 시 낭송 대회	군내 중고에서 9개 팀 참가 ('98 11. 14 문화사랑방에서 150여명참관)	군내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시낭송 대회를 개최, 아름다운 정서와 맑 은 시심을 심어주고 아울러 시를 읽는 청소년 상 정립	
10	영화감상교실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주부 대상으로 수시 실시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영화 해설 및 감상회를 실시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유도	
11	부여실록발간	부여현, 홍산현, 임천군, 석성 현 관련 기록정리	조선왕조실록에서 부여현, 홍산현, 임천군, 석성현의 관계기록을 발췌, 책으로 발간하여 향토자료로 활용	
12	'98 문화 학교	'98 5월~12월 (140명참가)	군내 주부 및 일반인 대상으로 공 예, 비디오촬영, 일본어, 한국화강 좌등 실시	
13	문 화 가 족 유적순례강좌	국내 주요 유적지 및 선진지 견학 (년 2회 실시)	문화원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충북유적답사,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견학등 실시	
14	교 사 를 위 한 백제문화순례 강좌	충북지역 백제유적지 답사	군내 초, 중, 고 교사들의 향토사 교육방법 및 현장실습 기회제공 프 로그램으로 동계방학중 1회 실시	
15	어 린 이 문 화 학 교	군내 초등학교 학생 50여명 참가	군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 통문화, 향토사, 전통예절, 풍물, 글 쓰기, 영상감상등 문화의 기초 교 육실시	
16	부 여 사 랑 향 토 문 화 유적순례강좌	군내 주요유적지 답사 ('98 4월~10월)	부여사랑 정신 고취 및 문화재 보 호 운동을 사회단체 임직원등 300 명 군내 주요 유적지 답사	
17	전 입 주 민 내 고 장 문 화 알리는날운영	내고장 소개 영상감상,역사문 화특강,박물관 및 사적지 답 사, 지역문화 소개 책자 배부	전입주민들을 문화원에 초청 지역 의 유래 및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지역내 문화유적 등을 견학시킴으 로써 향토문화체득과 애향심 고취 계기를 마련해줌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8	여성문화강좌	부여군내 주부 300여명 참가	군내 주부들의 문화의식 함양 및 창조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 유명 강사를 초청 공개 문화강좌 개최	

'98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신 년 교 례 회	○ 일시 : 98. 1. 6 ○ 장소 : 서천군민회관소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서천군내 행정기관장 및 단체장과 지방유지들을 초청 새해를 맞이하 여 상부상조로 상호인사교환을 한 후 다과회와 덕담으로 신년교례회 행사를 실시함.	
2	청 소 년 문 예 백 일 장	○ 일시 : 98. 5. 15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271명	중,고학생들의 글짓기, 회화, 한국화, 서예등의 과목으로 문예백일장을 실시함.	
3	중,고 효행 및 선 행 생 표 창	○ 일시 : 98. 6. 9 ○ 장소 : 서천군민회관소강당 ○ 참석인원 : 50명	중,고 각학교당 1명추천으로 선발하 여 효행 및 선행학생 표창장과 상 품을 수여함	
4	사물풍물놀이 경로위안잔치	○ 일시 : 98. 6. 14 ○ 장소 : 서천군민회관소강당 ○ 참석인원 : 800명	제7회 사물풍물놀이 경로위안잔치 를 서천군민과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로위안공연을 실시함	
5	농악육성사업	○ 일시 : 연중	농악육성사업으로 연중행사로서 농 악교육을 실시하고 시범공연을 함	
6	하계문화강좌	○ 일시 : 98. 7. 21~31 ○ 장소 : 서천군민회관소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여름방학을 기하여 중,고 청소년들 에게 문학강좌의 혜택을 주기위한 행사로 공예(꽃꽂이, 칼라믹스), 으 악, 농악, 예절의 과목으로 실시함	
7	하계사적지순방	○ 일시 : 98. 8. 1 ○ 장소 : 서산 해미읍 ○ 참석인원 : 250명	청소년들의 사전지순방으로 서산마 애삼존불상과 해미읍성, 수덕사등을 분방하여 옛 역사를 견학함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8	서천군민친선 바둑대회	○ 일시 : 98. 9. 13 ○ 장소 : 서천군민회관소강당 ○ 참석인원 : 250	서천군내 바둑 애호가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상호친목도모로 바둑대 회를 개최함	81
9	서천군민친선 장기대회	○ 일시 : 98. 9. 27 ○ 장소 : 서천군민회관소강당 ○ 참석인원 : 250	서천군내 장기 애호인들의 정서함 양과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서천군 민의 융화단결을 기함	82
10	중등미술교사 병바위전	○ 일시 : 98. 10. 9~15 ○ 장소 : 서천군민회관 전시실 ○ 참석인원 : 1,000명	중,고 미술교사들의 작품을 다량 출품하여 전시함으로 학생들의 실 기향상을 도모하며 교사들의 작품 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	
11	향토민속발굴	○ 일시 : 98. 7	서천군 관리록 발간함	
12	아동문예 백일장	○ 일시 : 98. 10. 22 ○ 장소 : 서천초등학교 ○ 참석인원 : 400명	서천군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글짓기, 미술, 서 예 과목으로 아동문예백일장을 실 시함	83
13	전입주민 유적지답사	○ 일시 : 98. 11. 13 ○ 장소 : 서천군내 유적지 ○ 참석인원 : 54명	서천군내 전입자들을 초청하여 군 내 유적지를 답사하고 문화원 간 행물을 배부함	84
14	초·중·고 작품전시	○ 일시 : 98. 11. 23~27 ○ 장소 : 서천군민회관 전시실	초,중,고 서예, 미술작품을 전시하 여 널리 홍보함	
15	송년음악회	○ 일시 : 98. 12. 18 ○ 장소 : 서천군민회관 대강당	중,고학생들과 음악교사들의 협찬 으로 음악실기경연함으로 송년음 악회를 실시할 예정임	85
16	초·중·고 문집발간	○ 일시 : 12월중	초,중,고 학생들의 백일장 작품 (미 술, 서예, 글짓기)을 발간	86
17	향토사연구	○ 일시 : 12월중	서천의 역사를 편집한 후 인쇄중	
18	향토축제 프로그램개선	○ 일시 : 12월 25일 예정	향토축제프로그램개선방향연구 논 문을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에게 용역을 계약하였음	87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9	동계문화강좌	○ 일시 : 12월 말 예정 ○ 장소 : 서천군민회관 소강당	겨울방학을 기하여 중, 고 청소년 에게 문화강좌를 실시할 계획임	
20	동계 사적지순방	○ 일시 : 99년 1월중	문화강좌 수료생 전원이 참석하여 사적지 순방을 계획	
21	환경보존	○ 일시 : 연중	13개읍면에 현수막 설치 12월중 환경사례수범학생 표창계획	88



◀ 서천 경로위안잔치 - 사물풍물놀이



▲ 98 하계문화강좌

◀ 서천군민 - 친선장기대회

'98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신년교례회	• 신년사 • 축하 • 상호교례 • 청무 풍물패 공연 • 오찬	군내 각급 기관 단체장과 지역유 지 및 출향인사의 신년하례식	1. 5
2	정월대보름맞 이민속웃놀이 대 회	토너먼트 방식으로 1-5등 선발	우리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 맞 아 사행성놀이 억제와 민속 놀이 재현	2. 11
3	98. 정기총회	○ 97결산서 인준 ○ 98사업계획 ○ 예산안 심의	문화회원이 참가한 97사업실적 및 결산서 인준. 98사업계획서 예산안 심의	2. 13
4	문화유적지 순례	○ 문화회원 문화 유적지순례 ○ 청소년 백제문화권 순례 ○ 문화회원 98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참관 ○ 향토사연구위원 문화유적지 실태조사	문화회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례를 통하여 우리문화재의 소중 함을 재인식시키고 향토사연구 위 원들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토사 편찬에 만전을 기한다.	3. 23 ~24 6. 30 7. 7 9. 24 11. 17
5	한글작품 공모전	○ 시, 수필 공모전	충의선열 추모 군내 학생 한글작 품 공모전 특선, 가작, 입선, 장려등 시상	4. 1 ~4.20 시상식 5.30
6	경노위안 국악대공연	○ 국악인 초청공연 ○ 효행자 표창	국악인 초청공연과 효행자 표창을 통한 경로 효친사상의 중요성을 재 인식 시키고 경노위안의 계기마련	5. 2
7	향토자료조사 수집사업	○ 청양의 전통무속 신앙자료 조사 및 수집 ○ 향토 민속자료 수집	청양의 전통무속 신앙 비디오 제 작 - 축사, 내림굿, 가림굿, 안택굿, 조상천도굿 유물, 문헌, 민속자료 등을 수집 향 토자료관 설치준비	6. 13
8	발간사업	○ 칠갑문화지 8호발간 ○ 전통혼례집 발간	군내 문화생사 시, 수필 향토사 문 화재등 소개 (책자 - 1,000부 발간) 청양의 전통혼례(책자 - 500부발간)	11. 30 8. 1
9	칠석맞이 민속장기대회	○ 읍, 면 대항 단체경기 및 개인전 경기 - 단체전1-3등 / 개인전1-5등	칠월 칠석을 맞아 장기대회를 통 한 읍, 면 민간의 단합 및 화합의 장 마련	8. 28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향토축제개선사업	○ 청양의 향토축제 개선사업	칠갑문화제 로고제정	8.1-10.1
11	연극공연	○ 극단 『판』초청공연	굿모닝 배뱅이공연 - 농어촌 문화복지프로그램 사업 의 일환	9. 30 ~10. 1
12	문화학교운영	○ 청소년 문화강좌 ○ 사물놀이 강좌 ○ 영화감상교실 ○ 한문교실 ○미술교실 ○ 청소년 음악교실 ○ 노인강좌	지역특성에 맞는 정례 강좌를 통 하여 인성 및 도덕성을 개발하여 가치관과 인생관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함	7. 27 ~9. 30 수료식 - 10. 14
13	음악회	○ 한사랑 작은 음악회	청소년들의 건전가요 보급과 건전 한 심성 배양	10. 24
14	전시회	○ 향토작가 시화전 ○ 칠갑사우회전	출향 문화예술인 시화전 칠갑산 동우회 회원전	11. 6~ 11. 10 11. 16~ 11. 18
15	씨클활동	○ 씨클활동지원 - 한사랑 음악씨클 - 청무풍물패 - 칠갑사진 동우회 - 전통민속문화 보존회 - 청양 장승 보존회 - 미술교사 동호회	문화가족 씨클을 지원,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활동 도모	



청양문화원 문화가족 98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참관



청양문화원 극단 「판」초청공연 - 굿모닝 배뱅이

'98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항	비 고
1	주부노래교실	○ 일시 : 매주 월, 수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 대상 : 주부40여명	과정 : 3월~11월 내용 : 가요, 가곡 부르기	
2	사 진 교 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8시)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 대상 : 일반인 20여명	과정 : 년2기 (총20회) 내용 : 사진기술의 이론과 실제	
3	전통예절교실	○ 일시 : 매주 화요일(주1회)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 대상 : 주부 30여명	과정 : 9월~12월 (총20회) 내용 : 전통예절교육 (다도등)	
4	주부한문교실	○ 일시 : 매주 화요일(주1회)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 대상 : 주부 30여명	과정 : 4월~12월(총32회) 내용 : 기초한자교육 및 생활예절 교육	
5	홍성문화발간	○ 횟수 : 년4회 (계간잡지) ○ 장소 : 홍성문화원 ○ 발간부수 : 회당 2,500부	방법 : 편집위원회 구성 내용 : 홍성의 소식, 시, 수필등 (문화지)	
6	만 해 제	○ 일시 : 8월 14일~15일 ○ 장소 : 홍성군 일원	내용 : 8월 14일 (전야제) 만해문학의 밤, 공연 8월 15일 (본행사) 고유제 기념식 및 추모법회 공연	
7	홍주문화발간	○ 횟수 : 단행본 (년1회) ○ 장소 : 홍성문화원 ○ 자료조사:홍주향토문화연구회	조사기간 : 년중 내용 : 향토사료 조사수집, 발간	
8	사 료 실 운 영	○ 사료구입기간 : 연중 ○ 방법 : 사료보존자 중심 으로 수집	홍성의 산재한 유물, 문헌등 역사 적 가치가 있는 사료 구입 보존	
9	행 사 사 진	○ 기록보존용 사진 촬영	각종 행사시 사진촬영 및 현상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항	비 고
10	건전비디오및 명 화 감 상	○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횟수 : 주1회 (총42회)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영화감상동호인 구성으로 작품선 정, 감상, 토론	
11	홍 성 의 옛사진전시회	○ 일시 : 10월 15일~18일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 방법 :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사진동우회와 협조추진	내용 : 홍성의 옛생활을 담은 사진 을 수집, 확대하여 전시함.	
12	문 화 논 단	○ 일시 : 11월 26일 (목)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전문강사를 초빙 "환경과 생활"이 란 주제로 세미나	
13	문화예술공연	○ 일시 : 12월 19일 (토) ○ 장소 : 홍주문화회관	연예인초청공연	
14	한성준춤·소리 기 념 예 술 제	○ 일시 : 9월 27일 ○ 장소 : 홍성군 일원	내용 : 한성준 춤,소리학술발표회, 공연등 대상 : 일반인	
15	문화와역사교실	○ 일시 : 매주 금요일(총20회) ○ 장소 : 홍성문화원문화사랑방 군내 유적지	내용 : 홍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 및 유적지 답사	
16	향 토 사 료 조 사 수 집	규장각에 있는 홍성에 대한 자료 발췌 - 홍성인물 문집 해설본 집약 - 고문서목록자료 발췌 및 편집 (고서목록 발췌본, 홍주,결성고서 목록,인물색인목록(1,2),동국여지도, 고지도목록, 홍주인문집목록집전)	향토사학자에게 용역을 주어 규장 각에 비치된 사료 발췌	
17	향토민속발굴	○ 홍성의 토속제향조사 ○ 조사자 : 최운식의 3명 ○ 조사기간 : 년중	토속제,목신제, 산신제등을 조사	
18	축제개선프로 그램센타운영	○ 일시 : 10월 20일 ○ 장소 : 만해기념관 (백담사)	내용 : 만해기념관 견학을 통해 만해 제 발전방안으로 모색해보고 강사 2 인 초청 만해사상에 대한 강의와 만 해제를 분석평가하는 세미나를 실시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9	우리고장 문화알리기	○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내고장 문화알리기 ○ 일시 : 월별 1회 (총3회) (9월~11월) ○ 장소 : 군내유적지	내용 : 군내 유적지 강의와 탐방을 통해 애향심 고취	
20	성년의 날 기념행사	○ 일시 : 5월 16일 ○ 장소 : 홍주향교 대성전 ○ 대상 : 만 20세가 되는 남·여	내용 : 성년의 날 기념 의식행사	
21	거리영화제	○ 일시 : 6월 15일 ○ 장소 : 남산공원 ○ 대상 : 청소년, 일반인	내용 : 야외영화감상을 개최 작품 감독과 토의하는 열린마당	
22	청소년 역사교실	○ 일시 : 9월 28일 ○ 장소 : 군내 유적지 ○ 대상 : 군내 중학교 1학년	내용 : 군내 유적지 답사를 통해 내고장 사랑의 참뜻을 이해시킴	
23	사진전시 및 영상음악감상	○ 일시 : 10월 17일 (토)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군내 청소년	내용 : 사진전시 감상 및 국악, 팝, 클래식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음악 감상	
24	청소년 민속교실	○ 일시 : 12월 2일~3일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대상 : 군내 고3학생	내용 : 수능시험이 끝난 고3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한 민속학자 초청강의	
25	송년어울마당 (예능경연대회)	○ 일시 : 12월 19일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대상 : 군내 고등학생	내용 : 가요, 무용 경연대회, 레크 레이션등	

'98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축제	향토품물간행	예산지방의 농악책자 발간	
		향토문화축제 개선방향	예산지역 문화축제 개선방안 책자 발간	
2	향토사료조사 수집보존사업 책자발간		향토사료수집 보존 예산문화 28, 29집 발간	
3		제9회 추사선생추모 전국서예백일장	○ 일시 : 10. 11 ○ 장소 : 추사고택 ○ 전국서예백일장 ○ 백일장 수상작품전 (문예회관 12월1일~12월4일, 서울 전시 11월17일~11월20일)	
4	제2회 추사문화제	청소년푸른음악회	○ 일시 : 10. 9 ○ 장소 : 문예회관 ○ 천안 외국어대학 콘서트콰이어 초청공연	
6		문화제기념분재전시회 추사서화영인작품전	○ 일시 : 10월9일~10월12일 ○ 장소 : 문호원 뜰 ○ 추사서화 영인작품 ○ 표구 30여점 도자기 20점	
7	향토축제대회	제7회 임존성위령제전및 청소년성지순례	○ 일시 : 9. 20 ○ 장소 : 대흥면 임존성 ○ 산신제, 임존성지부흥군위령제 ○ 임존성에 대한 고찰 ○ 추모공연, 청소년 성지순례	
8		제4회어린이사생실기대회	○ 일시 : 10. 11 ○ 장소 : 추사고택 ○ 대상 : 군내 초등학교 학생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향토축제대회	제3회예산군내학생품물 경 연 대 회	○ 일시 : 10. 10 ○ 장소 : 예산군 학생체육관 ○ 대상 : 군내초등, 중등, 고등부	
	기 타 행 사	세 시 품 속 놀 이	○ 일시 : 2. 14 ○ 장소 : 예산문화원 앞뜰 ○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문 화 유 적 지 순 례	○ 일시 : 11. 20 ○ 장소 : 서울 민속촌, 경복궁 ○ 대상 : 예산문화원 회원	
		신 년 교 례 회	○ 일시 : 1. 4 ○ 장소 : 예산군청 회의실	
	문 화 강 좌	한 학 강 좌	○ 일시 : 화, 수 목 2:30~4:30 ○ 강사 : 전용국 ○ 명심보감, 논어	
		야 간 서 예 강 좌	○ 일시 : 월, 금 오후 7시~8시 ○ 장소 : 한만평 ○ 한문, 한글서예	
		주 간 서 예 강 좌	○ 일시 : 목 오전 10시~오후4시 ○ 강사 : 전홍규 ○ 한글, 한문서예	
		주 부 품 물	○ 일시 : 목 오후 2시~4시 ○ 강사 : 박정순	
		한 국 화 강 좌	○ 일시 : 월 오전 10시~오후2시 ○ 강사 : 정춘자 ○ 한국화그리기	
		시 조 강 좌	○ 일시 : 8, 16, 25, 30 ○ 강사 : 김정태 / 내포시조	
	지방자치단체	청 소 년 어 울 마 당	○ 일시 : 매월 1회 실시	

'98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민 속 윷 놀 이	○ 일시 : 1998. 2. 23 ○ 장소 : 이원면 관리 1구 다목적회관 ○ 참석인원 : 350명	옛부터 전승되어오는 (음. 정월 대 보름)시기를 맞아 민속윷놀이 전 통을 상기시킴.	서부지역 4개읍,면 과사회단 체참여
2	이 원 면 벚가리대놀이	○ 일시 : 1998. 2. 27 ○ 장소 : 이원면 관리 1구 다목적 회관 ○ 참석인원 : 210명	향토 고유문화 전승으로 (음. 2월 1일) 머슴의 날을 임하여 이원면 농민 모두가 참여하여 한해의 풍 년을 기원하는 놀이	이원면 관리1구 주민전원
3	소성백일장글 짓기제7회공모	○ 일시 : 1998. 5. 7 ○ 장소 : 초, 중, 고등학교 ○ 제출작품 : 283건중 입선 72명	청소년의 문장력을 기르고 올바른 맞춤법과 표현력 지도	22개교
4	문 화 가 족 위 축 장 수 여	○ 일시 : 1998. 5. 8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69명	문화발전을 위하여 참여도를 폭넓 게 수용하고자 함	
5	어린이한마당 푸른음악회	○ 일시 : 1998. 5. 19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380명	평소 배운 기량을 발표하고 고운 심성을 육성해 주고자 함	12개교
6	3·1운동과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 일시 : 1998. 5. 28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370명	우리고장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 교육으로 충애심과 나라사랑 정신 을 함양시키고자 함	5개교
7	청 소 년 교 양 강 좌	○ 일시 : 1998. 7. 7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329명	문화의식과 도덕규범 교양강좌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적립과 학생의 본분을 준수시키고자함	강사1명 초 빙
8	청 소 년 문학의한마당	○ 일시 : 1998. 6. 9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259명	청소년들이 평소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다양한 문화예술성을 기 르고자 함	초,중,고 등학생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9	태안문화발간	○ 발행일 : 1998. 5. 10 ○ 내용 : 태안지역의 성곽과 마에불 ○ 발행인 : 이갑춘 ○ 발행처 : 태안문화원 ○ 발행부수 : 1,500부	관내에 산재된 문화재에 대한 책자 를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함	배 부 처 군내기관 사회단체 전국문화원 문화가족 문화원 방문객
10	주부교양강좌	○ 일시 : 1998. 7. 10 ○ 장소 : 태안중학교 체육관 ○ 참석인원 : 500명	○ 강의주제 1. IMF를 극복하는 주부의 역할 2.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의 역할 위 강좌를 통해 자녀의 교육 방안 과 현실에 당면된 IMF를 극복하 는 주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 도록 함.	강사: 전 충남대학 총장오덕 균경제학 박사태안 중학교홍 육기교장
11	청소년 교육영화상연	○ 일시 : 1998. 9. ~12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898명	청소년들에게 본 영화상영으로 문 화향수권을 수용토록하여 지역문 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신청 5개교
12	초, 중, 고 생 미술실기대회	○ 일시 : 1998. 9. 29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266명 (학부모, 지도교사포함)	미술실기대회를 통해 저마다 가진 예술성을 높여주고자 함	11개교



벚가리대 놀이 / 민속놀이대회



▼ 청소년 교양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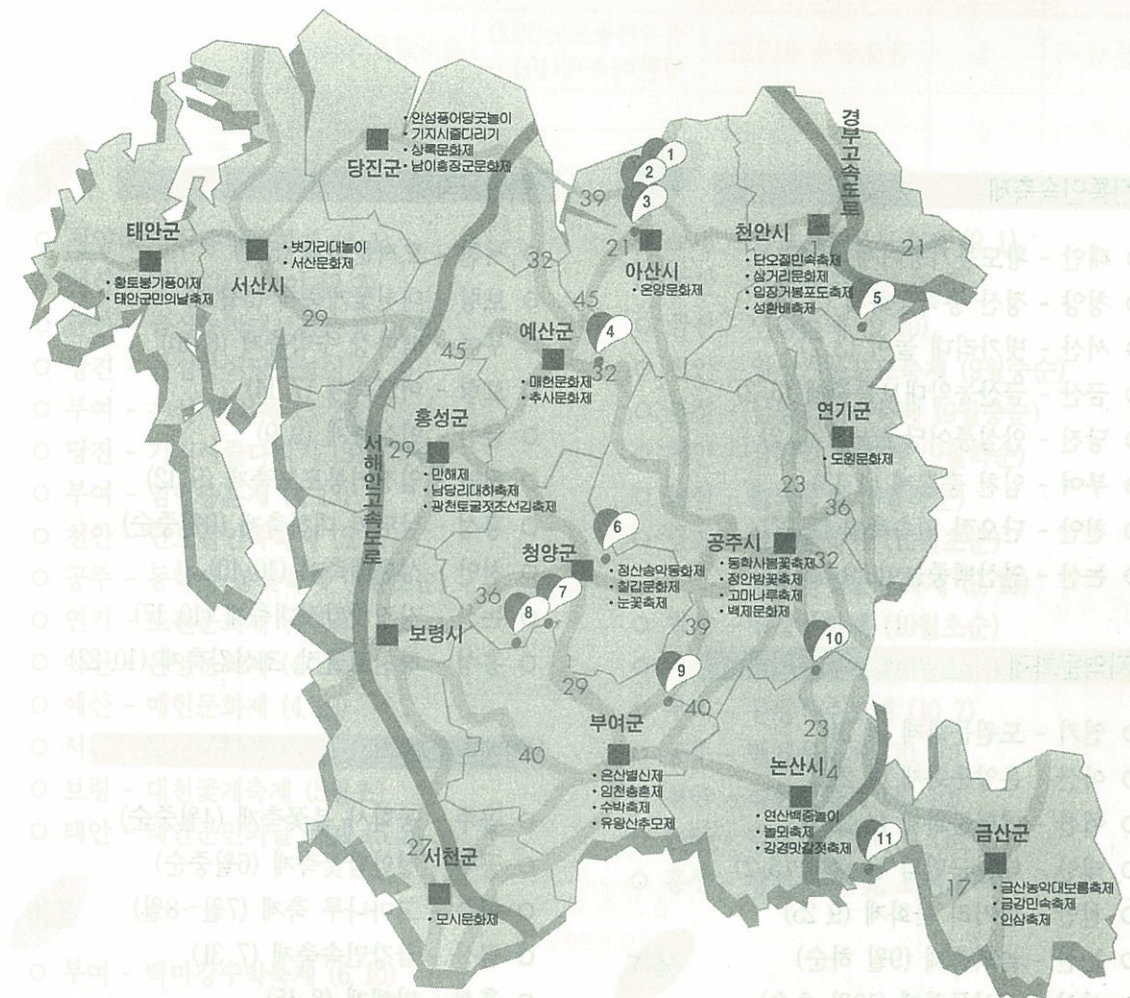
'98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당나루의맥락 18집 발간	○ 일시 : 1998. 12. 30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500부	『당진문화원 40년사』	
2	당나루향토문 화 연구 소	○ 일시 : 연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45명	향토문화 연구·조사 문화유적탐방	
3	전통세시 민속놀이 및 정기총회	○ 일시 : 1998. 2. 13 ○ 장소 : 광어촌 ○ 참석인원 : 90여명	전통세시민속놀이 97 세입·세출 결산승인 98 세입·세출 예산승인	
4	도립국악인에 술단초청공연	○ 일시 : 1998. 9. 9 ○ 장소 : 당진군민회관 ○ 참석인원 : 800여명	전통민요 및 춤 공연	
5	문화원40주년 기념 C D T A P E 제 작	○ 일시 : 1998. 2월~10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4,500개	문화원의 노래, 당진군민의 노래 등 당진군 가요수록 및 詩낭송 수록	
6	남이홍장군 문화제 학생백일장	○ 일시 : 1998. 9. 10 ○ 장소 : 충장사 경내 ○ 참석인원 : 2,000여명	충장공 남이홍장군 승모 학생백일 장 시상	
7	당진·홍성 문화원합동 문화탐방	○ 일시 : 1998. 11. 30 ○ 장소 : 정동이벤트홀 ○ 참석인원 : 42명	'98 MBC 마당놀이 붐이 김선달 관람	
8	당진·홍성 문화원합동 이사회	○ 일시 : 1998. 3. 11 ○ 장소 : 홍성문화원 ○ 참석인원 : 40여명	연중 사업현황보고 및 문화 교류 사업 협의 상호협력방안 모색	
9	당진·홍성 문화원합동 강연회	○ 일시 : 1998. 11. 26 ○ 장소 : 홍성문화원 ○ 참석인원 : 100여명	'98 문화논단 『환경과 생활』강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0	『당진문화』 12호 발간	○ 일시 : 1998. 7. 30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3,000부	문화원 사업소개 상반기 지역문화 행사 및 군민문화의식 제고	
11	『당진문화』 13호 발간	○ 일시 : 1998. 12. 30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3,500부	문화원 사업소개 하반기 지역문화 행사 및 군민문화의식 제고	
12	당진문화원 개원40주년 기념식	○ 일시 : 1998. 11. 11 ○ 장소 : 당진군민회관 ○ 참석인원 : 700여명	당진문화원 개원40주년 기념 감사 패 및 공로패 수여식	
13	당진향토 전래민요 조사·연구	○ 일시 : 1998. 3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100부	당진향토전래민요 조사·연구발표	
14	전입주민 우리고장문화 알리기 운영	○ 일시 : 1998. 5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00여명	당진군 문화유적안내 관내 문화유 적지 순례	
15	소들문화축제및 남이흥장군문화 제 이미지 통합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용역 : 2건	소들문화축제 및 남이흥장군문화 제 CIP작업	
16	합덕농민운동 기념비제막식	○ 일시 : 1998. 11. 2 ○ 장소 : 합덕소들공원 ○ 참석인원 : 500여명	합덕농민운동을 기념하여 기념비 건립	
17	사생대회	○ 일시 : 1998. 11. 2 ○ 장소 : 소들공원 ○ 참석인원 : 110여명	소들공원·합덕농민운동기념비 제 막식 기념 관내 초·중·고생 사 생대회	
18	문화원신축및 문화의집개관 기념행사	○ 일시 : 1998. 12월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500여명	당진문화원 신축원사 준공 및 문 화의집 개관 기념행사	
19	『문화학교』 한지공예교실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46명	전통한지공예품 실습지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20	『문화학교』 일본어교실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39명	일본어 기초강의	
21	『문화학교』 꽃꽂이교실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37명	생활꽃꽂이 강의, 실습	
22	『문화학교』 연극교실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23명	연극동아리구성 및 강의, 실습	
23	『문화학교』 사진교실	○ 일시 : 1998. 9월~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34명	사진촬영기법 강의 야외촬영, 현 상, 인화	
24	『문화학교』 청소년 문화유적탐방	○ 일시 : 1998. 7. 20 ○ 장소 : 당진관내 ○ 참석인원 : 80여명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당진군 문화유적지순례	
25	제2의건국“문화의 힘으로다시일어 서는당진군민”	○ 일시 : 1998. 11. 11 ○ 장소 : 당진군민회관 ○ 참석인원 : 700여명	김광자 무용단 및 송파구립민속예 술단, 가수초청공연	
26	『청소년어울마당』 레크레이션 -면천중학교	○ 일시 : 1998. 4. 23 ○ 장소 : 면천중학교 ○ 참석인원 : 500여명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도 레크레 이션 지도	
27	『청소년어울마당』 레크레이션 어린이꿈잔치	○ 일시 : 1998. 5. 5 ○ 장소 : 당진군민회관 ○ 참석인원 : 800여명	어린이날 기념 자녀와 부모와의 레크레이션 지도	
28	『청소년어울마당』 댄스및가요경연	○ 일시 : 1998. 5. 16 ○ 장소 : 당진군민회관 ○ 참석인원 : 800여명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그룹댄 스 및 가요경연대회	
29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유적탐방	○ 일시 : 1998. 7. 20 ○ 장소 : 당진군내 ○ 참석인원 : 40여명	건국 50주년기념 관내 우국지사 및 순국선열묘역 답사	

충남의 향토문화축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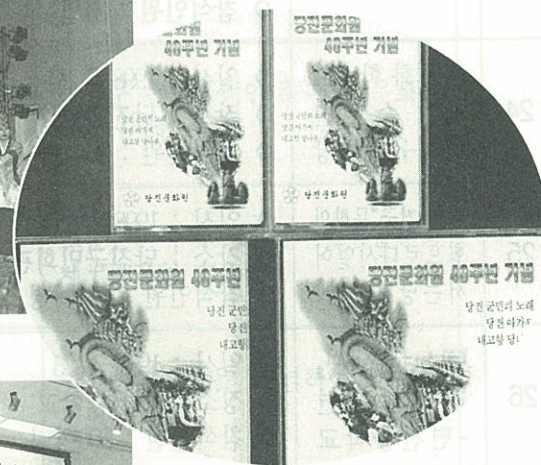


충청남도
전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30	『청소년어울마당』 레크레이션 호서고등학교	○ 일시 : 1998. 11. 27 ○ 장소 : 호서고등학교 ○ 참석인원 : 800명	건전한 청소년 문화선도 학부모 및 청소년이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31	『청소년어울마당』 댄스및가요경연	○ 일시 : 1998. 12월중 ○ 장소 : 당진군민회관 ○ 참석인원 : 800여명	'98 송년 청소년문화행사 청소년 그룹댄스 및 가요경연대회	



◀ 당진문화원 40주년 기념식



▲ 당진문화원 40주년 기념 CD, 테이프



◀ 남양장군문화제 -
충남국악관현악단초청공연

● 성격별 안내 ●

테마가 있는 향토축제

전통민속축제

- 태안 - 황도봉기풍어제 (2. 17)
- 청양 - 정산 송학동화제 (3. 1)
- 서산 - 벗가리대 놀이 (3. 2)
- 금산 - 금산농악대보름축제 (3. 2)
- 당진 - 안섬붕어당굿놀이 (3. 2)
- 부여 - 임천 충혼제 (4. 13)
- 천안 - 단오절 민속축제 (5. 27)
- 논산 - 연산백중놀이 (9. 5)

지역문화제

- 연기 - 도원문화제 (4. 24)
- 아산 - 온양문화제 (4. 25)
- 예산 - 매현문화제 (4. 29)
- 태안 - 태안군민의 날 축제 (5. 2)
- 천안 - 삼거리 문화제 (9. 25)
- 논산 - 놀피축제 (9월 하순)
- 서산 - 서산문화제 (10월 초순)
- 당진 - 상록문화제 (10월 초순)
남이홍장군문화제 (9. 10)
- 청양 - 칠갑 문화제 (10월 초순)
- 공주 - 백제문화제 (10. 10)

특산물축제

- 서천 - 모시문화제 (5. 1)
- 보령 - 대천꽃게축제 (5월초)
- 부여 - 백마강 수박축제 (6. 10)
- 보령 - 머드축제 (7. 14)
- 금산 - 인삼축제 (9. 9)
- 천안 - 입장거봉포도축제 (9. 12)
- 홍성 - 남당리 대하축제 (9월중순)
- 천안 - 성환배축제 (10. 10)
- 논산 - 강경맛갈것대축제 (10. 17)
- 홍성 - 광천토굴젓, 조선김축제 (10. 22)

이벤트축제

- 공주 - 동학사 봄꽃축제 (4월중순)
- 공주 - 정안밤꽃축제 (6월중순)
- 공주 - 고마나루 축제 (7월~8월)
- 금산 - 금강민속축제 (7. 31)
- 홍성 - 만해제 (8. 15)
- 부여 - 유왕산추모제 (10. 7)
- 예산 - 추사문화제 (10. 8)
- 청양 - 칠갑산눈꽃축제 (12월하순)

● 계절별 안내 ●

지금은 향토축제 시즌입니다

봄

- 청양 - 정산송학동화제 (3. 1)
- 서산 - 벗가리대 놀이 (3. 2)
- 금산 - 금산농악대보름축제 (3. 2)
- 당진 - 안섬붕어당굿놀이 (3. 2)
- 부여 - 은산 별신제 (3. 29)
- 당진 - 기지시줄다리기 (3월 하순)
- 부여 - 임천충혼제 (4. 13)
- 천안 - 단오절민속축제 (5. 27)
- 공주 - 동학사 봄꽃축제 (4월초순)
- 연기 - 도원문화제 (4. 18)
- 아산 - 온양문화제 (4. 25)
- 예산 - 매현문화제 (4. 29)
- 서천 - 모시문화제 (5. 1)
- 보령 - 대천꽃게축제 (5월초)
- 태안 - 태안군민의날 축제 (5. 2)

여름

- 부여 - 백마강수박축제 (6. 10)
- 공주 - 정안밤꽃축제 (6. 18)
- 보령 - 머드축제 (7. 14)
- 공주 - 고마나루 축제 (7~8월)
- 금산 - 금강민속 축제 (7. 31)
- 홍성 - 만해제 (8. 15)

가을

- 보령 - 남포사현포도축제 (9. 1)
- 논산 - 연산백중놀이 (9. 5)
- 금산 - 인삼축제 (9. 10)
- 천안 - 입장거봉포도축제 (9월중순)
- 홍성 - 남당리대하축제 (9월중순)
- 천안 - 삼거리 문화제 (9월하순)
- 논산 - 놀피축제 (9월하순)
- 당진 - 상록문화제 (10월초순)
남이홍장군문화제 (9. 10)
- 청양 - 칠갑문화제 (10월초순)
- 서산 - 서산문화제 (10월초순)
- 부여 - 유왕산추모제 (10. 7)
- 공주 - 백제문화제 (10. 10)
- 천안 - 성환배축제 (10. 10)
- 논산 - 강경맛갈것축제 (10. 17)
- 홍성 - 광천 토굴젓, 조선김축제 (10. 22)

겨울

- 태안 - 황도봉기풍어제 (2. 17)
- 청양 - 칠갑산눈꽃축제 (12. 23)

'99 향토문화축제 개최계획

〈시 군 별〉

시 군 별	개최건수	세시민속축제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이벤트축제
합 계	40종	10종	11종	11종	8종
천안시	4	단오절축제(5.27)	입장거봉포도(9.12) 성환배축제(10.10)	삼거리문화제(9.25)	
공주시	4			백제문화제(10.9)	동학사봄꽃(4.8) 정안밤꽃(6.18) 곰나무(7~8월)
보령시	3		꽃게축제(5. 1) 머드축제(7.14) 남포포도(9. 1)		
아산시	1			온양문화제(4.25)	
서산시	2	벚가릿대놀이(3.2)		서산문화제(10월초)	
논산시	3	연산백중놀이(9.5)	강경맛갈젓(10.17)	놀이축제(9월 하)	
금산군	3	농악대보름축제(3.2)	인산축제(9.9)		금강민속축제(7.31)
연기군	1			도원문화제(5.24)	
부여군	4	온산별신제(3.25) 임천충혼제(4.13)	수박축제(6.10)		유왕순추모제(10.7)
서천군	1	정산송악동화제(3.1)	모시문화제(5.1)		
청양군	3			칠갑문화제(9.30)	눈꽃축제(12.23)
홍성군	3		대하축제(9. 중) 광천토굴젓축제(10.22)		만해제(8.14)
예산군	2			매현문화제(4.29)	추사문화제(10.8)
태안군	2	황도봉기풍어제(2.17)		태안문화제(5.2)	
당진군	4	안섬풍어당굿(3.2) 기지시줄다리기(3.29)		상록문화제(9.29) 남이홍장군문화제(9.10)	

'99 향토문화축제 개최계획

〈개최시기별〉

계절별	월별	합계	세시민속축제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이벤트축제
합 계		40	10	11	11	8
겨울 (2)	1					
	2	1	황도풍어제(2.17)			
봄 (15)	3	6	벚가릿대놀이(3.2) 정산동화제(3.1) 안섬풍어당(3.2) 금산농악정월(3.2) 온산별신제(3.27) 기지시줄다리기(3.29)			
	4	5	임천충혼제(4.13)		온양문화제(4.25) 도원문화제(4.18) 매현문화제(4.29)	동학사봄꽃축제(4.8)
여름 (6)	5	4	단오절민속축제(5.27)	대천꽃게(5.1) 모시문화제(5.1)	태안문화제(5.2)	
	6	2		백마강수박(6.10)		정안밤꽃축제(6.18)
	7	2		보령머드축제(7.14)		금강민속(7.31)
	8	2				만해제(8.14) 곰나무축제(8월)
가을 (15)	9	9	연산백중놀이(9.5)	입장거봉포도(9.12) 남포사현포도(9.1) 금산인삼(9.10) 남당대하(9월 중)	천안삼거리(9.25) 상록문화제(9.29) 놀이축제(9월 하) 남이홍장군문화제(9.10)	
	10	8		성환배축제(10.10) 강경젓갈(10.17) 광천젓갈(10.22)	서산문화제(10월초) 칠갑문화제(10.1) 백제문화제(10.9)	유왕산추모제(10.7) 추사문화제(10.8)
겨울	11					
	12	1				청양눈꽃축제(12.23)

'99 향토문화축제 개최안내

시군명	축 제 명	개최시기	행사종목	장 소 (주행사장)	안내전화(지역번호)
천안시 (4)	단오절민속축제 입장거봉포도축제 삼거리문화제 성환배축제	6월중순(2일) 9월중순(2일) 9월하순(5일) 10월중순(2일)	17 7 13 5	아우내장터 입장초등학교 삼거리공원 천안문예회관	(0415)564-1022 564-6199 550-2541 581-4179
공주시 (4)	동학사봄꽃축제 정안밤꽃축제 고마나루축제 백제문화제	4월초순(4일) 6월초순(1일) 7~8월(2월) 10.9~10.12(4일)	8 5 4 40	동학사일원 정산면일원 금나루일원 공주공설운동장	(0416)850-4541 850-4541 850-4541 850-4541
보령시 (3)	대천꽃게축제 보령머드축제 남포사현포도축제	5월초순(5일) 7.14~7.18(5일) 9월초순(2일)	6 7 4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남포면사현리	(0452)930-3541 930-3541 930-3541
아산시(1) 서산시(2)	온양문화제 벚가리대놀이 서산문화제	4.25~4.28(4일) 3월중순(1일) 10월초순(4일)	38 6 32	곡교천둔치 서산시인지면 서산시문화회관	(0418)540-2544 (0455)669-5050 (0455)669-5050
논산시 (3)	연산백중놀이 놀이축제 강경전통맛갈대축제	9월초순(1일) 9월하순(2일) 10월중순(4일)	1 10 8	연산체육공원 논산공월운동장 강경고교	(0461)730-1224 730-1224 730-1224
금산군 (3)	정월대보름축제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축제	3.2~3.3(2일) 7.31~8.2(3일) 9.7~9.13(6일)	11 7 62	금산장동마을 부리면평촌리 금삼교사거리	(0412)750-3224 750-3224 753-4350
연기군(1) 부여군 (4)	도원문화제 온산별신제 임천충혼제 백마강수박축제 유왕산추모제	4.24~4.26(3일) 3.25~3.30(6일) 4.13~4.14(2일) 6.10(1일) 10.7(1일)	15 10 4 7 5	조치원고교 온산면온산리 임천면충혼사 청소년수련원 유왕산일원	(0415)861-2224 (0463)830-3226 830-3226 830-3226 830-3226
서천군(1) 청양군 (3)	모시문화제 정산송학동화제 칠갑문화제 칠갑산눈꽃축제	5.1~5.6(6일) 3.2(1일) 9.30~10.1(2일) 12.23~1.30(1월)	38 1 20 6	한산모서관 읍내지천문치	(0459)950-4225 (0454)940-3225 940-3225 940-3225
홍성군 (3)	만해축제 대하축제 광천보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	8.14~8.15(2일) 9월중순(5일) 10월중순(4일)	11 10 7	홍성읍일원 서부면남당리 광천읍일원	(0451)630-1253 630-1253 630-1253
예산군 (2)	매현문화제 추사문화제	4.28~4.29(2일) 10월중순(3일)	28 6	충의사일원 추사고택일원	(0458)330-2224 335-2441
태안군 (2)	황도봉기풍어제/태안군의 날축제(문화제+체육대회)	2.17~2.18(2일) 5.1~5.2(2일)	4 20	황도리일원 태안중학교	(0455)674-2192 674-2192
당진군 (4)	안섬풍어당굿놀이 기지시줄다리기(소제) 상록문화제 남이흥장군문화제	3.2(1일) 4월초순(1일) 9월말(2일) 9.10(1일)	6 10 20 5	송악면안섬 송악면기지시리 당진군민회관 대호지면충장사	(0457)350-3324 350-3324 350-3324 354-2367

충청남도 관광안내도



편집 후기

多事多難했던 戊寅年을 보내고 새로운 千年을 준비하는 希望찬 己卯年을 맞아 各文化院과 文化家族의 多幸多福을 기원하고 물밑듯이 밀려오는 外來文物의 波高를 傳統固有文化로 무장해 헤쳐나가고 精神的 價値觀을 재정립, 世界로, 未來로, 치달는 충남도내 문화원의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忠南文化의 편집에, 經驗이 없는 小人이 參與한 것 부터가 他意였지만 애써서 마련한 귀중한 글들을 모아 제때에 편찬치 못한 責任을 통감하고 한권의 책을 펴내는 產苦를 겪는중에 김현구 忠南道支會장님의 鞭撻과 당진 민영근 원장님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아울러 唐津 이윤옥氏의 감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문화원 이 지 호

忠南文化

1998
〈통권제2호〉

발행일 : 1998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현구

편집위원 : 이지호(예산문화원장) 장영석(부여문화원장)
지해두(성환문화원장) 이하영(홍성문화원장)
민영근(당진문화원장)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356-020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8

전화 (0455)667-0417 팩스 (0455)669-4567

편집·인쇄 : 상록동양인쇄문화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44-2

대표전화 (0457)355-3686 팩스 (0457)353-3686

〈비매품〉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원사 면적(평)	문화가족		전화번호
				원장	사무국장	
계	17개소					
도 지 회	서산시 읍내동 268	67. 2.20		김현구	한기홍	(0455) 667-0417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10	800(단독)	민병달	이정우	(0417) 575-3004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20	161(공동)	조성민	조성순	(0417) 564-1022
성환문화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25	84(단독)	지해두	신광식	(0417) 581-2101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12.16	303(단독)	이관용	정재욱	(0416) 852-9005
대전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단독)	윤원석	이혜실	(0452) 934-3061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11.24	285(단독)	박노을	장기승	(0418) 545-2222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268	57. 6. 15	233(단독)	김현구	한기홍	(0455) 669-5050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14	105(공동)	하기수	양순모	(0461) 732-2395
금산문화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단독)	신정교	안용산	(0412) 754-2724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10.14	90(공동)	장영	성문경	(0415) 865-2411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공동)	장영석	김인권	(0463) 835-3318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176-2	65. 2.26	300(공동)	노금래	홍덕유	(0459) 953-0123
청양문화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11	286(단독)	안종일	임두순	(0454) 943-4774
홍성문화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26	150(단독)	이하영	김경식	(0451) 632-3613
예산문화원	예산읍 예산리 433	55.10.15	145(단독)	이지호	김문희	(0458) 335-2441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15	205(단독)	이갑춘	류정환	(0455) 674-2192
당진문화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70(단독)	민영근	김당원	(0457) 354-2367

